

제9차(2006)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남재량 · 성재민 · 이상호
최효미 · 신선옥

목 차

제1장 머리말	1
제2장 한국노동패널 9차 조사의 개요	14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14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과 설문 내용	17
1.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17
2. 설문 내용	19
제3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23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	23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28
제4절 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33
1. 응답 가구의 특성	33
2. 조사성공가구원의 특성	37
제5절 이사·분가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42
1. 이사가구의 특성	42
2. 비원표본가구(분가가구)의 특성	43
3. 비성공가구의 특성	45
4. 신규 조사자의 특성	47
제6절 한국노동패널의 가중치	49
1.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 부여방법	49
2. 2차년도 조사 이후의 가중치 부여방법	50
3. 가중치 변수 및 이용방법	52

제3장 조사가구의 특성	53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53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57
1. 가구주의 특성	58
2. 가구원의 특성	59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60
제4장 가계경제	64
제1절 가구소득	64
1. 가구의 총소득	66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67
제2절 가구소비	68
1. 생활비	69
2. 저 축	71
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72
제3절 주거형태 및 비용	74
1. 입주형태 및 주거비용	75
2. 주택의 종류	77
제4절 자산 및 부채	78
1. 부동산자산	78
2. 금융자산	79
3. 가구의 부채	82
제5절 자녀 교육비	83
제5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85
제1절 경제활동상태	86
제2절 취업자의 특성	89
제3절 미취업자	94

1. 구직활동	94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96
제6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98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99
제2절 근로시간	102
1. 평균 근로시간	103
2. 초과근로시간	106
제3절 임금	107
1.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산정방식	107
2. 월평균 임금	109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	114
1. 비정규직의 규모	114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116
제7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118
제1절 종사상 지위	119
제2절 근로시간	121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121
2. 주당 근로시간	123
제3절 근로소득	126
제4절 사업체의 창업	130
제8장 생활·직무 만족도 및 생활과 건강	132
제1절 생활 만족도	133
제2절 직무 만족도 및 교육·기술 적합도	137
1. 직무 만족도	137
2. 조직 몰입도	141
3. 직무 적합도와 기술(기능)의 유용성	143

제3절 생활과 건강	146
제9장 청년층 부가조사	150
제1절 사교육	151
제2절 대학과 첫 직장	154
제3절 가족생활과 성장	157
제10장 경제활동의 동태적 변화	161
1.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162
2. 가구소득의 변화	167

표 목 차

<표 2- 1> 1~9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15
<표 2- 2> 1~9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19
<표 2- 3> 9차년도(2006년) 설문 내용	21
<표 2- 4> 각 연도별 조사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25
<표 2- 5> 각 연도별 조사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26
<표 2- 6>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횟수	27
<표 2- 7> 시기별·지역별 조사진행률 추이: 원가구	28
<표 2- 8> 시기별·지역별 조사진행률 추이: 원가구+분가가구	29
<표 2- 9> 각국의 가구패널조사와 KLIPS 원표본유지율	30
<표 2-10> 지역별 원표본가구유지율	32
<표 2-11> 1~9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횟수	33
<표 2-12> 소득분위별 평균 응답횟수 및 계속응답가구 비중 (원가구 대비)	35
<표 2-13> 1~9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가구주 특성	36
<표 2-14> 1~9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횟수	38
<표 2-15> 1~9차년도 계속응답가구원의 특성	41
<표 2-16> 9차년도 이사가구 분포	43
<표 2-17> 각 9차년도 비원표본가구수	44
<표 2-18> 9차년도 비성공가구의 지역별 분포	45
<표 2-19> 각 비성공가구 방문횟수	46
<표 2-20> 각 비성공사유별 평균 방문횟수	47
<표 2-21> 9차년도 신규 조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48
<표 2-22> KLIPS의 가중치의 사례수	51
<표 3- 1> 연도별 가구원수 변화 추이	54

<표 3- 2> 연도별 세대구성 변화 추이	55
<표 3- 3> 연도별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57
<표 3- 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	58
<표 3- 5> 1~9차년도 조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59
<표 3- 6> 2~9차년도 출생자의 특성	61
<표 3- 7> 2~9차년도 사망자의 특성	62
<표 4- 1> 연간 가구 총소득	66
<표 4- 2>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 소득	67
<표 4- 3> 2~9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69
<표 4- 4>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	70
<표 4- 5> 2~9차년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71
<표 4- 6>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	73
<표 4- 7>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	73
<표 4- 8> 2~9차년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75
<표 4- 9> 2~9차년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	77
<표 4-10>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79
<표 4-11>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80
<표 4-12> 부채 잔액 분포	82
<표 4-13> 9차년도 가구내 자녀 유무 및 자녀 수	83
<표 4-14> 9차년도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	84
<표 5- 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 1~9차년도	85
<표 5- 2> 경제활동상태 비교: 1~9차년도	87
<표 5- 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1998~2006년	89
<표 5- 4> 경찰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1998~2006년	90
<표 5- 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1998~2006년	90
<표 5- 6> 경찰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1998~2006년	91
<표 5- 7>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9차년도	92
<표 5- 8>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별 분포: 9차년도	93

<표 5- 9> 특성별 구직방법: 9차년도	95
<표 5-10> 미취업자가 구직시 주로 겪는 어려움	97
<표 6- 1> 각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1998~2006년	98
<표 6- 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 2006년	101
<표 6- 3>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998~2006년	103
<표 6- 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06년	104
<표 6- 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06년	104
<표 6- 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06년	105
<표 6- 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 2006년	106
<표 6- 8>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지급방법: 2006년	108
<표 6- 9> 임금 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 2006년	109
<표 6-10> 연도별 월평균 임금 비교	110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 2006년	111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2006년	112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2006년	113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과 비정규직: 2006년	115
<표 7- 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1998~2006년	118
<표 7- 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 1998~2006년	119
<표 7- 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120
<표 7- 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	
2006년	122
<표 7- 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평균 근로시간:	

1998~2006년	124
<표 7- 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2006년	125
<표 7- 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2006년	125
<표 7- 8> 연도별 월평균 소득 비교	126
<표 7- 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 2006년	128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2006년	129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2006년	129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2006년	130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2006년	131
<표 8- 1> 항목별 생활 만족도 분포:2006년	136
<표 8- 2> 요인별 직무 만족도 분포:2006년	139
<표 8- 3> 인구학적 특성별 조직 몰입도 및 직무 만족도 점수 결과:2006년	142
<표 8- 4> 인구학적 특성별 교육수준의 직무 적합도 결과:2006년	144
<표 8- 5>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기능) 수준의 직무 적합도 결과: 2006년	144
<표 8- 6>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기능) 유용성 결과:2006년	145
<표 8- 7> 인구학적 특성별 주관적 건강상태:2006년	147
<표 8- 8> 가구 소득수준별 건강상태 비교:2006년	147
<표 9- 1> 유치원 다녔는지 여부	151
<표 9- 2> 유치원 이외 사교육 이용 여부	151
<표 9- 3> 유치원 포함 사교육 이용 여부	152
<표 9- 4> 초등학교 4학년 때 종류별 사교육 이용 여부	152
<표 9- 5> 초등학교 4학년 때 사교육 이용 여부	152
<표 9- 6> 중학교 2학년 때 종류별 사교육 이용 여부	153

<표 9- 7> 중학교 2학년 때 사교육 이용 여부	153
<표 9- 8> 고등학교 2학년 때 종류별 사교육 이용 여부	153
<표 9- 9>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교육 이용 여부	154
<표 9-10> 대학 다닌 적 있는지 여부	154
<표 9-11> 첫 일자리 업무 내용이 전공과 일치하는지	155
<표 9-12> 첫 일자리 업무수준이 나의 교육수준과 일치하는지	156
<표 9-13> 첫 일자리가 희망직업이었는지	156
<표 9-14> 14세 때 집의 환경	158
<표 9-15> 14세 무렵 문화활동	158
<표 9-16> 14세 무렵 부모와의 대화	159
<표 9-17> 집에만 있는 적이 있는지 여부	159
<표 9-18> 중학교 시절 이상 행동의 경험	160
<표 9-19> 고등학교 시절 이상 행동의 경험	160
<표 10- 1> 경제활동상태의 이동	163
<표 10- 2> 8차년도 → 9차년도 성별 경제활동상태 이행	164
<표 10- 3> 8차년도 → 9차년도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이행	165
<표 10- 4> 8차년도 → 9차년도 학력별 경제활동상태 이행	166
<표 10- 5> 가구소득분위의 이동	168
<표 10- 6> 7차년도 → 9차년도 가구주 연령별 가구소득분위의 이동	169
<표 10- 7> 7차년도 → 9차년도 가구주 성별 가구소득분위의 이동	169

그림 목차

[그림 2- 1] 노동패널조사 연도별 계속응답가구수	34
[그림 2- 2]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	38
[그림 2- 3] 각 연도별 계속응답가구원수 추이	40
[그림 2- 4] 각 연도별 전체응답가구 대비 비원표본가구의 비중	44
[그림 2- 5] 비원표본가구원이면서 신규로 조사에 추가된 이유 (2~9차년도)	48
[그림 3- 1] 9차년도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	56
[그림 3- 2] 사망자의 사망원인	62
[그림 4- 1] 가구 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	67
[그림 4- 2] 9차년도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72
[그림 4- 3] 9차년도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	75
[그림 4- 4] 9차년도 거주지별 전·월세 평수, 임대보증금 분포	76
[그림 4- 5] 9차년도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	80
[그림 4- 6] 2~9차년도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	81
[그림 5- 1] 최근 6년간 경제활동 참가율 및 취업인구비율 비교: 2001~2006년	88
[그림 5- 2] 최근 6년간 실업률 비교: 2001~2006년	88
[그림 5- 3]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9차년도	94
[그림 5- 4] 성별·근로시간 형태별 평균 희망임금	96
[그림 6- 1] 임금근로자의 학력분포: 2006년	99
[그림 6- 2] 임금근로자의 연령분포: 2006년	100

[그림 6- 3] 다양한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2006년	115
[그림 6-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006년	116
[그림 7- 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1998~2006년	123
[그림 7- 2]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소득 차액 비교	127
[그림 8- 1]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 1998~2006년	134
[그림 8- 2] 연령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추이	134
[그림 8- 3] 교육수준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추이	135
[그림 8- 4] 소득수준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 2006년	135
[그림 8- 5]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추이 : 1998~2006년	137
[그림 8- 6] 요인별 직무 만족도 점수 비교 : 1998년/2006년	138
[그림 8- 7] 성별 전반적 직무 만족도 점수 : 2006년	139
[그림 8- 8] 산업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 2006년	140
[그림 8- 9] 직업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 2006년	140
[그림 8-10] 산업별 건강상태 비교 : 2006년	148
[그림 8-11] 직종별 건강상태 비교 : 2006년	148

제 1 장

머리말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9차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한 것이다. KLIPS는 기존의 단편적인 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자료를 패널로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종단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이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한편 자체 예산도 일부 투입하여 실시하는데, 1998년에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6년에 제9차 조사가 완료되었다.¹⁾ 이 보고서는 아홉 차례에 걸친 패널조사 가운데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을 마친 제9차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1~8차 조사 결과와도 비교하고 있다.²⁾

KLIPS는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5,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표본 가구와 이들 가구를 구성하는 13,321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패널조사의 사활은 무엇보다도 최초 추출된 표본을 이후 조사에서도 얼마나 많이 조사하는가에 달려 있다. KLIPS는 지난 제8차 조사에서 원표본인 5,000가구의 76.5%를 조사하여 높은 표본유지율을 기록하여 오고 있다.

* 본 연구는 남재량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노동패널팀의 성재민(제5장, 제9장, 제10장), 이상호(제2장), 최효미(제4장, 제6장, 제7장), 신선옥(제3장, 제8장) 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1) 2007년 10월 현재 제10차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2) 각 연도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해당 연도의 기초분석보고서를 찾아보면 된다.

2 제9차(2006)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이번 제9차 조사에서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8차 조사에서와 동일한 76.5%이다.³⁾ 이는 PSID, GSOEP, BHPS 등을 비롯한 외국의 우수한 패널조사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는 성과이다. 이제 KLIPS는 적어도 표본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패널조사로서 확고한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제9차 조사도 역시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다. 이번에도 노동패널팀원들은 조사 현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조사원들의 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조사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욱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차적인 노력에 추가하여 데이터 클리닝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입력 단계를 마친 자료상의 오류들을 다시 걸러 바로잡는 과정을 거쳤다. 게다가 학술대회용으로 미리 공개한 자료를 사용한 학술대회 발표자들의 문제 제기와 조언들은 KLIPS 자료의 질을 높이는 데에 또 한 번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2007년 2월 1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 총 3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를 통해 4편의 우수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 역시 지난 학술대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참가자들의 열기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에 비추어 우리는 KLIPS가 양과 질 모두에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노동패널팀은 앞으로 거듭될 차수에서도 조사가 성공적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자료 사용자 제위께서도 KLIPS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기탄없이 패널조사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주시기 바란다.

KLIPS는 자료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노동패널이라는 양질의 자료를 가지고는 있으나 분석 기법상의 한계로 인해 자료에 들어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그리고 엄밀하게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지난 제6회 학술대회는 특별 분과(special session)를 마련하여 패널자료 분석방법론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 번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

3) 잠정적으로 집계한 제10차 조사의 원표본가구 유지율도 이와 유사한 정도로 높다.

로 파악하고 노동패널팀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시 한번 패널 분석방법론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 가운데 한 분께서 두 시간에 걸쳐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강연을 하여 200명을 훨씬 넘는 청중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KLIPS 자료를 사용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보다 우수한 패널 분석방법론을 사용하여 더욱 엄밀하고 풍부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KLIPS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제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언이 다시 KLIPS의 발전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KLIPS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제와 사회, 문화 등의 측면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발전에 훌륭한 밑거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마련하고 보충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미 지난 보고서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FAQ는 노동패널자료의 사용과 관련하여 팀에 접수되는 질문들 가운데 빈도가 높은 질문들을 29개로 추려 이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사용자 지침(user's guide)에 추가하고 홈페이지에 올려 두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SAS와 SPSS 프로그램도 함께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FAQ는 그동안 자료 사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는 FAQ의 문항을 더욱 늘리고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이 역시 홈페이지에 올려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자료 사용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한 이용자의 문의는 앞으로도 FAQ를 더욱 확충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제 KLIPS의 구성과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 KLIPS는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조사는 매년 반복되는 기본적인 내용들로 구성된다. 부가조사는 패널조사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기본조사에 덧붙여 실시하는 추가적인 조사이다. 기본조사는 가구의 특성과 가구의 경제활동을 주로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에 대한 조사는 가구의 구성과 가구소득 및 소비, 주거 등의 내용을 조

4 제9차(2006)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사한다.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가구를 구성하는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실시하며 취업자 개인(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과 미취업자 및 신규 진입자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내용은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력 상태, 소득, 노동이동 등 다양하다.

본 보고서의 구성도 KLIPS의 설문과 유사하다. 제2장은 제9차 조사에 대해 개관하고 있으며, 제3장과 제4장은 가구에 대한 주요 조사자료들을 분석한 것으로서 각각 조사가구의 특성과 가계경제에 대해 다룬다. 제5장부터 제8장까지는 가구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3장은 가구와 가구원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제4장은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분석한다. 제6장과 제7장은 각각 개별 근로자 가운데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근로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제8장은 응답자 개인들의 생활, 경제활동, 직무 등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9장은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LIPS는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3차 조사에서 처음 실시된 부가조사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반영하여 청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4차 조사는 건강과 은퇴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고, 제6차 조사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을 반영하여 중·고령자에 대한 조사를 부가조사로 실시하였다. 제7차 조사는 ‘근로시간과 여가’를 부가로 조사하였다. 제8차 조사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⁴⁾를 조사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인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제9차 조사는 청년층에 대해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청년 무업자를 비롯한 새로운 청년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다.

이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히 정리하자.

제2장은 9차년도 패널조사의 조사 방법 및 조사 결과, 표본유지율, 응답 가구와 가구원 특성, 이사·분가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등과 같은

4) 제9차 조사는 ‘청년’에 대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반적인 조사 개요를 다루고 있다. 9차년도 조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원표본 3,821가구 및 분가한 1,181가구를 합하여 총 5,002가구에 대한 조사를 성공하였다. 개인응답자는 전체 11,756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1,358명, 신규 가구원이 398명이었다.

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1차년도 원표본 5,000가구 대비 원표본유지율은 76.5%로 전년도 원표본유지율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소멸가구를 제외한 유효표본가구(9차년도 4,914가구) 대비 표본유지율은 77.8%로 전년도 유효표본유지율 77.5%보다 0.3%포인트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4차년도 이후 노동패널조사의 표본유지율은 가구 소멸로 인한 자연 감소를 제외하고는 표본 감소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조사의 질적 측면 역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 응답자 중 본인 응답 비율은 지난해 87.3%보다 2.7%포인트가 증가하여 처음으로 90%를 넘었으며, 조사방식에 있어서도 면접 비율이 89.7%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1~9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비율은 55.7%이며, 계속응답 개인의 비율은 44.2%이다. 한편, 비성공가구의 비성공 사유로는 ‘강력 거절’이 해마다 증가하여 9차 조사에서는 51.1%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 한국노동패널의 조사 성과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데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조사에 성공한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제1절은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은 가구주와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은 지난 9년간의 노동패널조사 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 표본 내에서의 인구 변동에 대해 다룬다.

우선 가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평균 가구원수는 3.1인이며, 4인 가구의 비중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가구주와 가구주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64.5%로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핵가족화의 진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구성은 남성이 81.5%를 차지하고 있어 남성 중심의 가계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9.8세로 나타났으며,

6 제9차(2006)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15세 이상 가구원의 평균 연령은 응답 결과 41.6세로 나타났다.

제4장은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특성들을 살펴보고 있다. KLIPS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9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제1절은 가구 소득 부문으로서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 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절은 가구의 소비를 생활비와 저축 항목으로 구분하여 알아본다. 또 9차년도부터 대폭 설문이 보장된,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3절은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은 가구의 자산과 부채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자녀 교육비에 대해 알아본다.

연도별로 가구 총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9차년도 연간 총소득은 3,419만원(월평균 28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08만원 늘어났으며, 실질 소득으로 환산하면 8차년도에 비해 222만원 증가하였다.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에 비해 8만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활비의 증가폭은 4차년도까지 점차 커지다가 5차년도부터는 완만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차년도 조사가구 중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68.8%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46만 1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9차년도에 설문이 대폭 강화된,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 살펴보면,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22.6%였으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던 경우는 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64.5%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68.4%, 63.6%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26.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경제적 교류 액수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9차년도 패널 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3.4%로 전년도에 비해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은 1억~3억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2차년도 71.2%에서 9차년도 62.4%로 지난 8년 동안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2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7차년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8차년도 이후 다시 증가하여 9차년도에는 1,912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9.5%를 차지하였다. 부채 잔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9차년도 3,211만 3천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5절은 재수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및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0%였으며, 2명인 경우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17%의 가구만이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학생 자녀는 1명인 경우가 7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45만 2천원(자녀당 교육비는 27만 9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평균 582만 6천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당 평균 482만 2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5장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KLIPS의 경제활동상태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 기간⁵⁾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 수입이 있는 노동을 제공했으면 취업자로, 그 기간에 그런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며,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반면 KLIPS는 조사 일에 노동을 제공하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사람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한다는 차이가 있다. 조사 대상 기간만 고

5) 조사일 바로 전 주가 조사 대상 기간이다.

8 제9차(2006)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려하면 되는 횡단면 조사와 달리,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KLIPS의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의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할 때 2006년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통계청 60.9% 대비 노동패널 56.4%로 낮게 나타났지만, 1998년 이후 추이 자체는 별 차이가 없었다. 두 자료는 가구조사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각각의 조사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활동상태 분류 기준이 다소 상이하고, 조사 대상 기간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치의 차이가 크지 않고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20%가 약간 넘는 탈락률에도 불구하고 KLIPS가 비농가 부문의 경제활동을 여전히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은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본다. 9차년도에는 전체 4,300명의 임금근로자가 조사되었으며,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은 1차년도 이후 꾸준히 늘다가 8차년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9차년도에 다시 증가하여 70.3%에 달했다. 임금근로자 전체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력별로는 고졸자의 비중이 33.0%로 가장 높고, 연령별로는 30대가 2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 산업별로는 공공서비스업⁶⁾이, 직종별로는 생산직이 38.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차년도(2006년) 기준 48.7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비하여 약 4.2시간 가량 길었으나⁷⁾,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는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정규 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정규 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9차년도에 28.0%로 나타나, 비교적 초과근로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초

6) 공공서비스업에는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사업 등이 포함된다.

7) 2006년도 「매월노동통계」 연평균으로 매월총 근로시간은 191.2시간으로, 한 달을 4.3주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주당 44.5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근로시간은 9.1시간으로 예년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금근로자의 93.6%는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시로 지급받는다’와 ‘매일 지급받는다’는 응답은 각각 2.6%, 2.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 산정방식별로도 월급제가 77.0%로 가장 많았으며, 연봉계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고용형태에 대해 살펴보면, 독립도급(29.6%)이 가장 많았으며, 시간제(26.3%)와 일용대기근로(16.0%)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는 각각 4.9%와 11.9%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30만 2천원으로 정규직(194만 2천원) 근로자의 약 67.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7천8백원으로 정규직 근로자(9천7백원)의 80.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7장은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본다. 9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2,049명이었으며,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9.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9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주가 25.4%, 자영업자 56.3%, 그리고 가족종사자는 18.3%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고용주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족종사자는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9차년도(2006년)에 주당 근로일수는 5.9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3.7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4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5차년도와 7차년도 조사에서 소폭 상승한 후 다시 감소한 것이다.

다음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지난 9년간 월평균 명목소득은 1998년 132만 2천원에서 2차년도에 128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06년에는 251만 7천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KLIPS에서 조사된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높았으며 그 격차는 1차년도 21만 8천원에서 5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6차년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또다시 7차년도 이후 격차가 증가하여 9차년도에는 71만 6천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창업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우선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는 255명이었다. 창업 주체와 관련하여,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기(7.7%)보다는 본인 스스로 창업한 경우(88.1%)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하게 된 응답자에게 사업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 대상자의 65.8%가 본인 가족, 친지를 통해 사업 비용을 조달하였으며, 정부의 보조 및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제8장은 응답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인의 생활과 경제활동의 만족도를 다루고 있다. 우선 KLIPS에서 조사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가족의 수입, 여가생활, 주거환경,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 및 사회적 친분 관계 등 여섯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분석 결과, 1998년에는 보통 수준에 못 미치는 2.9점이었으나 2006년에는 3.3점까지 증가하여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세부항목별로 만족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가족의 수입이 불만족 상태였으며,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는 만족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 생활과 관련된 요인별 직무 만족도, 조직 몰입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교육·기술 적합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9차년도 요인별 직무 만족도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일의 내용(40.9%)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임금/보수(43.1%)에 대해서는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조직 몰입도의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여성(16.5점)과 남성(16.3점)의 차이는 작지만 여성이 0.2점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남성보다 좀더 몰입함을 보여준다. 직무 만족도의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17.0점)과 남성(16.9점)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LIPS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취업자들에게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의 내용이 본인의 교육수준이나 기술(기능)수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 인지를 조사하였다. 2006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기술(기능)수준의 직무 적

합도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취업자 10명 중 2명 정도(18.9%)는 하향 취업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KLIPS는 3차년도 조사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기능)의 유용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성별로 응답 경향을 살펴보면 남성(82.2%)이 여성(74.8%)보다 유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건강 생활에 관련된 문항들을 살펴보았다. KLIPS가 포함하고 있는 건강 관련 문항들은 주관적인 건강상태, 장애 및 육체적 제약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항들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9차년도를 대상으로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9.5%로 여성의 응답 비중 50.2%보다 9.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제9장은 청년층에 대한 부가조사를 소개하고,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청년층 부가조사는 9차년도 조사일 현재 15세 이상 35세 이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사교육의 양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취학 전, 초중고등학교 각각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취학 전은 유치원, 유치원 외 예체능학원 등 사교육 경험을 나누어 경험 여부를 질문하였다.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사교육 경험도 조사하였는데, 여기에는 해외연수 경험, 중학교 시절 성적과 공부시간, 진학하기 희망하는 교육수준 등의 몇 가지 추가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사교육이 일상화된 것은 전반적으로 최근 10년 정도의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진학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전공계열, 편입학 여부를 질문하며, 대학원 진학한 사람들에게는 대학원 진학의 동기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청년에 대한 조사이므로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를 구하기까지의 과정과 첫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패널조사이므로 첫 일자리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도 관련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조사의 연혁이 겨우 10년에 불과하므로 이번에 조사된 청년들 중 약 30~40% 정도는 첫 일자리가 '회고적 일자리'로 조사되었다. 회고적 일자리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질문하지 않으므로, 이를테면 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

는 셈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첫 일자리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하였다. 첫 일자리가 교육수준과 맞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3명 중 1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구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최종 학교 졸업 직후 첫 한 달간 무엇을 하였는지, 구직활동은 언제 시작해 얼마나 하였는지 및 구직 경로에 대해 질문하였다.

청년층 부가조사는 가족 생활과 성장기에 겪었던 이상 행동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가족 생활과 관련해서는 3세, 9세, 14세 때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부·모 모두에 대해 질문하였고, 친부모 여부도 질문하였다. 같은 연령일 때 어머니가 취업 중이었던지에 대한 질문도 있다. 만 14세 무렵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 자신만의 방을 가지고 있었는지, 집에 자동차나 텔레비전은 있었는지, 방이 몇 개 있는 집에 살았는지, 자신만의 책상이 있었는지, 집에 책은 몇 권이나 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또한, 그 연령대에 있을 때 각종 문화 활동에는 얼마나 참여하였는지도 질문하였다. 박물관, 미술관, 콘서트, 공연, 스포츠 경기 등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14세 때 부모와 함께 한 대화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잦은 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학교 생활, 사회적 이슈, 책이나 영화, 본인의 고민 등으로 나누어 질문하였고, 모두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빈도와 여가 활동의 빈도를 통해 얼마나 부모와 생활상의 접촉이 많았는지를 측정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누어 이상 행동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고립되어 지내는 것이 이 시기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상 행동 중 하나이므로 고립을 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해 질문하였다. 이 외에는 지각, 휴학, 술·담배, 무단결석, 징계 경험, 싸움, 이성교제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패널조사를 하는 이유는, 같은 조사 단위를 종단적으로 추적해 어떤 변화의 패턴을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제10장은 이와 같은 패널자료의 장점을 살려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와 가구의 소득을 연도간 변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8차 조사에서 취업자였던 사람은 91.3%가 9차 조사에서도 취업자로 남아 있었고, 2.3%는 실업자로 이동했으며, 6.4%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했다. 8차 조사에서 실업자였던 사람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7.0%가 9차 조사에서 취업자가 되었으며, 약 1/5 가량인 21.6%는 여전히 실업자로 남아 있었다. 비경제활동인구로는 31.4%가 이동하였다. 8차 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사람은 10.6%가 취업자가 되었고, 2.8%는 실업자가 되었으며, 86.6%는 그대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그 숫자가 실업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숫자로 보면 실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한 사람보다 비경제활동인구에 있다가 취업으로 이동한 사람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부는 경제활동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경제활동을 하려고 틈을 보고 있으나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될 만큼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 실업자 통계가 실업된 사람들의 규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하므로 다른 통계들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오래된 지적과도 일맥상 통하는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활동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사람이 적고 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는 사람의 비중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소득의 이동을 보면, 전체 5분위로 나누어볼 때 소득이 개선된 사람의 비중만 보면 1분위는 28%, 2분위는 33.3%, 3분위는 25.6%, 4분위는 21%이고, 소득이 떨어진 사람의 비중을 보면 5분위는 28.9%, 4분위는 31.7%, 3분위는 27.4%, 2분위는 18.5%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45세 이하에 비해 46세 이상인 사람들의 저소득으로부터의 탈출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성별로 보면,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에 비해 확연히 소득이 개선되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7차년도에 전체 가구소득 분위에서 1분위에 속했던 사람들은 2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1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무려 80.2%로 나타났다. 다른 분위에서도 소득이 후퇴할 가능성이 남성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제 2 장

한국노동패널 9차 조사의 개요

제 1 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07년 10월에 10차년도 실사까지 완료되었다.⁸⁾

KLIPS의 진행 상황을 조사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우선 1998년에 실시된 1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원표본 5,000가구 총인원 17,505명 중 3,775가구의 조사에 성공하여 원표본 성공률은 75.3%였으며, 추가 표본으로 1,227가구를 조사하여 총 조사된 가구는 5,000가구였다. 이 중 15세 이상 가구원 13,738명 중에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은 13,321명이었다.

8)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연구는 노동부의 고용보험 연구사업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통계청 승인번호: 33601).

〈표 2-1〉 1~9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조사대상 원가구- 소멸가구	조사 성공 가구수 ¹⁾	원표본 가구수 ²⁾	원표본 유지율 ³⁾	유효표본 유지율 ⁴⁾	분가 가구수	가구원 수 ⁵⁾	실사 기간
1차('98)	5,000	5,000	5,000	100.0	100.0	-	13,321	6~10월
2차('99)	5,000	4,509	4,379	87.6	87.6	130	12,037	7~12월
3차('00)	5,000	4,267	4,045	80.9	80.9	222	11,205	5~10월
4차('01)	5,000	4,248	3,865	77.3	77.3	383	11,051	5~10월
5차('02)	5,000	4,298	3,798	76.0	76.0	500	10,966	4~ 9월
6차('03)	4,993	4,592	3,862	77.2	77.3	730	11,541	4~ 9월
7차('04)	4,950	4,762	3,863	77.3	78.0	899	11,661	4~ 9월
8차('05)	4,935	4,850	3,823	76.5	77.5	1,027	11,580	4~ 10월
9차('06)	4,914	5,002	3,821	76.5	77.8	1,181	11,756	4~ 10월

주: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
구와 조사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
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에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
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원
가구를 제외한 가구대비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1999년에는 한국노동패널 제1차 조사에 포함된 원(原)표본가구⁹⁾에 대
하여 제2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제2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¹⁰⁾는 4,379가구로 표본유지율은 87.6%이며 원표본
가구의 가구원이 분가하여 새로 일가를 이룬 경우 이들을 추적조사한

9)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에 표본으로 추출되어 1차 조사 완료된 유효표본가구를 의미
한다.

10) '유효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표본가구를 의
미하며, 조사 대상 표본가구에 속한 면접 대상 가구원, 특히 우선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응답한 '면접 대상자'들이 설문 의 거의 모두와
핵심적 문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하여 조사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
우를 말한다. 조사 대상 가구의 가구원 중 가구주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과 조사
일 현재 경제활동 중인 가구원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하며 우선 조사 대상 전원
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만이 '유효표본가구'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30 분가가구¹¹⁾를 포함하여 제2차 조사에 포함된 총 가구수는 4,509가구였다.

2000년에는 제3차 KLIPS가 실시되었으며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제3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4,045가구로 원표본가구의 표본유지율은 80.9%이며 분가한 222가구를 포함하여 제3차 조사에 포함된 총가구수는 4,267가구였다. 이어서 제3차 조사의 총 응답가구원은 11,205명이며 이 중 기존 조사자는 10,739명이고 신규 조사자는 466명이었다.

2001년에 실시된 제4차 조사에는 총 4,248가구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원표본가구는 3,865가구로 77.3%의 표본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분가한 가구는 383가구이며 총 응답가구원은 11,051명이었다. 가구원의 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1차 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21명 중에서 4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은 11,051명이었으며 이 중 기존 조사자는 10,607명, 신규 조사자는 444명이었다. 제4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 중 원표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은 10,332명이며 신규 조사자 중 원가구원은 240명이었다.

2002년에 실시된 제5차 KLIPS에는 원표본 3,798가구 및 분가한 500가구를 합하여 총 4,298가구가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6%로 전년도에 비해 1.3%포인트가 감소하였다. 표본유지율을 개인 단위로 살펴보면 조사에 성공한 개인 10,966명 중에서 기존 조사자는 10,557명이며, 신규 가구원도 409명에 이른다.

2003년에 실시된 제6차 KLIPS에는 원표본 3,862가구 및 분가한 730가구를 합하여 총 4,592가구가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7.2%로 전년도에 비해 1.2%포인트가 증가하였다. 한편, 개인 응답자는 전체 11,541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0,983명, 신규 가구원이 558명이었다.

2004년에 실시된 제7차 KLIPS에는 원표본 3,863가구 및 분가한 899가구를 합하여 총 4,762가구가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7.3%

11) '분가가구'는 1차년도 조사시에는 '원표본가구원'이었으나 조사 이후 결혼이나 세대 분리 등으로 '원표본가구'로부터 분가하여 독립적으로 형성한 가구 또는 분가하여 들어간 다른 가구를 말한다.

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개인 응답자는 전체 11,661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1,217명, 신규 가구원이 444명이었다.

2005년에 실시된 제8차 KLIPS는 원표본 3,823가구 및 분가한 1,027가구를 합하여 총 4,850가구에 대한 조사를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6.5%로 전년도에 비해 0.8%포인트가 하락하였다. 한편, 개인 응답자는 전체 11,580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1,199명, 신규 가구원이 381명이었다.

2006년에 실시된 제9차 KLIPS는 원표본 3,821가구 및 분가한 1,181가구를 합하여 총 5,002가구에 대한 조사를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6.5%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한편, 개인 응답자는 전체 11,756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1,358명, 신규 가구원이 398명이었다.

결론적으로 9차년도의 전반적인 실사 현황은 지난해에 이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5~6년간 1%포인트 이내에서 표본이탈률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원표본가구를 포함하는 전체 표본 역시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 2 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과 설문 내용

1.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KLIPS 자료는 크게 가구용과 개인용으로 나뉘며, 개인용은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나뉘고, 취업자는 다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뉜다. <표 2-2>를 통해서 연도별로 노동패널자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 1차년도 조사자료는 가구용 자료와 개인용 자료로 나뉘고, 개인용 자료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2차년도 조사자료는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 및 이동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일자리별 유형 설문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

며, 그 밖에 가구용, 개인 공통, 그리고 연령이 15세가 되거나 혼인 등으로 조사가구에 편입되어 조사에 새로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응답자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0년에 실시된 3차년도 조사자료는 가구용 조사자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용 자료는 다시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로 나누었다. 2001년 4차년도 조사자료부터는 개인용 조사자료 중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묶어서 취업자용으로 통합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가구용 자료, 개인용 중 취업자용, 미취업자용, 신규용 자료라는 구조는 2006년 9차 조사자료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가구용 및 개인용으로 구성되어 매년 비슷한 내용을 반복 조사하는 본 조사 자료와는 달리 2000년 3차년도부터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차년도에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이동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처음으로 ‘청년층’ 부가조사를 실시한 이래, 2001년 4차년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건강과 장애, 그리고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 질문하고 만 45세 이상의 개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는 은퇴 여부, 은퇴 시기, 은퇴 이전 일자리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6차년도에는 4차년도 부가조사에서 다루었던 ‘건강과 은퇴’라는 주제에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은퇴 과정에 집중하여 만 50세(1953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 이상의 개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중고령자’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차년도에는 법정 근로시간의 점진적 단축과 이로 인한 생활시간 사용의 변화와 여가시간 사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모든 개인 응답자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8차년도에는 모든 개인 응답자에 대해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9차년도에는 15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성장 과정, 학교생활, 일자리 특성 등을 다룬 ‘청년층’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2-2〉 1~9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1차년도 (1998)	2차년도 (1999)	3차년도 (2000)	4차(2001)년도 이후 ~9차(2006)년도까지
가구용 자료			○	○	○	○
개인 용 자 료	유형 ①~⑧		×	○	○	○
	개 인 공 통	취 업 자	임금 근로	○	○	○
			비임금 근로		○	
		미취업자	○		○	
신규용 자료			×	○	○	○
부가조사 자료			×	×	○	청년층 조사(3차) 건강과 은퇴(4차) 중고령자 조사(6차) 근로시간과 여가(7차) 노동조합과 노사관계(8차) 청년층 조사(9차)

2. 설문 내용

KLIPS의 9차년도 설문지는 본 설문 부분으로 가구용 설문, 예비조사 설문, 유형 설문, 취업 및 미취업자용 설문, 신규 조사자용 설문으로 구성되며, 이 외에 ‘노동조합과 노사관계’를 주제로 한 별도의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별로 설문 내용¹²⁾을 조사자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3 참조).

우선 가구용 설문은 크게 가구원과 관련된 내용과 전체 가구 관련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8차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설문 내용상에 다음과 같은 소폭의 변동이 있었다.

가구원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지난 조사와 동일하게 가구원의 성별·연령·학력·가구주와의 관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항 이외에 가구원의 추가·분가·사망 등 가구원의 변동 사항 등이 조사되었다. 가구 단위

12) 1~9차년도 조사자료의 설문 내용은 ‘각 연도별 설문지 및 KLIPS 1~9차 User’s Guide’를 참조.

로 조사된 내용 역시 지난 조사와 같이 주거(변동)상황, 부모님과과의 경제적 교류관계, 가구의 소득·소비·자산·부채 등이 조사되었다. 가구용 설문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변화는 최근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영어 및 논술에 대한 사교육 문항을 추가한 것이다. 자산 관련 정보를 확대하고자 자동차 소유 및 구입 가격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출 시도, 성공 등의 유동성 제약과 관련된 문항을 추가하였다.

개인 단위로 조사되는 설문지는 크게 응답자에게 어떠한 유형 설문을 조사할 것인가를 판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예비 설문, 기존의 응답자에 대해 일자리 단위별로 조사하는 유형 설문, 유형 설문에서 조사되는 내용 이외에 개인 단위의 질문으로 구성된 취업자 및 미취업자용 설문, 새로 조사에 진입한 응답자에 대해 조사하는 신규 조사자용 설문, 마지막으로 만 15세 이상 35세 이하의 개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되는 ‘청년용’ 설문으로 구분된다.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해 조사되는 내용(유형 ①, 유형 ②, 유형 ⑤, 유형 ⑥)으로는 일자리의 산업 및 직업, 기업형태 및 규모, 근로계약상태, 근로시간, 임금, 일자리 단위로 가입되는 사회보험 관련 내용, 노동조합, 구직활동 등이 기존의 조사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기업형태에서 정부기관과 정부의 기관으로 선택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한 내용(유형 ③, 유형 ④, 유형 ⑦, 유형 ⑧)으로는 일자리의 종업원 수, 근로시간, 매출액과 소득, 구직활동 관련 문항, 직업 및 산업 등이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개인을 취업자 혹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조사된 설문에는 공통적으로 경제활동상태, 구직활동, 사회보험수급, 학교명, 학교 유형, 소재지, 전공 등 정규교육 관련 문항, 혼인상태,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생활 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등이 기존의 조사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관련 추가 문항, 직무 만족도, 일의 교육, 기술수준 적합도 등이 조사되었으며,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성, 비구직 사유 등 미취업 상태와 관련된 문항이 조사되었다.

〈표 2-3〉 9차년도(2006년) 설문 내용

가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의 인적사항 ▪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문항 ▪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관련 문항 ▪ 주거 관련 문항 ▪ 자녀교육 및 자녀보육 관련 문항(영어 및 논술교육 포함) ▪ 가구의 소득 ▪ 가구의 소비 ▪ 가구의 자산과 부채 ▪ 가구의 경제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 유동성 제약
예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시 일자리 응답 내용 확인과 현재 지속 여부 ▪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 종사상 지위와 현재 지속 여부
유형 ①, 유형 ② 유형 ⑤, 유형 ⑥ (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 일자리 형태 및 규모 ▪ 근로계약 관련 문항 ▪ 근로시간 관련 문항 ▪ 임금 관련 문항 ▪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일자리의 노동조합 ▪ 일자리 그만둘 당시의 상황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 구직활동 관련 문항
유형 ③, 유형 ④ 유형 ⑦, 유형 ⑧ (비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 일자리의 종업원 수와 가족종사자의 수 ▪ 일자리의 근로시간 ▪ 일자리의 매출액과 소득 ▪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 ▪ 구직활동 관련 문항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 현재 하는 사업의 가치(금액으로 환산) ▪ 사업체의 장기적 전망 ▪ 임금근로자로의 전직의사 ▪ 사업체 시작 당시 비용 혹은 투자액 ▪ 사업비용 조달방법 ▪ 창업 과정의 어려움

〈표 2-3〉의 계속

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상태(취업) ▪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 근로시간 관련 사항 ▪ 직무 만족도 ▪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수준 적합도 ▪ 구직활동 및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공통) ▪ 교육 및 직업훈련(공통) ▪ 사회보험 수급 관련 사항(공통) ▪ 정규교육 관련 사항 (공통) ▪ 혼인상태(공통) ▪ 생활 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공통)
미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상태(미취업) ▪ 구직활동,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 교육 및 직업훈련 ▪ 사회보험 수급 관련 사항 ▪ 정규교육 관련 문항 ▪ 혼인상태 ▪ 생활 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설문지의 모든 내용 포함 ▪ 만 15세 이후의 이전 일자리의 경력 ▪ 부모님의 학력 ▪ 만 14세 무렵의 아버님(계시지 않았던 경우 어머님)의 경제활동 상태 ▪ 출생지와 만 14세 무렵의 주요 성장지, 형제자매의 수 ▪ 혼인력과 출산력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평일근무 기준 세부조사)과 휴가 ▪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평일근무 기준 세부조사) 및 주 5일제 시행이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 조사 ▪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임금/비임금 공통) ▪ 여성의 생리휴가 및 출산휴가 ▪ 생산시간표를 평일/토요일/일요일로 나누어 조사(모든 응답자) ▪ 여가의 내용, 소요시간, 지출 경비, 독서, 종교활동(모든 응답자) ▪ 미취업자의 여가계획

신규 문항으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최근 변화를 반영하였다. 지난 1주간 한 일에서 발령 대기나 결혼 준비, 쉬었음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또한 현재 일자리의 자발성/비자발성 여부, 현재 일자리의 작업환경 문항이 신설되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정책에 대응하여

교육훈련 관련 항목에서도 추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7차년도 조사 때 이루어졌던 위험에 대한 태도 문항, 8차년도 조사에서 시도한 바 있는 키와 몸무게 문항 등도 그간의 변동 사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재삽입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항목은 다시 제외되었다.

신규용 설문은 당해 연도에 조사되는 유형 ①에서 유형 ⑧에 해당되는 모든 설문 내용 및 취업자·미취업자용 설문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 단위의 조사에 처음으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만 15세 이후에 가졌던 일자리의 직업, 산업, 종사상 지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학력, 만 14세 무렵 부모님의 경제활동상태, 출생지와 만 14세 무렵의 주요 성장지 및 혼인력과 출산력에 대한 조사까지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용 설문에는 개인용 설문에서 반영된 모든 변경사항이 동일한 구조로 반영되었다.

부가조사는 주요 이슈에 대해 매년 주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지는 심층 조사이다. 9차년도에는 ‘청년층 설문’이라는 제목으로 15~35세 개인 응답자에 대해 첫 일자리, 학력 사항,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사춘기 이상 행동 등에 대한 사항들을 조사하였다.

제 3 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¹³⁾

KLIPS의 실사는 민간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9차년도 조사는 2006년 4월에서 10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 타계식(face-to-face interview)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 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

13) 한국노동패널의 표본 크기, 표본 틀 및 추출방법에 대한 내용은 노동패널 인터넷 사이트(<http://www.kli.re.kr/> klips)를 참고.

문지에 한하여 유치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응답 시기는 가구용 설문지와 각각의 개인용 설문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면접원이 가구원 중 한 명과 만나서 가구용 설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가구의 표본 대상 가구원을 파악한 후에 개인용 설문지를 면접하거나, 면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를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이 설문지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응답 시기가 가구용 설문지와 달라지게 되고, 한 가구 내에서도 개인간의 응답 시기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조사 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용 설문은 주로 가구주 본인이나 가구주의 배우자를 면접하였으나 일부는 자녀나 노부모를 통한 설문 응답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은 가구용 설문지는 반드시 직접면접을 통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한편, 개인용 설문지는 직접면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서 장기 출타중인 경우 설문지를 가정 내에 유치하기도 하고, 밤 늦은 시간에만 접촉이 가능한 경우 전화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 답변을 받기 위해 한 가지 방식만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면접을 한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은 전화로 재확인 작업을 하는 등 설문지 답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KLIPS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 구성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실사 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은 직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전화면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가구원(예: 영내 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소년원·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은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이들의 인적사항 등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하였다. 넷째, 전화면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예: 취업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사업상 장기간 출타 중인 사람, 아르바이트 학생, 영내 거주 직업군인 및 경찰 등)에 대

〈표 2-4〉 각 연도별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단위: 명,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개인 응답자수	13,321	12,037	11,205	11,051	10,966	11,541	11,661	11,580	11,756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면접	64.4	77.7	83.0	83.7	83.8	86.3	88.0	85.4	89.7
유치	21.7	7.6	5.1	3.3	2.6	1.7	1.8	1.6	1.4
전화	1.5	7.4	5.3	4.6	3.9	3.8	4.1	2.8	2.9
면접+전화	2.6	4.7	3.8	4.9	6.4	5.7	3.7	6.1	2.8
유치+전화	3.7	2.5	1.4	1.2	1.0	0.9	0.4	1.4	0.7
면접+유치	2.6	0.0	0.9	1.8	1.0	1.3	1.6	1.7	2.3
면접+유치 +전화	0.0	0.0	0.2	0.5	1.3	0.4	0.5	1.0	0.3

한 개인용 설문지는 해당 가구원에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응답하였다. 또한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은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응답하였다.

〈표 2-4〉는 각 연도별 조사 방식이 어떤 비중들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면접조사의 비중이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당시 면접조사의 비중은 64.4%에 그쳤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차년도에는 최고 89.7%에 이르렀다. 반면 유치조사는 1차년도에 21.7%나 되었지만, 9차년도에는 1.4%로 그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다. 나머지 전화조사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조사 방식이 결합된 경우는 3% 미만에 그쳤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는 면접설문을 실시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순수한 전화나 대리응답보다는 기본적으로 면접설문을 실시한 이후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답변에 대해 전화나 유치를 병행하여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2-5〉는 대리응답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1차년도 조사 당시 대리응답의 비중은 19.7%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약 11%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7차년도에는 대리응답이 9.7%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데 이어, 9차년도에는 3.0%까지 하락하였음을 확인할 수

〈표 2-5〉 각 연도별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단위: 명,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개인 응답자수	13,321	12,037	11,205	11,051	10,966	11,541	11,661	11,580	11,75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본인	74.0	88.6	88.3	83.3	83.8	83.1	85.7	87.3	90.0
대리인	19.7	11.3	8.1	11.0	9.8	11.2	9.7	5.0	3.0
본인+대리인	0.4	0.0	3.6	5.5	6.4	5.8	4.7	7.7	7.0

있다. 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주요 대리응답 사유를 살펴보면 ‘본인의 응답 거부’가 가장 높은 비중인 30.7%로 전년도의 20.9%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으며, ‘바빠서’(8.7%) 혹은 ‘학업 때문에’(6.5%) 등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요컨대 조사의 반복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재 중’이나 ‘이사추적 불가’와 같은 조사 접촉상의 문제보다는 응답자의 조사에 대한 부정적 태도 때문에 조사 실패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9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면접원 방문횟수는 평균 3.1회로 지난해보다 0.2회가 감소하였다(표 2-6 참조). 그러나 지역별 방문횟수의 격차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할 때 광주, 충남은 3.9회로 가장 많은 방문횟수를 기록하였으나, 경북, 강원, 경기 등은 3회 미만의 평균 방문횟수를 보였다. 그러나 평균 방문횟수와 조사 성공률 간에 체계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성공률을 보이는 지역 중 대구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3.3회의 높은 방문횟수를 보인 반면, 강원은 평균보다 낮은 방문횟수를 보였다.

<표 2-7>과 <표 2-8>는 조사 시기별 진행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9차년도 조사는 8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조사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9차년도에는 3월 28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에서 각각 1일씩 진행되어 3월 30일에 면접원 교육을 완료하였다. 조사의 시작은 면접원 교육이 종료된 직후부터 이루어졌으며, 조사진행 상황에 대한 집계는 설문지가

〈표 2-6〉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횟수

(단위: 회)

	6차 조사	7차 조사	8차 조사	9차 조사
전체	2.9	3.0	3.3	3.1
서울	3.4	3.3	3.5	3.2
부산	3.0	3.3	3.5	3.3
대구	3.4	4.2	3.8	3.3
대전	1.8	2.2	3.3	3.2
인천	2.8	2.3	2.5	3.0
광주	2.3	3.1	3.4	3.9
울산	2.9	2.8	3.6	3.0
경기	2.9	2.5	2.9	2.6
강원	2.1	2.4	2.7	1.8
충북	2.3	1.9	3.7	3.6
충남	1.8	2.9	4.0	3.2
전북	2.6	3.1	3.5	3.1
전남	2.6	2.9	4.0	3.9
경북	3.4	4.1	3.3	2.4
경남	2.9	3.2	3.6	3.3
제주	1.8	3.7	3.5	5.5

조사업체의 각 지방사무소와 면접원에게 배포된 후 5월 초부터 이루어졌다. 조사진행 상황은 초기에는 낮은 진척도를 보이다가 조사진행이 본격화되는 5월 말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름 휴가가 본격화되는 7월에는 주춤하다가 다시 8월 이후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질적으로는 조사 수행 정도가 시기별 및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사 초기에는 지속적으로 응답에 응하거나 조사가 용이한 가구부터 진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사 후기에는 응답을 거부하거나 이사 추적 등, 보다 높은 면접 기술과 노력이 필요한 가구들을 조사한다.

〈표 2-7〉 시기별·지역별 조사진행률 추이 : 원가구

(단위: 조사진행률)

	05월 02일	05월 29일	06월 12일	06월 26일	07월 03일	07월 18일	08월 14일	09월 04일	10월 02일
서울	3.5	21.5	29.7	35.2	41.3	47.8	60.7	65.0	70.53
인천	4.1	26.5	36.4	44.9	46.9	53.1	66.3	74.5	78.98
대전	0.0	13.8	20.1	37.8	37.8	46.9	53.8	58.0	77.46
광주	0.0	10.7	17.3	31.3	36.7	42.0	50.0	59.3	74.17
대구	0.0	10.6	10.6	12.9	20.6	26.7	36.3	43.3	69.45
부산	2.2	11.8	15.7	24.2	29.3	37.7	54.8	65.0	77.68
울산	0.0	0.0	6.3	7.1	17.0	20.5	39.3	63.4	78.38
경기	0.0	15.2	20.3	29.1	30.3	37.2	55.8	70.5	78.52
강원	0.0	0.0	0.0	6.0	13.4	22.4	50.7	53.4	72.93
충남	0.0	14.8	33.8	39.1	50.7	50.7	51.1	54.8	82.35
충북	0.0	10.9	19.1	19.1	20.0	31.8	45.5	57.3	70.91
전남	0.0	6.0	6.0	11.3	23.9	32.8	43.3	59.0	83.46
전북	0.0	10.8	15.4	32.3	33.5	36.1	43.3	60.8	79.27
경남	3.0	11.9	13.9	22.8	26.5	33.8	45.4	58.0	79.54
경북	0.0	14.1	17.4	23.3	29.6	36.3	41.5	56.3	81.41
제주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전체	1.5	15.1	20.7	28.2	32.9	39.6	52.9	62.9	75.97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조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표본이탈(sample attrition)을 최소화하여 일정한 수준의 표본유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9차년도 KLIPS의 총 조사표본은 5,002가구와 그 가구 내에 포함된 가구원 11,756명이며, 이들 중에서 15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의 수는 기존 조사자가 11,358명과 신규조사자 398명을 합한 11,756명이다. <표 2-1>을 통해서 1차년도 5,000가구 대비 원표본가구, 즉 기준 1에 따른 원표본유지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차 조사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원표본가구의 87.6%인 4,378가구였으며, 3차조사

〈표 2-8〉 시기별·지역별 조사진행률 추이 : 원가구+분가가구

(단위: 조사진행률)

	05월 02일	05월 29일	06월 12일	06월 26일	07월 03일	07월 18일	08월 14일	09월 04일	10월 02일
서울	3.4	23.0	32.2	39.3	44.4	51.0	65.2	66.4	67.72
인천	4.8	29.2	37.8	46.3	50.3	56.5	68.3	75.5	79.53
대전	6.2	32.5	45.4	54.1	57.2	66.5	69.9	74.7	79.29
광주	0.0	17.9	28.2	40.5	47.8	52.7	61.7	65.0	75.49
대구	0.7	16.7	22.6	30.3	35.8	44.3	61.4	65.6	68.97
부산	2.0	14.2	24.6	33.3	41.4	51.6	65.0	71.4	75.85
울산	2.1	13.2	22.2	36.8	41.7	54.2	66.4	69.7	78.08
경기	0.8	20.3	27.6	35.6	38.1	46.3	64.6	70.1	76.51
강원	0.0	3.3	11.0	21.0	26.0	35.9	59.4	61.2	68.93
충남	0.0	29.7	51.8	58.5	61.2	63.3	69.0	78.5	81.86
충북	4.9	32.6	43.2	50.0	50.0	56.1	67.1	74.0	74.00
전남	2.4	14.2	27.2	33.7	44.1	56.1	64.3	77.3	83.43
전북	0.8	25.8	38.7	47.3	48.2	53.3	65.0	75.6	77.34
경남	7.4	20.4	29.2	42.1	47.1	59.3	65.9	71.8	77.59
경북	0.6	28.5	35.5	42.3	44.9	50.3	63.7	70.9	76.99
제주	0.0	0.0	0.0	0.0	0.0	50.0	50.0	50.0	50.00
전체	2.4	21.4	30.7	39.1	43.5	51.3	65.0	70.0	74.30

에서 성공한 가구수는 4,045가구로 원표본가구의 80.9%에 해당한다. 4차 조사에서 성공한 가구수는 3,865가구로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77.3%이며, 5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가구수는 전년도에 비해 1.3%포인트가 하락한 3,798가구로 76%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6차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1.2%포인트가 증가한 77.2%, 7차년도에는 다시 0.1%포인트가 증가한 77.3%를 기록하였다. 8차년도와 9차년도에는 76.5%로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KLIPS의 표본유지율은 외국의 주요 패널조사와 비교할 때에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9>은 각국의 가구패널조사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비교하고 있다. 원표본

〈표 2-9〉 각국의 가구패널조사와 KLIPS 원표본유지율

(단위: %, 연도, 가구)

	미국 PSID	독일 GSEP	영국 BHPS	대우 KHPS	KLIPS		
					기준 1	기준 2	가구수
2차 년도	89.0 (1969)	89.9 (1985)	87.7 (1992)	79.0 (1994)	87.6 (1999)	87.6 (1999)	4,379
3차 년도	86.3 (1970)	86.0 (1986)	81.5 (1993)	66.0 (1995)	80.9 (2000)	80.9 (2000)	4,044
4차 년도	83.7 (1971)	84.9 (1987)	79.9 (1994)	59.0 (1996)	77.3 (2001)	77.3 (2001)	3,867
5차 년도	81.2 (1972)	81.3 (1988)	76.8 (1995)	56.0 (1997)	76.0 (2002)	76.0 (2002)	3,798
6차 년도	78.8 (1973)	79.2 (1989)	77.3 (1996)	44.0 (1998)	77.2 (2003)	77.3 (2003)	3,862
7차 년도	76.6 (1974)	78.4 (1988)	76.0 (1997)	종료	77.3 (2004)	78.0 (2004)	3,863
8차 년도	74.1 (1975)	78.9 (1989)	74.1 (1998)	-	76.5 (2005)	77.5 (2005)	3,823
9차 년도	71.2 (1974)	78.4 (1990)	72.1 (1999)	-	76.5 (2006)	77.8 (2006)	3,821

주: 1) 기준 1은 5,000가구 대비 성공률임.

2) 기준 2는 소멸가구를 제외한 수치임. 6차년도 4,993가구, 7차년도는 4,950가구, 8차년도 4,935가구, 9차년도 4,914가구임.

유지율은 두 가지 기준에서 산출할 수가 있다. 첫째, 1차년도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를 기준으로 조사성공률을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멸가구를 고려하여 성공률을 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1인 단독가구에서 그 가구원의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인해 가구가 소멸한 경우, 이는 분모가 되는 원표본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000가구 기준으로 조사성공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차년도 원표본가구의 표본유지율은 미국의 PSID나 독일의 GSEP, 영국의 BHPS와 비슷한 88%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패널조사 초기에 표본이탈률이 높다는 일반적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3차년도의 표본유지율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나 독일의 패널조사에 비해 5%포인트 낮으나 영국의 BHPS의 결과와 동일하며, 4차년도의 유지율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6~8%포인트, 영국에 비해서는 3%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5차 년도의 유지율은 외국 패널과의 격차가 더욱 좁혀져서 미국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영국에 비해서는 1%포인트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가 6차년도에 표본유지율이 1%포인트 증가하고 이것이 7차년 도부터 유지됨으로써 결국 다른 선진국 패널조사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6차년도부터는 원가구원의 사망이나 해외이민 등으로 조사 대상 이 되는 가구 자체가 소멸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매년 이러한 가구의 비중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소멸가구를 제외한, 기준 2 에 근거한 원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차년도에는 전체 4,993가구 대비 77.3% 표본유지율로 5,000가구 대비 표본유지율과 동일하 지만, 7차년도에는 소멸가구가 50가구에 이르러 결과적으로 표본유지율 이 78%임을 확인할 수 있다. 8차년도에는 추가적으로 15가구가 더 소멸 하여 4,935가구 대비 수준에서는 77.5%의 표본유지율을 보였으며, 9차년 도에는 다시 21가구가 소멸하여 77.8%의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다 시 말해 기준 1에서 나타나고 있는 6차년도 이후의 표본유지율 하락은 소 멸가구로 인한 자연감소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패널조사 표본은 표본 설계 당시의 모집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료의 신 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본이탈률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임의의 특성에 따라 편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KLIPS의 표본 추출은 인 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시 지역만 을 대상으로 15개 광역시 및 도를 층화하여 다시 가구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으므로, 지역에 따라 고른 조사성공률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표 2-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KLIPS의 표본유지율을 조사 지역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지역에 따라 편차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격차가 매 년 감소하여 수렴하는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표본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 표본유지율이 상대적 으로 낮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조사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대구, 충북, 강원 지역에 대한 조사성공률 향 상 노력도 아울러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차년도 원표본 5,000가구를 기

〈표 2-10〉 지역별 원표본가구유지율

(단위: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전체	100.0	87.6	80.9	77.3	76.0	77.3	78.0	77.5	77.8
서울	100.0	84.9	74.8	68.4	69.7	73.5	72.9	72.2	71.9
부산	100.0	90.5	89.4	85.0	84.6	80.8	78.7	78.6	79.2
대구	100.0	84.1	94.3	67.5	71.5	76.9	70.2	72.6	71.7
대전	100.0	83.7	96.9	81.0	76.4	80.3	81.5	80.7	78.9
인천	100.0	85.6	93.9	74.5	76.3	75.2	79.9	78.5	81.0
광주	100.0	78.5	97.3	77.2	81.3	80.3	80.4	77.6	76.2
울산	100.0	96.5	97.3	88.8	86.2	85.3	85.1	81.4	80.7
경기	100.0	90.2	82.4	78.4	72.2	76.7	81.6	80.6	80.2
강원	100.0	87.7	97.4	71.5	66.2	62.2	66.2	72.8	73.7
충북	100.0	87.6	97.9		75.0	70.5	70.2	72.1	77.2
충남	100.0	91.6	97.1	82.8	83.1	84.7	84.7	83.0	83.1
전북	100.0	88.9	96.3		83.4	81.4	81.8	80.2	83.3
전남	100.0	92.1	97.1	87.7	87.3	82.1	84.2	82.8	83.3
경북	100.0	89.4	94.5	80.7	80.9	83.0	84.1	81.9	83.1
경남	100.0	90.1	93.4	93.0	85.5	83.0	81.7	80.7	81.2

주: 6차년도 4,993가구, 7차년도 4,950가구, 8차년도 4,935가구, 9차년도 4,914가구 기준임.

준으로 지역별 표본성공 비율을 살펴보면, 도 지역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의 도 지역은 83%가 넘는 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 서울과 더불어 가장 많은 표본을 보이고 있는 경기지역의 표본유지율도 80%가 넘어 전체 성공률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서울과 대구는 지난 연도와 마찬가지로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70%를 넘기는 데에는 성공하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조사 성공률을 기록하였다. 충북 지역은 예년에 비해 조사성공률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다. 거의 전국 최하위권을 형성하다가 9차년도에는 전국 평균에 가까운 77.2%의 조사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9차년도에도 예년 수준의 성공률 격차가 대체로 유지되고는 있지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과 도 지역 간의 성공률 격차는 소폭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성향, 면접원의 특성과 숙련도, 지역의 실사 단

위의 체계, 지역별 정치적·문화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성공률 편차가 그리 크지 않으며,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지역별 편차가 감소한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러한 지역별 성공률 격차가 조사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절 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1. 응답 가구의 특성

패널조사의 조사성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만일 조사 중간에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는 가구의 비중이 많다면 실사 과정의 어려움은 물론이요 궁극적으로는 자료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표 2-11>은 1~9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했던 가구의 수는 6,438가구이며, 이 중 원가구는 77.7%, 2차년도 이후 분가한 비원가구는 22.3%이다. 원가구 중에서는 1~9차년도 기간 동안 모두 응답한 가구가 57.7%, 7회 이상 응답한 가구가 72.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차년도에 응답한 후 아직까지 조사에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원가구는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가가구 중에서는 8차례 모

<표 2-11> 1~9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횟수

(단위: 가구수,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전 체
전 체	514 (8.0)	460 (7.1)	450 (6.9)	448 (7.0)	382 (5.9)	400 (6.2)	416 (6.5)	584 (9.1)	2,784 (43.2)	6,438 (100.0)
원가구	209 (4.2)	217 (4.3)	224 (4.5)	215 (4.3)	253 (5.1)	249 (5.0)	327 (6.5)	522 (10.4)	2,784 (55.7)	5,000 (100.0)
비 원가구	305 (21.2)	243 (16.9)	226 (15.7)	233 (16.2)	129 (9.0)	151 (10.5)	89 (6.2)	62 (4.3)		1,2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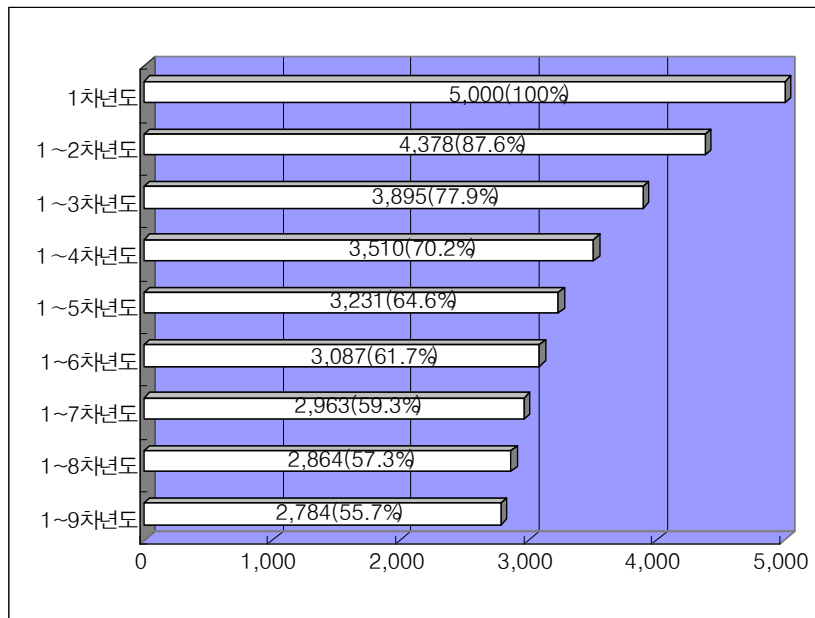
두 조사에 응답한 가구가 4.3%인 반면, 1회만 응답한 가구가 2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은 KLIPS 연도별로 계속해서 응답한 가구수와 1차년도 대비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1~9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계속 응답한 가구는 2,784가구로 1차년도 5,000 원표본가구의 55.7%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원표본 비중이 2차년도의 경우 87.6%를 보여주었으며, 3차년도 77.9%, 4차년도 70.2%, 5차년도 64.6%, 6차년도 61.7%, 7차년도 59.3%, 8차년도 57.3%를 보여주고 있어 매년 원표본 비중 자체는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2>는 9차년도 현재 원가구 대비 소득분위별 응답횟수를 보여주고 있다. 9차년도에 응답한 원가구 중 소득이 '누락(missing)'된 가구를 제외한 3,821가구를 최상위 소득(1분위)부터 최하위 소득(10분위)까지 순서대로 10개의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평균 응답횟수와 계속응답가구의 비중 모두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최상위 1분위의 평균 응

(그림 2-1) 노동패널조사 연도별 계속응답가구수

(단위: 가구, %)



〈표 2-12〉 소득분위별 평균 응답횟수 및 계속응답가구 비중(원가구 대비)
(단위: 회, %)

	평균 응답횟수 (표준편차)	계속응답가구 비중(%)
1분위(최상위)	8.41 (1.30)	73.4
2분위	8.32 (1.36)	73.1
3분위	8.47 (1.15)	75.2
4분위	8.42 (1.25)	74.9
5분위	8.40 (1.30)	74.2
6분위	8.33 (1.26)	69.2
7분위	8.41 (1.20)	71.0
8분위	8.15 (1.42)	63.7
9분위	8.44 (1.21)	74.2
10분위(최하위)	8.50 (1.21)	80.8

답횟수는 8.41인 데 비해, 최하위 10분위의 응답횟수는 8.50로 약 0.1회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계속응답가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더욱 뚜렷한데, 최상위 1분위에서는 계속응답가구가 73.4%였지만, 최하위 10분위는 80.8%로 나타났다. 또한 4분위와 5분위의 계속응답가구 비중은 각각 74.9%와 74.2%를 차지하였다.

즉 소득 분위와 응답률 간의 상관관계를 볼 때 단순히 선형적인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복합적이며, 특히 가구소득과 같이 패널자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들에서 이러한 응답률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보다 엄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응답자의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나 면접원 효과를 포함하는 조사체계 변수 등을 통제한 후에도 이러한 소득수준별 응답률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9차년도 계속응답가구에 속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13>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계속응답가구주의 80.5%가 남성으로 1차년도 조사(85.9%) 당시에 비해 그 비중이 5.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자의 비중이 1차년도에 비해 4.3%포인트

〈표 2-13〉 1~9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가구주 특성¹⁾

(단위: 명, %)

		1차년도 원표본가구(1차)	1~9차년도 계속응답가구 ²⁾
전 체		5,000 (100.0)	2,677 (100.0)
성 별	남 성	4,293 (85.9)	2,155 (80.5)
	여 성	707 (14.1)	522 (19.5)
혼인 상태	기혼(무배우 포함)	4,657 (93.1)	2,607 (97.4)
	미혼	332 (6.6)	70 (2.6)
연 령	30세 미만	380 (7.6)	3 (0.1)
	30대	1,356 (27.1)	220 (8.2)
	40대	1,397 (27.9)	724 (27.1)
	50대	984 (19.7)	724 (27.1)
	60세 이상	883 (17.7)	1,006 (37.6)
교육수준	고졸 미만	1,910 (38.6)	1,227 (45.8)
	고졸	1,819 (36.1)	892 (33.3)
	대학 재학 및 중퇴	147 (3.2)	57 (2.1)
	전문대졸	241 (4.8)	116 (4.3)
	대졸 이상	882 (17.5)	385 (14.4)
취업상태	임금근로자	2,229 (44.6)	1,050 (39.2)
	비임금	1,440 (28.8)	771 (28.8)
	미취업자	1,331 (26.6)	878 (32.0)

주: 1) 1차년도(1998년) 조사 당시 응답을 기준으로 함.

2) 9차년도: 해당 가구에 가구주가 없거나, 개인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 그리고 가구주가 원표본가구원이 아닌 187case는 제외.

트 증가한 97.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차년도 조사 당시 40대(27.9%) > 30대(27.1%) > 50대(19.7%) > 60세 이상(17.7%) > 30세 미만(7.6%) 순으로 나타난 데 반해, 1~9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경우 60대 이상이 3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40대와 50대가 27.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구주가 30세 미만인 경우는 0.1%에 그치고 있어, 조사 차수에 따른 연령 증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응답가구의 경우 비교적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 분포에서는 가구주가 고학력자일수록 지속적인 응답에 보

다 덜 참여하는 현상이 이전 연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계속응답가구 중 가구주의 학력이 고졸 미만인 경우가 1차년도(38.6%)보다 7.2%포인트 증가한 반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구주는 1차년도보다 3.1%포인트 정도 감소하였다.

취업상태별로는 1차년도 조사 당시와 비교할 때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소폭 감소한 데 비해, 비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9차년도 계속응답가구주 중 임금근로자는 39.2%, 비임금근로자는 28.8%, 미취업자는 32.0%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살펴볼 때, 2~9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한 번 이상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들은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살펴볼 때, 가구주의 특성이 여성인 경우보다는 남성인, 기혼인 경우보다는 미혼인, 중고령자보다는 저연령층인, 저학력층보다는 고학력층인,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표본이탈가구의 가구주 특성으로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조사성공가구원의 특성

KLIPS는 조사 대상 가구에 소속된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모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성공률과 관련된 가구원의 특성들 또한 전적으로 가구의 성공률에 의해 좌우된다. <표 2-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차년도에서 9차년도 조사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한 개인은 17,202명이다. 조사 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 응답한 개인은 5,884명으로 전체 원표본가구원 대비로 34.2%이며, 1회만 조사에 응답한 원표본가구원은 213명으로 1.4%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비원표본가구원은 신규 가구조사에 진입하는 연도에 따라 응답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응답횟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로 응답한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원의 수를 살펴보면 [그림 2-2]와 같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총 가구원인 17,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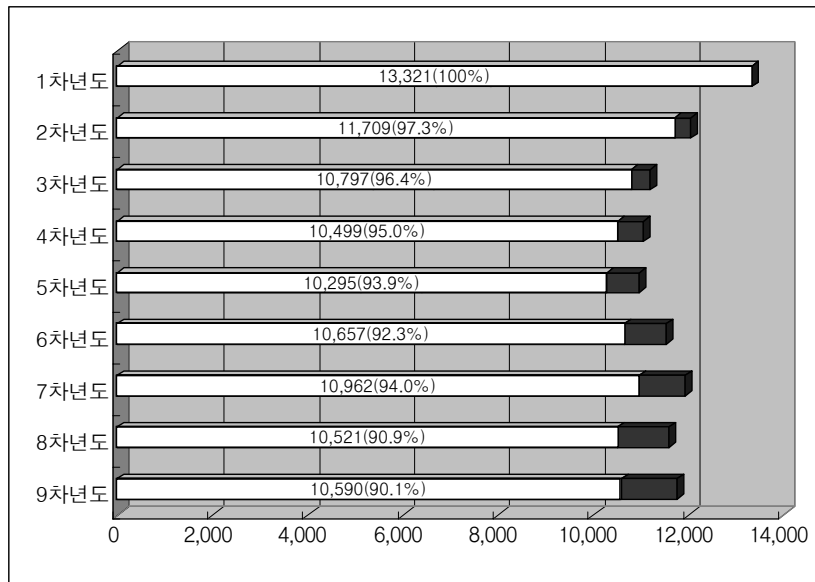
〈표 2-14〉 1~9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횟수

(단위: 가구,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전 체
전 체	1,441 (8.4)	1,357 (7.9)	1,320 (7.7)	1,376 (8.0)	1,290 (7.5)	1,389 (8.1)	1,441 (8.4)	1,709 (9.9)	5,884 (34.2)	17,207 (100.0)
원표본 가구원	213 (1.2)	238 (1.4)	303 (1.8)	407 (2.4)	490 (2.9)	758 (4.4)	975 (5.7)	1,322 (7.7)	5,884 (34.2)	10,590 (100.0)
비원표본 가구원	1,228 (18.6)	1,119 (16.9)	1,017 (15.4)	969 (14.6)	800 (12.1)	631 (9.5)	466 (7.0)	387 (5.9)	-	6,617 (100.0)

〔그림 2-2〕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

(단위: 명, %)



명 중 개인조사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총 13,321명이었다. 2차 년도에는 개인조사에 성공한 총 가구원 12,037명 중 97.3%에 해당하는 11,709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3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 구원 11,205명 중 96.4%에 해당하는 10,797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 으며, 4차년도에는 총 11,051명의 조사성공가구원 중 95%에 해당하는 10,499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5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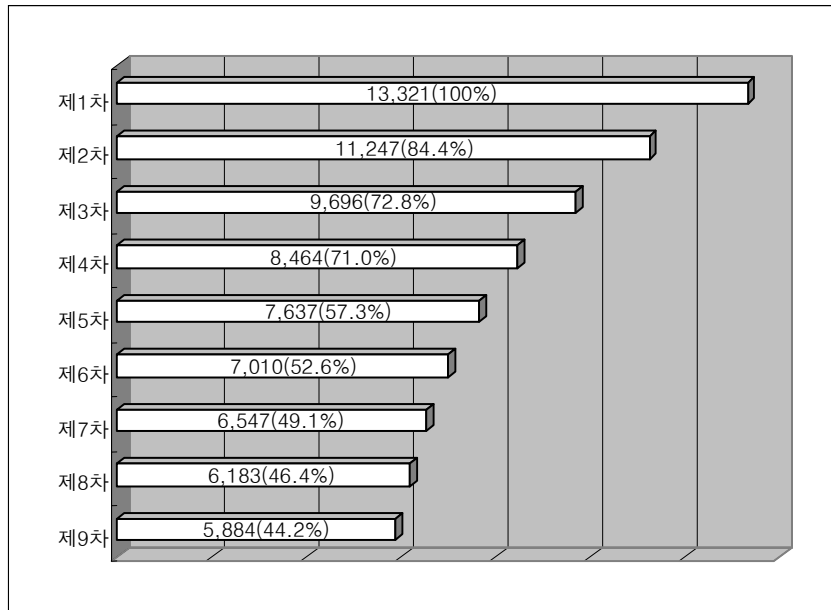
10,966명 중 93.9%에 해당하는 10,295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으며, 6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541명 중 92.3%에 해당하는 10,657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7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661명 중 94%에 해당하는 10,962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8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580명 중 90.9%에 해당하는 10,521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9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756명 중 90.1%에 해당하는 10,590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즉 1~9차년도 기간 동안 당해 연도 전체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원표본가구원의 절대적인 수치는 6차년도 이후 지금까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성공률에 비해 원표본조사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각 연도별 계속응답가구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2-3]과 같다. 1차년도 총 조사성공가구원 13,321명 중 84.4%인 11,247명이 2차년도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3차년도 조사에는 전년도보다 11.6%포인트가 감소한 9,696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4차년도에는 9.3%포인트가 감소한 8,464명의 가구원이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5차년도에는 6.2%포인트가 감소한 7,637명이 조사에 성공하였다. 6차년도에는 전년도보다 4.7%포인트가 감소한 7,010명이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7차년도에는 3.4%포인트가 감소한 6,547명에 대한 조사에 성공하였다. 8차년도에는 2.8%포인트가 감소한 6,183(46.4%)명이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마지막으로 9차년도에는 2.2%포인트가 감소한 5,884(44.2%)명에 대한 조사가 성공하였다. 이처럼 1~9차년도 기간 동안 계속응답가구원의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감소폭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이탈했던 개인이 다시 복귀할 경우 중간에 누락되었던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임금 등과 같은 주요 특성들에 대한 설문에서 복원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당해 연도에 직접조사할 경우와 비교할 때 자료의 일관성 측면에서 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계속응답가구원과 1차년도 조사성공 원표본가구원의 특성을 비교해 보

[그림 2-3] 각 연도별 계속응답가구원수 추이

(단위: 명, %)



면 <표 2-15>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계속응답가구원 중 여성의 비중이 55.6%로 1차년도 51.4%와 비교할 때 4.2%포인트 정도 높은 가운데,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자(기혼무배우 포함)의 비중이 89.4%로 1차년도보다 17.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지난 9년간의 자연증가가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60세 이상의 계속 응답자 비중이 28.4%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미만과 고졸의 비중이 1~9차년도 계속응답자의 68.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차년도에 비해 6.4%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미취업자의 비중은 11.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1~9차년도 계속응답가구원의 특성¹⁾

(단위: 명, %)

		1차년도 가구원 ¹⁾	1~9차년도 계속응답가구원
전 체		13,321 (100.0)	5,884 (100.0)
성별	남 성	6,471 (48.6)	2,615 (44.4)
	여 성	6,850 (51.4)	3,269 (55.6)
혼인 상태	미혼	3,845 (28.9)	625 (10.6)
	기혼유배우	3,854 (62.4)	4,396 (74.7)
	기혼무배우	1,164 (8.7)	863 (14.7)
연령	15~19세	1,445 (10.9)	0 (0.0)
	20~24세	1,248 (9.4)	98 (1.7)
	25~29세	1,451 (11.2)	312 (5.3)
	30~39세	3,047 (22.9)	1,029 (17.5)
	40~49세	2,616 (19.6)	1,560 (26.5)
	50~59세	1,706 (12.8)	1,235 (21.0)
	60세 이상	1,807 (13.6)	1,650 (28.4)
교육 수준 ²⁾	무 학	856 (6.4)	429 (7.5)
	고졸 미만	4,575 (34.4)	2,042 (34.7)
	고 졸	4,403 (33.1)	1,973 (33.5)
	대졸 미만	1,136 (8.5)	161 (2.7)
	전문대졸	717 (5.4)	438 (7.4)
	대졸 이상	1,633 (12.3)	841 (14.3)
취업 상태	임금근로자	4,012 (30.1)	2,147 (36.5)
	비임금근로자	2,415 (18.1)	1,353 (23.0)
	미취업자	6,894 (51.8)	2,384 (40.5)

주: 1) 1차년도(1998년) 조사 당시 응답을 기준으로 함.

2) 고졸 미만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재학·휴학·수료·중퇴자를 포함.

제 5 절 이사·분가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1. 이사가구의 특성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이동률이 19.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경제활동, 주택, 교육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인구이동은 인구사회학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동일한 가구를 추적 조사해야 하는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KLIPS 9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의 이사 여부에 대한 설문은 2006년 분가한 가구를 제외한 4,78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9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이사가구는 총 796가구로 분가가구를 제외한 전체 성공가구의 16.3%이다. KLIPS의 이사율은 7~9차년도 평균으로 16.7%에 이르고 있는데, 7차년도 이사율은 18.8%, 8차년도는 15.0%로 각각 조사된 바 있다.

<표 2-16>을 통해 현재 거주지별로 이사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2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서울(18.9%), 충북(17.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사가구의 비중이 낮은 지역으로는 광주(6.9%), 경북(8.9%)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이동이 활발하며, 최근 신행정도시로 결정된 바 있는 대전·충북 지역의 이동률도 지난 3년 동안 평균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앞의 <표 2-8>에서 살펴보았던 지역별 표본유지율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사로 인한 추적의 어려움이 일반적으로 패널조사의 조사성공률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데, 현재의 경우 경기와 대전과 같이 이사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한 이사가구를 추적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과 인력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4) 통계청 홈페이지, 『2006년 인구이동 통계결과』에서 인용한다.

〈표 2-16〉 9차년도 이사가구 분포

(단위: %)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7-9차 평균
전체	18.8	15.0	16.3	16.7
서울	21.8	15.2	18.9	18.6
부산	11.7	9.4	12.2	11.1
대구	16.9	12.5	14.9	14.8
대전	18.0	21.4	11.9	17.1
인천	22.5	13.1	13.0	16.2
광주	13.3	6.9	15.0	11.7
울산	12.7	15.9	11.2	13.3
경기	27.1	20.2	21.3	22.9
강원	15.0	10.8	14.3	13.4
충북	12.2	21.2	17.2	16.9
충남	9.0	15.6	13.6	12.7
전북	12.8	12.9	12.8	12.8
전남	14.7	12.3	12.1	13.0
경북	11.2	8.9	12.5	10.9
경남	15.1	14.9	15.4	15.1

2. 비원표본가구(분가가구)의 특성

KLIPS 9차년도 조사성공가구(5,002가구) 중에는 원표본 3,821가구 이외에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가구는 아니었지만, 2차년도 이후 분가하여 새롭게 조사에 진입한 비원표본 1,181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분가성공가구 중 2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67가구이며, 3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03가구, 4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56가구, 5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46가구, 6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63가구, 7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57가구, 8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50가구, 9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39가구로 나타났다(표 2-17 참조).

한편,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이들 분가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2-4]에서 볼 수 있듯이, 2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비원표본가구의 비중이 2.9%에 그치고 있으나, 3차년도에는 5.2%, 4차년도

44 제9차(2006)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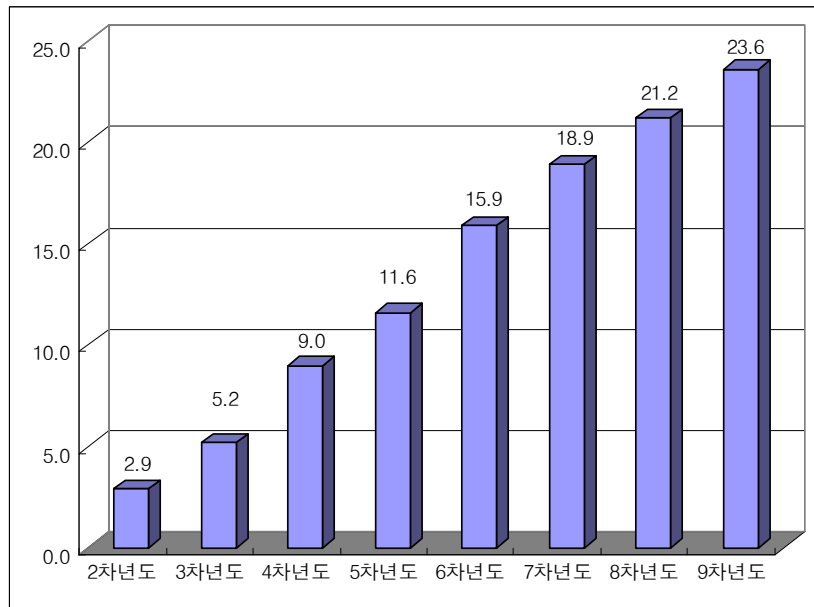
〈표 2-17〉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수

(단위: 가구수)

	전 체	응답가구	비응답가구
진입시점	1,438 (100.0)	1,181 (100.0)	257 (100.0)
2차년도	222 (15.4)	167 (14.1)	55 (21.4)
3차년도	146 (10.2)	103 (8.7)	43 (16.7)
4차년도	193 (13.4)	156 (13.2)	37 (14.4)
5차년도	181 (12.6)	146 (12.4)	35 (13.6)
6차년도	213 (14.8)	163 (13.8)	50 (19.5)
7차년도	182 (12.7)	157 (13.3)	25 (9.7)
8차년도	162 (11.3)	150 (12.7)	12 (4.7)
9차년도	139 (9.7)	139 (11.8)	

(그림 2-4) 각 연도별 전체응답가구 대비 비원표본가구의 비중

(단위: %)



9.0%, 5차년도 11.6%, 6차년도 15.9%, 7차년도 18.9%, 8차년도에는 21.2%, 9차년도에는 23.6%에 이르고 있다.

<표 2-18>의 계속

비성공 이유	전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외
사례수	1,768	58	38	34	54	30	84	93	3	7
강력거절	51.1	38.2	61.1	67.7	48.0	42.9	26.3	58.8	66.6	0.0
이사/추적불가	29.8	50.9	8.3	8.8	46.0	32.1	21.1	31.8	31.8	0.0
접촉 안됨	6.9	9.1	27.8	2.9	0.0	14.3	2.6	2.4	0.0	0.0
사망	1.3	1.8	0.0	5.9	4.0	3.6	5.3	0.0	0.0	0.0
이민	1.9	0.0	0.0	0.0	2.0	0.0	2.6	3.5	0.0	85.7
합가	0.8	0.0	0.0	0.0	0.0	7.1	1.3	1.2	0.0	0.0
기타	8.3	0.0	2.8	14.7	0.0	0.0	40.8	2.4	0.0	14.3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비성공 사유 중 159가구는 비성공 사유가 기록되지 않음.

<표 2-19> 각 비성공가구 방문횟수

(단위: 빈도, %)

	가구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이상
전 체	6,611	23.8	19.8	17.3	16.0	12.4	10.7
비성공가구	1,609	23.7	10.6	10.1	19.8	21.8	14.1
성공가구	5,002	23.9	22.8	19.7	14.8	9.3	9.6

주: 비성공 가구 중 159가구는 방문횟수가 기록되지 않음.

비성공가구의 평균 방문횟수는 1회가 23.7%로 성공가구의 1회 방문자의 비중인 23.9%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2-19 참조). 일반적으로 비성공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접촉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방문횟수가 성공가구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이는 비성공 이유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표 2-20>은 그러한 예측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강력거절의 경우 4회 방문이 24%, 5회 방문이 27.6%로 나타나는 등, 많은 방문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사하였거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36.5%가 1회 방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더 이상 추가적인 접촉이 어려운 가구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 방문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2-20〉 각 비성공사유별 평균 방문횟수

(단위: %)

비성공 이유	전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강력거절	100.0	11.9	7.2	10.8	24.0	27.6	18.5
이사/추적불가	100.0	36.5	17.8	9.2	15.2	16.3	5.0
접촉 안됨	100.0	12.6	3.6	9.9	22.5	21.6	29.7
사망	100.0	90.5	4.8	0.0	4.8	0.0	5.0
이민	100.0	71.0	12.9	6.5	3.2	6.5	0.0
합가	100.0	50.0	33.3	8.3	8.3	0.0	0.0
기타	100.0	35.3	10.5	11.3	15.0	15.0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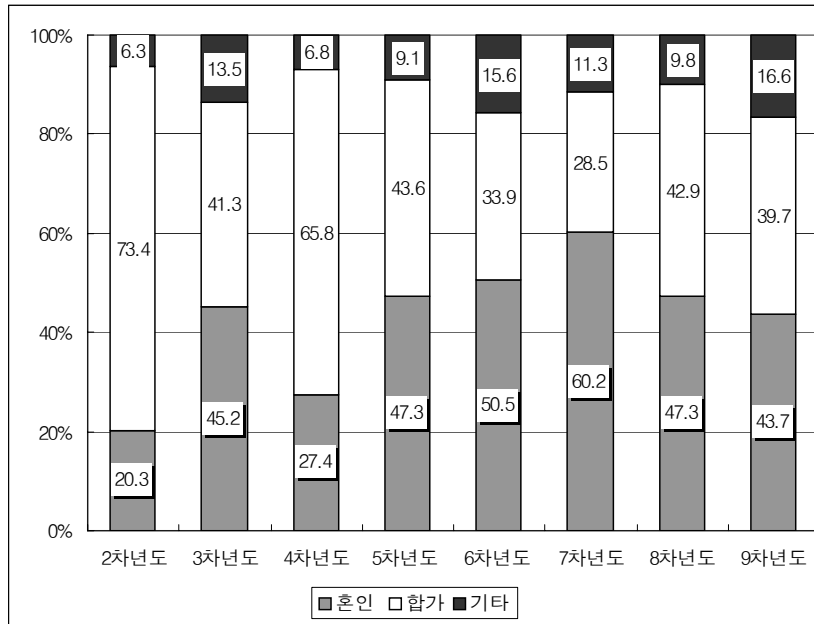
4. 신규 조사자의 특성

9차년도 KLIPS의 신규 조사자는 398명으로, 이 중 원표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은 213명, 비원표본가구원으로 신규 조사된 가구원은 185명으로 파악되었다. 신규 조사자의 진입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원표본가구원이면서 신규 조사자에 포함되는 경우인데, 이들은 1~8차 조사시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9차년도 조사시 만 15세가 되어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비표본가구원의 진입인데, 이 경우에도 기존의 비표본가구원이 새롭게 15세가 되는 등의 이유로 처음 개인조사에 응답하는 경우와, 혼인이나 합가로 인해 9차년도에 새롭게 조사 대상자로 추가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26명 중에서 혼인이 55명, 합가가 50명, 기타 19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2-5]를 통해서 2~8차년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7차년도까지는 전반적으로 혼인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합가로 인한 추가는 감소하였으나 8차년도와 9차년도에는 다시 합가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혼인으로 인한 추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차년도 신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2-21 참조), 남성이 47.7%)으로 여성(52.3%)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원표본가구원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어 남녀 모두 약 50 대 50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2-5] 비원표본가구원이면서 신규로 조사에 추가된 이유(2~9차년도)
(단위: %)



<표 2-21> 9차년도 신규 조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세)

		전 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전 체		381 (100.0)	213 (100.0)	185 (100.0)
성별	남 성	190 (47.7)	105 (49.3)	85 (45.9)
	여 성	208 (52.3)	108 (50.7)	100 (54.1)
가구주와 의 관계	가구주	2 (11.3)	2 (0.9)	43 (23.2)
	가구원	353 (88.7)	211 (99.1)	142 (76.8)
혼인 상태	미혼	239 (60.1)	212 (99.5)	27 (14.6)
	기혼	159 (39.9)	1 (0.5)	158 (85.4)
평균 연령		24.9	15.6	35.6

전체 신규 조사자 중에서 가구주는 11.3%이지만, 대부분이 비원표본가구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이 60.1%를 차지한 가운데 원표본가구원은 대부분 미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원표본가구원 대부분이 15세가 되면서 신규로 개인조사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

고 있다. 평균 연령은 24.9세로 기존 조사자들보다 낮은 편이며, 특히 원 표본가구원의 평균 연령(15.6세)과 비원표본가구원(35.6세)의 연령은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제 6 절 한국노동패널의 가중치

표본조사자료의 결과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KLIPS의 경우에도 인구센서스 및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조사구 내 가구수와 동부 및 읍면부 도시 조사구 비중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매년도 가중치를 산출하고 있다. 여기서는 가중치의 부여방법 및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 부여방법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서 계산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표본이 ‘추출될 확률(selection probability)’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것은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과 표본가구의 추출확률로 구분된다. 먼저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은 인구센서스의 10% 표본조사구에 선정되고, 다시 KLIPS의 표본조사구로 선정될 확률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표본조사구에서 최종 표본가구로 추출될 확률은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응답가구수로 총 접촉가구수를 나눈 값과 인구센서스 조사구 내의 전체 가구수로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응답가구수를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최종적인 표본의 추출확률은 조사구 추출확률과 최종 표본가구 추출확률의 곱으로 계산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응답률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지역에 따라 응답가구와 비응답가구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응답률 계산에 지역 정보나 조사구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특성들을 가중치에 반영해 주는 것이다.

한편, KLIPS 가중치 부여에는 적절한 자료가 확보될 수 없는 관계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우선 KLIPS의 1차조사가 1998년도임을 고려할 때 가구 단위의 사후층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는 통계청의 1995년 인구센서스 자료이나 이를 사용하여 사후층화를 하는 것은 시의성이 떨어진다. 개인 단위의 사후층화 자료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고용구조특별조사 자료 등이 있으나, 장래인구추계 자료는 광역시가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대한 연령·성별 인구분포 추계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나 고용구조특별조사 자료는 전수조사 자료가 아닌 표본조사 자료이므로 사후층화 의미가 퇴색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2. 2차년도 조사 이후의 가중치 부여방법

KLIPS과 같은 ‘중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는 자료의 특성상 1차조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첫 번째,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 및 가구원이 2차년도 조사 이후에 응답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조사간 표본이탈(panel attrition)이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표본가구에 결혼·동거·입양·출생 등의 이유로 새롭게 진입한 가구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표본가구원(non-sample household)으로 인해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가구구성원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2차년도 이후의 가중치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부여되었다. 1단계로 이미 산출된 1차조사의 개인가중치를 가구원들의 상이한 응답률을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가구와 가구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 여부에 관한 로짓(logit) 모형을 설정한 후 도출된 계수를 사용하여 모든 가구원들의 응답확률을 추정하게 된다. 이 응답확률의 역수를 최초의 개인가중치에 곱하여 무응답 조정 가중치(non-response adjusted weights)를 산출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새롭게 산출된 해당 조사의 개인가중치를 평균하여 적절한 조정절차를 거친 후 가구가중치를 산출한다. 이때 결혼·동거 등의 사

〈표 2-22〉 KLIPS의 가중치의 사례 수

(단위: 명)

	가구가중치			개인가중치				
	전 체	평균	s.d.	전 체	중단면		횡단면	
					평균	s.d.	평균	s.d.
1차년도	11,276,899	2255	415	30,039,370	22555	417	2255	417
2차년도	11,453,518	2541	575	30,503,448	2534	675	2534	576
3차년도	11,632,899	2727	721	30,974,696	2764	879	2764	726
4차년도	11,815,100	2781	851	31,453,224	2846	1055	2846	854
5차년도	12,000,165	2792	946	31,939,145	2912	1215	2912	964
6차년도	12,188,092	2654	1001	32,432,573	2810	1314	2810	1028
7차년도	12,378,982	2599	1063	32,933,624	2824	1447	2824	1117
8차년도	12,575,245	2593	1124	33,442,416	2888	1608	2888	1210
9차년도	12,769,777	2553	1175	33,959,067	2889	1720	2889	1277

유로 새롭게 진입한 비표본가구원의 경우에는 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가구 차원의 무응답 조정가중치가 산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출된 가중치는 스케일 조정을 거쳤다. 1998년 가구가중치는 이미 스케일 조정된 것이므로 그대로 사용했으나, 나머지 연도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가구추계자료(2000~06년)의 5년간 총 가구수 증가율을 평균한 값을 KLIPS 1차년도 가중치 합계에서부터 매년 곱해 주어 산출하였다. 개인가중치의 스케일 조정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농가 생산가능인구(1998~2002년)의 5년간 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1차년도 개인가중치 합계에 평균 증가율 값을 매년 곱해 주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이러한 계산 과정을 거친 최종적인 가중치의 결과 값은 <표 2-22>와 같다.

3. 가중치 변수 및 이용방법

가중치는 KLIPS의 분석 단위에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며, 개략적인 사용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 차원의 분석에는 가구가중치가 사용될 수 있으며, 종단면 분석이나 횡단면 분석 중 어떤 것을 하더라도 동일한 가중치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 차원의 분석에는 연구자의 분석 목적에 따라 개인 횡단면 가중치와 개인 종단면 가중치가 사용될 수 있다. 개인 횡단면 가중치는 비표본가구원의 추출확률이 표본가구원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비표본가구원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의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반면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비표본가구원을 제외하고 원표본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현재 개발된 가중치의 스케일이 조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추계조사 내지는 표본조사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대표 모집단의 총 사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다음 장부터 제시될 요약 통계들에서는 각 특성별 비중만 제시하였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제 3 장

조사가구의 특성

제3장에서는 9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 성공한 5,002가구와 그 가구의 구성원들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지난 9년간의 노동패널 조사 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에서의 인구 변동에 대해 다룬다.

이 장에서는 분석 대상이 가구일 경우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는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단,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분석에서는 해당되는 가중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제 1 절 가구 및 세대 구성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에서 가구란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가구 개념과 같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하며, 가구원에는 함

게 살고 있는 친·인척을 비롯하여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 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미혼 자녀의 경우와 미혼 자녀 중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따로 사는 미혼 자녀 중 재학이나 군복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와 미혼 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같이 살고 있으나 파출부,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 친·인척이 아닌 경우도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표 3-1>은 9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가구원수 변화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평균 가구원수는 3.1인으로 나타난다. 4차년도 이후 전반적인 가구원수의 분포는 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34.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인(20.8%), 2인(17.5%)으로 나타나고 있다.

9차년도 가구원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큰 변동은 없으나 4인가구와 5인가구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동일하게 1.0%포인트와 0.5%포인트 하락한 반면, 1인가구와 2인가구의 비중은 각각 1.9%포인트와 0.6%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및 가구추계자료¹⁵⁾에서 추정된 1인가구의 비중과 비교했을 때 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일수록 핵가족 형태의 가족구성 비중이

<표 3-1> 연도별 가구원수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전 체 (가구수)	5,000	4,509	4,267	4,248	4,298	4,592	4,762	4,850	5,002
1인	10.2	9.1	10.3	9.8	11.2	12.4	13.4	14.3	16.2
2인	13.1	12.4	13.7	13.3	15.2	16.1	16.4	16.9	17.5
3인	19.4	18.6	19.7	18.4	19.4	19.9	20.8	21.5	20.8
4인	38.1	38.6	38.0	38.6	38.4	37.1	36.4	35.4	34.4
5인	13.8	14.9	13.6	14.5	12.3	11.4	10.5	9.5	9.0
6인 이상	5.5	6.4	4.7	5.4	3.6	3.2	2.7	2.3	2.2
평균(인)	3.5	3.6	3.5	3.5	3.4	3.3	3.2	3.2	3.1

15) 인구센서스 및 가구추계에 의한 1인가구 비중은 2002년 16.1%, 2003년 16.4%, 2004년 16.7%, 2005년 17.0%, 2006년 17.2%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시가구를 조사 표본으로 삼고 있는 KLIPS와 통계청 조사와의 차이는 타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거주지별로 가구원수를 비교해 본다. 서울에 거주하는 평균 가구원수는 3.15명, 광역시 평균 가구원수가 3.10명, 도 지역이 3.07명으로 거주지별 평균 가구원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3-2>에서 보듯이 조사가구의 세대 구성¹⁶⁾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와 그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64.5%로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주와 그의 배우자 또는 가구주와 그의 형제,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의 형제로 이루어진 1세대 가구는 12.9%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1인가구가 16.2%이고, 가구주와 그의 자녀, 가구주의 손자·손녀가 같이 살거나 가구주와 그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의 비중은 6.3%였다. 그러나 가구주와 그의 직계

<표 3-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전 체 (가구수)	5,000	4,509	4,267	4,248	4,298	4,592	4,762	4,850	5,002
1인 가구	10.2	9.7	10.2	10.8	10.9	12.4	13.4	14.3	16.2
1세대 가구	10.1	10.1	10.7	10.9	11.8	12.1	12.1	12.5	12.9
2세대 가구	69.8	70.3	69.7	69.2	68.9	67.9	67.7	66.4	64.5
3세대 가구	9.8	9.8	9.3	8.8	8.3	7.6	6.8	6.6	6.3
4세대 가구	0.1	0.1	0.1	0.2	0.1	0.1	0.1	0.1	0.03

16) 가구의 세대별 구성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에 따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가구 : 가구 구성원이 1명인 가구.

1세대 가구 : 가구주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또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가 이에 속한다.

2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3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 가구주의 손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4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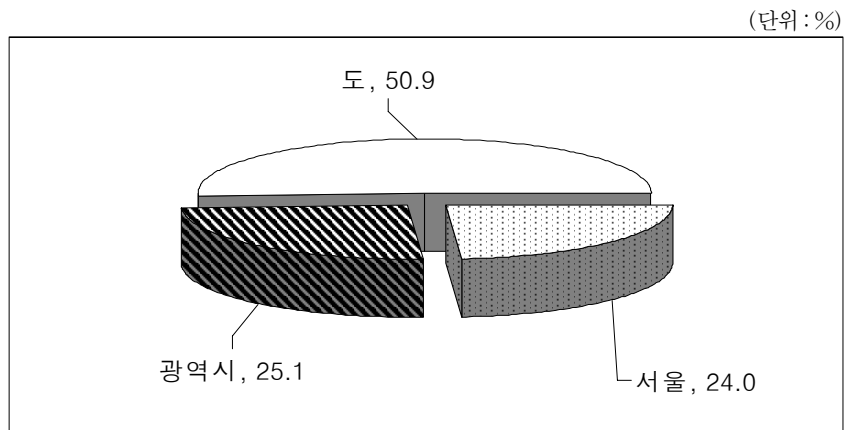
또는 방계의 친족이 4대에 걸쳐 사는 4세대 가구는 0.03%에 불과하였다.

세대 구성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세대 가구는 1차년도에 그 비중이 10.1%에 그쳤던 데 반해 9차년도 조사에서는 2.8%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3세대 가구는 1차년도 9.8%에 비해 오히려 3.5%포인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핵가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1]은 제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9차조사에서 3세대 가구라고 응답한 가구 중 50.9%가 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지역과 광역시 지역의 3세대 가구 비중을 합한 값보다도 많은 것으로 중소도시일수록 여전히 확대가족 형태를 지닌 가구가 많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표 3-3>에서는 부부만 사는 경우(부부 단독),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부모+미혼자녀), 부모님 중 한 분과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편부모+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구성을 중심으로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를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미혼 자녀 가구가 53.6%로 가장 높았으며, 이것이 전형적인 핵가족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 단독 가구가 12.7%, 편부모+미혼자녀 가구가 8.0%로 나타나고 있다. 각 연도별 핵가족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 74.4%, 2차년도 74.8%, 3차년도 75.1%, 4차년도 75.8%, 5차년도 76.0%, 6차년도와 7차년도가 모두 75.6%, 8차년도 75.0%, 9차년도 74.3%

(그림 3-1) 9차년도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



〈표 3-3〉 연도별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전 체(가구수)	5,000	4,509	4,267	4,248	4,298	4,592	4,762	4,850	5,002
핵가족가구	74.4	74.8	75.1	75.8	76.0	75.6	75.6	75.0	74.3
부부 단독	9.0	9.0	9.5	10.2	10.8	11.2	11.2	11.7	12.7
부모+미혼자녀	59.3	59.6	59.1	59.2	58.6	56.6	56.4	55.0	53.6
편부모+미혼자녀	6.1	6.2	6.5	6.4	6.6	7.7	8.0	8.2	8.0
1인가구	10.2	9.7	10.2	10.8	10.9	12.4	13.4	14.3	16.2
비핵가구	15.4	15.5	14.8	13.4	13.1	12.1	11.0	10.7	10.2

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가구추계 자료의 경우 핵가족 가구의 비중이 2000년 68.3%, 2001년 68.5%, 2002년 68.6%, 2003년 68.7%, 2004년 68.8%, 2005년 68.8%, 2006년 68.9%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KLIPS의 핵가족 비중이 5.4%포인트 정도 높은 가운데 핵가족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2 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제2절에서는 KLIPS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의 가구주는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¹⁷⁾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가구에 대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KLIPS의 경우 비혈연 관계로만 이루어진 가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17) 인구주택총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가계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 가구주의 특성

<표 3-4>에서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9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49.8세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81.5%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차년도 조사 이후 남성 가구주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40대의 비중이 2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구주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9차년도에는 3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단위:명,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전 체		4,999	4,509	4,267	4,248	4,298	4,592	4,762	4,763	4,923
성별	남성	86.1	86.1	86.1	86.0	85.4	83.5	83.2	82.0	81.5
	여성	13.9	13.9	13.9	14.1	14.6	16.5	16.8	18.0	18.5
혼인 상태	미혼	6.5	6.0	6.5	5.8	6.0	6.7	7.4	8.0	9.0
	기혼유배우	79.5	79.5	78.8	79.1	78.8	77.0	75.6	74.2	72.8
	기혼무배우	13.9	14.5	14.7	15.1	15.2	16.3	17.0	17.8	18.2
연령	30세 미만	6.3	5.0	4.3	4.6	4.3	4.9	4.6	5.1	4.3
	30대	26.9	26.8	25.4	23.1	22.9	22.8	22.8	22.4	22.5
	40대	28.4	28.2	28.7	30.0	28.9	28.7	28.1	26.9	26.1
	50대	20.1	20.0	19.9	19.2	19.3	18.8	19.6	20.3	20.9
	60세 이상	18.3	20.3	21.8	23.0	24.5	24.7	24.8	25.3	25.6
	평균(세)	46.8	47.5	48.2	48.7	49.1	49.1	49.4	49.6	49.8
교육 수준	무학	6.2	6.2	6.2	5.9	6.0	5.8	5.5	5.5	5.3
	고졸 미만	32.3	31.7	31.5	32.0	30.5	29.0	27.8	26.6	25.1
	고졸	36.0	35.5	35.2	33.7	33.6	33.5	32.6	31.8	31.2
	대재밋중퇴	2.9	2.8	2.6	2.8	2.6	2.8	3.2	3.0	3.5
	대졸 이상	22.6	23.8	24.5	25.5	20.9	28.9	30.9	33.2	34.9

2. 가구원의 특성

여기서는 개인 설문과 신규 조사자 설문에 응답한 15세 이상 가구원 11,756명(개인 조사 11,358명 + 신규 조사자 398명)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표 3-5>에서는 9차년도 조사 15세 이상 가구원의 특성을 보여준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여성의 비중이 51.4%로 남성에게 비해 약간 높았으나, 조사 차수가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9차년도 조사에서는 여성이 48.2%, 남성이 51.8%로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5> 1~9차년도 조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전 체		13,321	12,037	11,205	11,051	10,966	11,541	11,661	11,580	11,756
성별	남성	48.6	48.9	49.3	49.6	49.9	50.1	50.8	51.1	51.8
	여성	51.4	51.1	50.7	50.4	50.1	49.9	49.2	48.9	48.2
연령	15~19세	10.8	11.0	10.1	9.4	8.9	8.9	8.9	8.7	8.7
	20~24세	9.3	9.1	9.6	10.1	9.8	9.5	9.5	8.4	8.2
	25~29세	10.9	10.8	10.8	10.8	10.4	10.9	10.8	11.4	11.5
	30~39세	23.0	22.7	22.2	21.4	21.7	21.3	21.5	21.6	21.1
	40~49세	19.7	19.5	19.6	20.5	20.4	20.6	20.5	20.3	20.1
	50~59세	12.8	12.5	12.6	12.4	12.5	12.6	12.9	13.3	13.9
	60세 이상	13.5	14.5	15.1	15.5	16.2	16.1	16.0	16.3	16.5
평균(세)		39.7	39.9	39.8	40.6	40.9	41.0	41.1	41.4	41.6
가구 주 와의 관계	가구주	37.5	37.5	37.7	38.2	38.5	39.5	40.0	40.9	41.8
	배우자	29.6	29.1	28.7	28.4	28.3	27.2	26.7	25.9	25.1
	부모	4.0	3.7	3.5	3.0	2.8	2.5	2.2	2.1	1.9
	자녀	27.1	28.1	28.7	29.2	29.3	29.8	30.0	30.1	30.2
	형제	1.1	1.1	1.0	0.7	0.7	0.5	0.5	0.5	0.4
	기타	0.6	0.5	0.5	0.6	0.5	0.5	0.6	0.5	0.5
혼인 상태	미혼	28.8	29.7	30.9	30.9	31.1	31.9	32.6	33.0	33.5
	기혼유배우	62.6	61.6	60.6	60.5	60.2	59.2	58.3	57.5	56.8
	기혼무배우	8.7	8.7	8.6	8.6	8.7	8.9	9.1	9.5	9.7
교육 수준	무학	6.5	6.3	6.0	5.7	5.6	5.2	4.9	4.8	4.5
	고졸 미만	34.4	33.3	32.3	31.8	30.5	29.5	28.4	27.5	26.6
	고졸	32.8	32.7	32.4	30.8	30.5	29.8	28.9	28.3	27.4
	대재및중퇴	8.5	8.8	9.1	9.9	9.5	9.6	10.0	9.5	10.3
	전문대졸	5.5	6.0	6.5	7.2	8.0	8.6	9.2	9.7	10.0
	대졸 이상	12.3	13.0	13.7	14.6	15.8	17.4	18.7	20.3	21.2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41.6세로 나타났다. 9차년도 현재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중은 16.5%로 1차년도(13.5%)에 비해 3.0%포인트 높아진 반면 15세 이상 2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1차년도의 10.8%에서 8.7%로 낮아졌다. 개인 응답자의 주 연령대는 21.1%를 차지하고 있는 30대지만, 40대의 경우에도 20.1%로 두 연령대의 격차가 조사를 거듭할 수록 좁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원들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부모-자녀가 동거하는 직계가족의 형태가 9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조)부모의 비중은 1차년도 4.0%에서 9차년도에는 1.9%까지 감소한 데 반해, 자녀의 비중은 1차년도 27.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차년도에는 3.1%포인트가 증가한 30.2%로 나타난다.

가구원들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자가 2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비중도 4.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졸 미만의 학력 소지자도 26.6%에 이르고 있으나 1차년도(34.4%)에 비해서는 7.8%포인트나 감소한 데 반해,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31.2%로 1차년도 17.8%에 비해 13.4%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 3 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KLIPS의 조사 대상 가구에는 매년 가구원의 출생·결혼 등으로 인한 가구원의 진입 및 유학, 군입대, 사망 등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 이 중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의 인구 변동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¹⁸⁾.

18) 이 절의 분석에는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KLIPS에서 부여되는 개인 단위의 가중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9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출생

〈표 3-6〉 2~9차년도 출생자의 특성

(단위: 명, %)

	전 체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전체	1,397	148	122	191	150	217	209	172	188
남 성	726 (52.0)	75 (50.7)	66 (54.1)	87 (45.6)	82 (54.7)	111 (51.2)	104 (49.8)	93 (54.1)	108 (57.4)
여 성	671 (48.0)	73 (49.3)	56 (45.9)	104 (55.4)	68 (45.3)	106 (48.8)	105 (50.2)	79 (45.9)	80 (42.6)

주: ()안은 전체 대비 비중임.

먼저, 출생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1~9차년도 기간 동안 총 출생아는 1,397명이며, 각 연도별 출생아의 수는 2차년도 148명, 3차년도 122명, 4차년도 191명, 5차년도 150명, 6차년도 217명, 7차년도 209명, 8차년도 172명, 9차년도 18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4차년도와 7차년도의 경우에는 여아의 비중이 각각 55.4%와 50.2%로 남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 연도에는 남아의 비중이 각각 50.7%, 54.1%, 54.7%, 51.2%, 54.1%, 57.4%로 여아의 출생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1~9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사망한 표본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다. 총 사망자는 583명으로 이 중에서 2차년도 사망자가 64명, 3차년도 59명, 4차년도 92명, 5차년도 60명, 6차년도 80명, 7차년도 72명, 8차년도 80명, 9차년도 76명을 차지했다.

각 연도별 사망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2~9차년도 기간 동안 사망자 중에서 남성이 60.0%(350명), 여성이 39.1%(228명)로 남성이 20.9%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2차년도의 경우 사망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68.8%로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3차년도에는 여성의 비중이 39.0%로 증가하고 4차년도에는 여성이 55.4%로 과반수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5차년도에는 남성 사망자가 60%를 넘어서고 6차년도에는 62.5%를 차지했다가 7차년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71.4%를

하는 가구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개인가중치가 부여될 수 없으며, 사망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개인조사에서 당연히 누락되므로 역시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없다.

〈표 3-7〉 2~9차년도 사망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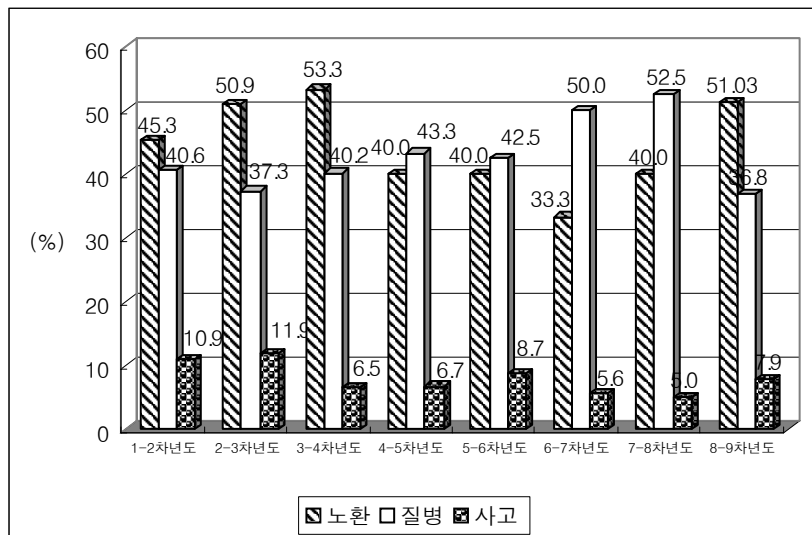
(단위:명, %)

		전체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전체		583 (100.0)	64 (100.0)	59 (100.0)	92 (100.0)	60 (100.0)	80 (100.0)	72 (100.0)	80 (100.0)	76 (100.0)
성별	남성	350 (60.0)	44 (68.8)	36 (61.0)	41 (44.6)	36 (60.0)	50 (62.5)	50 (71.4)	47 (60.3)	46 (61.3)
	여성	228 (39.1)	20 (31.3)	23 (39.0)	51 (55.4)	24 (40.0)	30 (37.5)	20 (28.6)	31 (39.7)	29 (38.7)
사망 당시 연령	50세 미만	77 (13.2)	12 (19.1)	6 (10.3)	10 (10.9)	9 (16.1)	13 (16.9)	11 (15.3)	7 (8.8)	9 (11.8)
	50~59세	66 (11.3)	6 (9.5)	6 (10.3)	12 (13.0)	6 (10.7)	8 (10.4)	12 (16.7)	11 (13.8)	5 (6.6)
	60~69세	122 (20.9)	18 (28.6)	15 (25.9)	11 (12.0)	10 (17.9)	20 (26.0)	16 (22.2)	14 (17.5)	18 (23.7)
	70~79세	149 (25.6)	14 (22.2)	17 (29.3)	26 (28.3)	21 (37.5)	14 (18.2)	20 (27.8)	19 (23.8)	18 (23.7)
	80세 이상	160 (27.4)	13 (14.1)	14 (24.1)	33 (35.9)	10 (17.9)	22 (28.6)	13 (18.1)	29 (36.3)	26 (34.2)

주: 사망 시기를 응답하지 않아 사망 당시 연령을 알 수 없는 경우가 9명 있음.

〈그림 3-2〉 사망자의 사망원인

(단위: %)



차지했으며, 8차년도에는 60.3%, 9차년도에는 61.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망 당시의 연령을 살펴보면, 1~9차년도 기간 동안의 전체 사망자 중에서 사망 당시 50세 미만이었던 가구원의 비중은 13.2%이며, 50~59세가 11.3%, 60~69세는 20.9%, 70~79세는 25.6%, 80세 이상은 27.4%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사망한 가구원의 절반 정도가 70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1~9차년도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2차년도 사망자는 65.5세, 3차년도 69.3세, 4차년도 70.7세, 5차년도 66.8세, 6차년도는 67.3세, 7차년도는 67.1세, 8차년도는 73세, 9차년도 72.4세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8~9차년도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노환이 51.3%(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질병이 36.8%(28명), 사고가 7.9%(6명), 기타가 4.0%(3명)로 각각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사망 원인이 기타인 경우를 제외한 578명에 대해 연도별로 그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2]와 같다. 분석 결과 1~4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은 노환이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을 차지하였고, 5~8차년도 기간 동안 질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이 증가하였다.

제 4 장

가계경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9차년도(2006년) 조사에서도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절 가구소득 부분에서는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 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소비를 생활비와 저축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가구의 자산을 크게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부채의 특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가구가중치를 사용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분석 내용의 특성상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를 밝히도록 하였다.

제 1 절 가구소득

KLIPS에서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그 중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은 세부 항목별로 조사되었다. 각

영역별 가구소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은 가구원 중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지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소득은 가구원 중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을 수급한 액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이전소득은 가구원 중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특별히 9차년도 조사에서는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보다 세분화하여,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 도움,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그 외 친척·친지 보조금으로 나누어 물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은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탄 돈과 같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을 의미한다. 기타소득 또한 9차년도 조사에서는 그 항목이 대폭 늘어났으므로, 연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¹⁹⁾.

한편, KLIPS에서 가구의 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9차년도의 경우 2005년 한 해) 얻은 소득으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며 연간 총액으로 대답하게 했다. 다만, 1차년도의 경우 조사일 이전 1년간 소득으로 1997년 4월부터 1998년 11월에 걸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19) 9차년도에 조사된 기타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금-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받은 보험금(손해보험을 받은 금액 포함) (2) 보험금-저축성 보험의 만기지급금 및 중도해약으로 받은 금액, (3) 보험금 - 종신보험, (4) 퇴직금, (5) 증여·상속, (6) 축의금·조의금, (7) 복권이나 경마, 오락 경기 등의 당첨 상금/상으로 받은 상금, (8) 교통사고나 폭설·폭우 등 재해로 인해 받은 보상금, (9) 기타.

1. 가구의 총소득

가구의 총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등 모든 항목별 가구소득을 합한 액수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와의 비교가능성을 생각하여 기타소득 중에서 보험금과 기타소득 항목은 제외하였다. 또한 당해 연도 분가한 가구의 소득은 온전한 지난해 1년간의 소득이 아니라 분가한 이후의 소득이기 때문에 낮게 추정된 소득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의 소득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²⁰⁾

<표 4-1>을 통해 연도별로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²¹⁾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를 거듭할수록 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차년도의 연간 총소득은 3,419만원(월평균 28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08만원 정도 늘어났으며 이를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환산²²⁾하면, 8차년도에 비해 222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차년도(1998년 소득)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5차년도에 크게 증가하였다.

<표 4-1> 연간 가구의 총소득

(단위: 가구, 만원)

	2차년도 (1998년)	3차년도 (1999년)	4차년도 (2000년)	5차년도 (2001년)	6차년도 (2002년)	7차년도 (2003년)	8차년도 (2004년)	9차년도 (2005년)
명목 소득	1,894	2,019	2,173	2,663	2,817	2,964	3,111	3,419
실질 소득	2,302	2,433	2,559	3,016	3,103	3,156	3,197	3,419

20) 성재민,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득자료 특성』, 『노동리뷰』 2006년 2월호(통권 14호) 참조.

21) 소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소득액을 0으로 처리함.

22) 실질소득 = (명목소득 / 당해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 × 100으로 산출하였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조사』의 물가지수(2005년 = 100 기준)를 사용하였다.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그림 4-1]과 <표 4-2>를 통해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에 대해 알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85.9%였으며, 그 금액도 가장 큰 것(3,21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부동산소득이 연평균 1,829만원으로 비교적 가계소득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평균 소득액이 가장 낮은 소득원천은 이전소득으로 연간 평균 32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득액 기준이 아닌 소득 유무 기준으로 보았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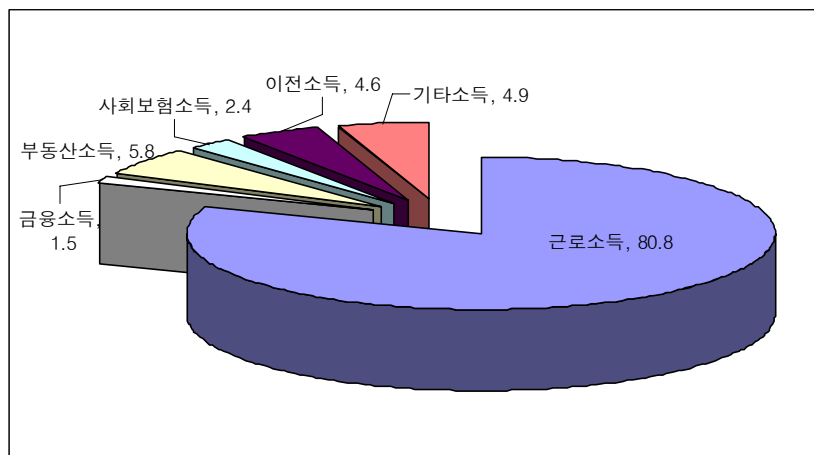
<표 4-2>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 소득

(단위: 가구, 만원)

	연평균소득	해당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
근로소득	3,214	85.9
금융소득	490	10.3
부동산소득	1,829	10.2
사회보험소득	581	14.3
이전소득	320	51.4
기타소득	1,538	11.0

(그림 4-1) 가구 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

(단위: %)



는 51.4%의 가구가 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해 매우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가구의 전체 소득액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을 살펴보면, 역시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비중(80.8%)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금융소득은 가구 총소득 중 1.5%에 지나지 않았으며, 연평균 금융소득액 또한 490만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 2 절 가구소비

이 절에서는 9차년도 조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KLIPS에서 가구소비는 작년 한 해(9차년도의 경우 2005년) 동안 소비한 생활비와 저축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생활비는 월평균 교육비, 주거비, 식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각종 공과금 등 생활하는 데 드는 돈을 의미하며, 저축이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은 제외된다. 동시에 혼수장만, 교통사고 보상금 등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된다. 4차년도 조사부터는 1~3차년도 조사와는 달리 월평균 생활비 외에 세부항목별 생활비를 묻고 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외식비,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문화비(TV·케이블TV·위성TV 시청료 또는 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용돈, 피복비,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기타 생활용품비 등이다. 이 중 용돈 항목은 5차년도 조사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고, 6차년도 조사에서는 피복비 항목, 그리고 7차년도 조사에는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항목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9차년도 조사에서는 용돈 항목을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 용돈, 그 외 가구원의 용돈으로 세분하여 질문하였다.

저축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일반저축, 개인연금, 적금, 보험, 계 등을 포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저축 역시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4차년도 조사부터 세부항목별 저축액을 묻고 있는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예·적금, 개인연금,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 계, 기타로 구성되었다. 이후 9차년도 조사부터는 종신보험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1. 생활비

<표 4-3>은 2~9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를 제시하였다. 9차년도 조사에서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에 비해 8만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의 증가폭은 4차년도까지 점차 커지다가 5차년도부터는 완만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비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50만원 미만의 소비계층은 2차년도 16.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9차년도 조사에서는 7.9%까지 감소한 반면, 월 20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계층은 2차년도에는 8.8%에 불과했으나 5차년도부터는 크게 증가하여 9차년도에는 3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²³⁾을 살펴보면(표 4-4 참조), 월평균 식비는

<표 4-3> 2~9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단위: 가구, %, 만원)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전 체	4,474	4,248	4,212	4,290	4,567	4,746	4,804	4,954
50만원 미만	16.2	15.3	13.2	11.4	10.2	9.2	7.8	7.9
50만~75만원 미만	20.9	20.7	16.3	12.3	11.3	9.7	10.6	9.5
75만~100만원 미만	14.3	10.5	12.6	9.0	9.1	8.6	7.1	7.1
100만~150만원 미만	28.6	26.0	28.3	26.3	24.1	21.7	21.5	20.3
150만~200만원 미만	11.4	14.5	15.7	19.1	18.8	19.8	18.8	18.0
200만원 이상	8.8	13.0	14.0	21.9	26.5	31.1	34.1	37.2
월평균 생활비	101	108	118	137	151	163	169	177

23) 한국노동패널 2, 4~9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평균 생활비 항목 외에도 각각의 생활비 항목별 액수를 함께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전체 생활비'는 항목별 생활비의 합계를 기준(100%)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것이다.

〈표 4-4〉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

(단위 :만원, %)

				항목별 월평균 생활비	생활비에서의 비중				
식		비		31	17.4				
외	식	비		6	3.5				
공	교	육	비	12	6.8				
사	교	육	비	16	8.7				
차	량	유	지	16	8.8				
주		거	비	17	9.3				
경	조	사	비	6	3.3				
보	건	의	료	5	3.0				
교	양	오	락	4	2.1				
내		구	채	2	1.0				
통		신	비	11	6.4				
같	이	사	는	1	0.3				
부	모	님	용	9	5.0				
자	녀	용	돈	9	5.0				
그	외	가	구	원	의	용	돈	13	7.2
피		복	비	6	3.4				
현		금	및	3	1.7				
기		부	금						
국	민	연	금	12	6.6				
의	료	보	험	료					
대	중	교	통	비	5	2.7			
생	필	품	구	입	비	5	2.7		
기			타	0	0.1				
전	체	생	활	비	179	100.0			

31만원으로, 식비의 비중이 전체 생활비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17.4%)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교육비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월평균 공교육비는 12만원, 사교육비는 16만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9차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생필품 구입비는 월평균 5만원으로 전체 생활비의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차년도부터 세분화하여 질문하고 있는 용돈의 경우에는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이 1만원, 자녀용돈이 9만원, 그 외 가구원의 용돈이 13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의 액수가 낮은 이유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은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저 축

9차년도 조사가구 중에서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68.8%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46만 1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5 참조).

2~9차년도 기간 동안 저축을 한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각각 52.6%와 51.5%로 다소 낮은 비중을 보였으나, 4차년도에는 69.8%까지 증가하였으며, 5차년도에는 73.2%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6차년도에 저축을 하는 가구의 비중은 65.6%, 7차년도에는 64.9%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비중은 8차년도 이후 다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저축액의 변화는 2차년도 24만 8천원에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9차년도에는 46만 1천원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소득이나 생활비 지출과 그 맥락을 거의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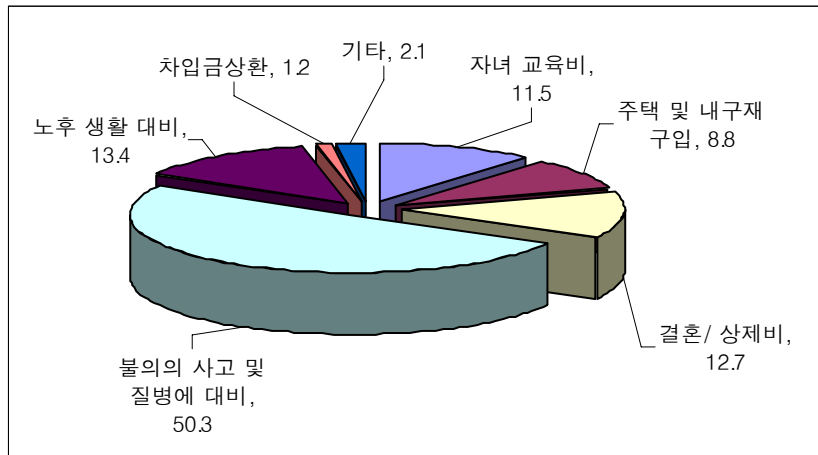
〈표 4-5〉 2~9차년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단위: 가구, %, 만원)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전 체	4,458	4,247	4,186	4,292	4,592	4,761	4,849	5,002
저축안함	47.4	48.5	30.2	26.8	34.4	35.1	31.5	31.2
저축함	52.6	51.5	69.8	73.2	65.6	64.9	68.5	68.8
월평균 저축액	24.8	28.7	34.5	41.7	40.7	42.9	44.8	46.1

다음으로 9차년도에 저축을 한 가구의 저축 목적을 살펴보면 [그림 4-2]와 같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로 전체 응답가구 중 50.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노후생활 대비'와 '결혼/상제비'가 각각 13.4%와 12.7%로 이들 세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4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내구재 구입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는 가구의 비중은 8.8%로 그리 크지 않았다.

[그림 4-2] 9차년도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이 절에서는 따로 사는 가족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KLIPS는 4차년도 이후 따로 사는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에 관해 조사해 왔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존재 여부, 부모님과의 왕래 빈도, 경제적 교류 여부,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 정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교류에 대해서만 파악이 가능할 뿐, 따로 사는 자녀들과의 교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9차년도 조사부터는 따로 살고 있는 자녀들과의 교류에 관한 설문을 추가하여, 가구의 사적 이전에 관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조사하였다. 또한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던 8차년도 이전 조사와는 달리 9차년도부터는 현금 교류액과 현물 교류액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가 있었는지는 <표 4-6>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22.6%였으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던 경우는 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

〈표 4-6〉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

(단위 : %)

	가구주의 부모님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		따로 사는 자녀	
	받은 도움	드리는 도움	받은 도움	드리는 도움	받은 도움	주는 도움
전 체	2,518		2,439		1,730	
없었음	77.4	31.7	78.8	36.4	35.5	73.5
있었음	22.6	68.4	21.2	63.6	64.5	26.5

〈표 4-7〉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

(단위 : 만원)

	가구주의 부모님		가구주의 배우자 부모님		따로 사는 자녀	
	받은 금액	드렸던 금액	받은 금액	드렸던 금액	받은 금액	주었던 금액
지난해 연간총금액	364.1	283.9	132.5	7.0	200.2	743.0
현금	322.3	276.0	90.8	23.2	305.7	687.9
현물	43.2	8.5	41.8	7.0	20.4	55.1

은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64.5%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68.4%, 63.6%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26.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경제적 교류는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 교류 액수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연간 평균 364만 1천원, 가구주의 배우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132만 5천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금액 또한 743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구주와 그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렸던 금액은 각각 283만 9천원, 7만원에 그쳤으며,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 또한 200만 2천원에 그쳐 큰 편차를 보였다. 이는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에게 이전되는 소

득이 적은 액수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형태인 데 반해,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은 결혼자금, 학자금과 같이 목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현물보다는 현금을 통한 교류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부모님과과의 경제적 교류액이 가구주의 배우자 부모님과과의 경제적 교류액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3 절 주거형태 및 비용

이 절에서는 9차년도 패널가구의 주거형태와 비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는 매년 주거와 관련, 입주형태 및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및 전·월세금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입주형태는 자가·전세·월세·기타로 구분되며,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타로 구분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660m²)을 초과하는 4층 이상의 주택을 의미한다. 또 다세대주택이란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660m²)이하의 4층 이하의 주택을, 상가주택은 1·2층은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고층의 병용주택(빌딩)을 뜻한다.

자기 집인 경우, 단독주택은 대지면적과 연건평, 주거지의 시가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인 경우 주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기재 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거면적의 평수를 기재하게 하였고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의 경우 월세금을 기재하게 한 것은 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일지라도 전세금 외에 월마다 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만약 전세금 이외에 더 내는 돈이 월 10만원 이상이라면 입주형태가 월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였다. 월세의 경우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평수와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1. 입주형태 및 주거 비용

먼저 <표 4-8>을 통해 9차년도 입주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59.6%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전세 22.8%, 월세 11.7%로 나타났다. 2~9차년도 입주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 소유자의 비중이 2차년도 56.6%에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전·월세의 비중은 2차년도 39.2%에서 4.7%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3]을 통해 거주지별 자가의 평균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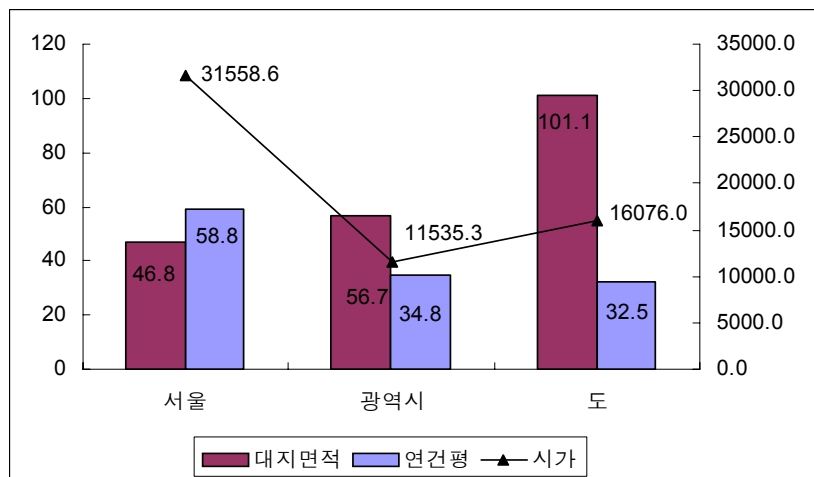
<표 4-8> 2~9차년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전 체	4,508	4,258	4,248	4,286	4,592	4,762	4,850	5,002
자 가	56.6	56.8	59.2	60.1	61.1	60.7	60.7	59.6
전 세	30.1	30.4	28.6	27.7	23.8	23.1	23.3	22.8
월 세	9.1	8.4	7.6	7.3	9.2	10.6	11.3	11.7
기 타	4.2	4.3	4.6	5.0	5.9	5.7	4.7	5.9

(그림 4-3) 9차년도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

(단위: 평,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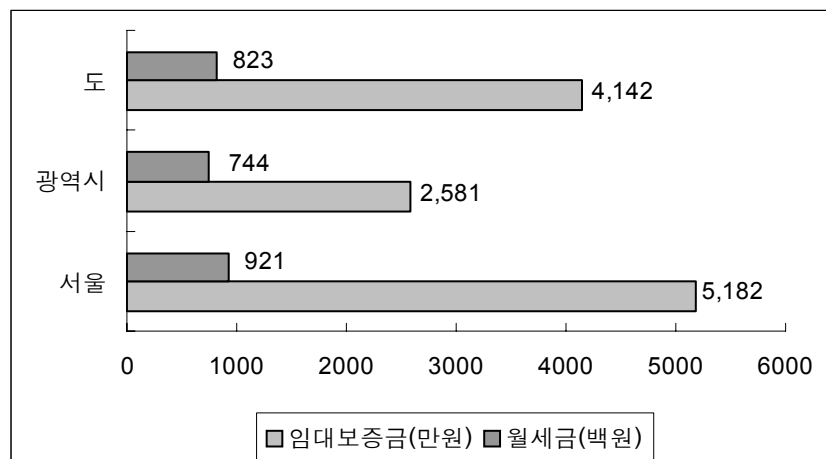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지면적의 경우, 도 지역이 서울과 광역시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건평이나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정원이나 마당, 차고 같은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실제 주거 공간은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도 지역의 대지면적은 평균 101.1평인 데 비해서 광역시는 56.7평, 서울은 46.8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계한 면적인 연건평은 서울이 가장 넓은 58.8평인 데 비해서 도 지역과 광역시는 32.5평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의 시가를 비교해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3억 1,558만원인 데 비해, 광역시는 서울의 36.6%에 해당하는 1억 1,535만원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도 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1억 6,07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림 4-4]는 거주지가 전세 혹은 월세인 경우 전·월세금을 비교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전·월세 평균 임대보증금은 5,182만원으로 광역시(2,581만원)보다는 약 2배 정도 높으며, 도 지역(4,142만원)보다도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월세금은 지역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9차년도 거주지별 전·월세 평수, 임대보증금 분포

(단위: 평, 만원)



2. 주택의 종류

<표 4-9>은 2~9차년도 주택 종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9차년도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44.3%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다음으로는 단독주택이 29.1%를, 다세대주택이 13.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8차년도부터 기타에서 분리하여 질문하고 있고 있는 상가주택은 3.5%를 차지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주택 종류별 추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파트 거주자가 2차년도 33.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차년도에 이르러 44.3%포인트 증가한 반면, 나머지 주택의 거주자는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단독주택 비중의 감소(1970년 95% → 2005년 44.5%), 아파트의 비중 증가(1970년 0.7% → 2005년 41.7%)라는 추세가 KLIPS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4-9> 2~9차년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전 체	4,506	4,250	4,248	4,286	4,592	4,762	4,850	5,002
단 독 주 택	38.4	37.8	38.0	36.5	36.6	34.1	32.0	29.1
아 파 트	33.5	34.6	35.7	37.3	39.6	41.4	43.6	44.3
연 립 주 택	7.8	8.0	7.8	7.7	7.5	8.3	8.7	8.4
다 세대 주 택	15.3	14.7	12.0	12.3	10.2	10.1	11.2	13.5
상 가 주 택	-	-	-	-	-	-	3.4	3.5
기 타	5.0	4.8	6.6	6.1	6.2	6.1	1.1	1.2

주: 상가주택은 8차년도 조사부터 추가적으로 질문한 항목으로, 이전 연도 조사에서는 기타로 분류되어 왔음.

제 4 절 자산 및 부채

이 절에서는 9차년도 응답가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 자산은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소득이나 소비 문항과는 달리 해당 연도의 현재를 기준(9차년도의 경우 2006년 현재)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부동산자산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KLIPS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대 여부)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차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좌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된다. 패널조사에서 부채는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 있는지 여부와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갯돈 등을 포함한다.

1. 부동산자산

먼저 부동산자산을 살펴보면, 9차년도 패널 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3.4%로 전년도에 비해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참조).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에 대한 시가 총액 분포를 살펴보면 9차년도의 경우 1억~3억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았지만, 이전 연도와 비교할 때 부동산 시가가 3억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가가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2차년도에 1.5%에서 3차년도에 0.2%포인트 정도 감소했으나, 9차년도에는 4.8%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부동산 시가가 3억~10억원 미만인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3차년도와 4차년

〈표 4-10〉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단위: 가구, %)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전 체	4,508	4,266	4,248	4,298	4,592	4,762	4,850	5,002
부동산 소유여부								
없 음	78.7	80.0	77.7	77.7	78.8	78.7	77.2	76.6
있 음	21.3	20.0	22.3	22.3	21.2	21.3	22.8	23.4
1천만원 미만	8.7	6.3	8.3	5.8	6.8	6.1	4.1	3.0
1천~5천만원 미만	28.9	30.2	27.7	24.1	28.5	21.6	21.8	18.8
5천~1억원 미만	24.2	24.0	26.5	26.5	19.1	19.2	18.0	18.1
1억~3억원 미만	28.4	30.7	26.5	31.0	28.8	30.2	32.5	34.3
3억~5억원 미만		5.3	4.4	5.9	7.1	9.4	10.1	11.3
5억~10억원 미만	3.6	2.3	2.8	4.0	5.9	7.1	7.6	8.7
10억원 이상	1.5	1.3	1.8	1.8	2.8	3.2	4.5	4.8
잘 모르겠음	4.6	-	2.0	0.9	1.0	3.2	1.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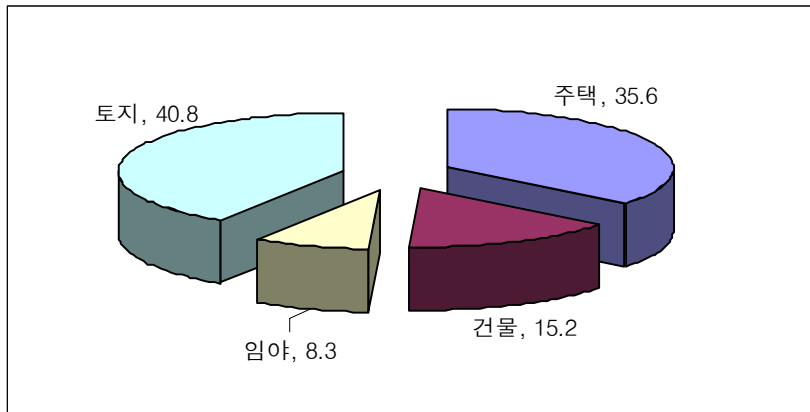
도에 각각 7.6%, 7.2%에 그치던 것이 5차년도부터 증가하여 9차년도에는 20.0%에 이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9차년도 조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에 대한 조사 문항은 가구당 최대 5개 종류까지 복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4-5]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토지로 전체 응답 중 40.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주택이 35.6%, 건물이 15.2%, 임야가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금융자산

〈표 4-11〉를 통해서 8차년도에 조사된 가구 중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2차년도 71.2%에서 9차년도 62.4%로 지난 8년 동안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2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7차년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8차년

[그림 4-5] 9차년도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



주: 이 항목은 복수설문이므로 각 %는 전체 응답개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표 4-11>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전 체	4,494	4,243	4,201	4,276	4,575	4,739	4,794	4,975
없음	28.8	35.1	34.1	33.7	36.7	39.0	34.5	37.6
250만원 미만	15.7	12.7	14.7	12.4	11.8	12.0	10.8	10.0
250만~500만원	8.6	7.4	6.1	5.6	5.3	5.7	5.6	6.2
500만~1,000만원	12.7	12.4	12.3	11.4	10.8	9.7	11.2	10.1
1,000만~5,000만원	27.8	25.2	25.4	27.7	27.2	24.7	28.0	26.2
5,000만~1억원	4.4	4.6	4.4	6.1	4.7	5.3	5.8	5.5
1억원 이상	2.0	2.7	3.1	3.0	3.6	3.6	4.2	4.4
평균(만원)	1,344	1,396	1,582	1,598	1,674	1,670	1,906	1,912

주: 금융자산 시가총액의 평균은 금융자산이 0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임.

도 이후 다시 증가하여 9차년도에는 1천912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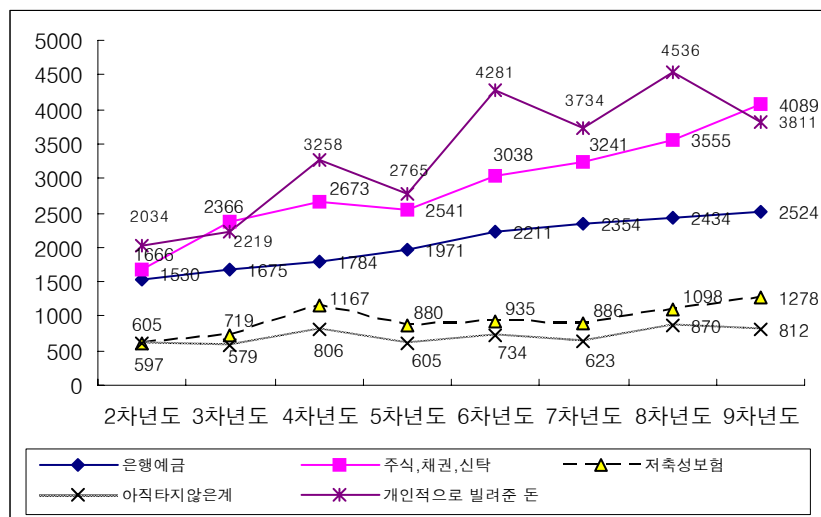
9차년도 조사에서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의 금융자산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1,000만~5,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0만원 미만인 가구가 10.0%, 250만~500만원 미만인 가구가 6.2%, 500만~1,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소득이 1,000만~5,000만원 미만인 가구를 기준으로 이보다 금융소득이 적은 가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금융소득

이 이보다 많다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7차년도에의 경우 금융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늘고, 5,000만~1억원 미만의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6차년도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소폭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그림 4-6]을 통해서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의 절대적 비중 및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주식/채권/신탁과 같은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의 비중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식/채권/신탁과 같은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은 은행예금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격차 또한 연도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에는 주식/채권/신탁이 1,666만원으로 은행예금(1,530만원)보다 136만원 정도 높지만, 3차년도와 4차년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 각각 691만원과 88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5차년도에는 조금 감소하여 570만원으로 좁혀졌으나, 6차년도에는 그 격차가 다시 827만원이 되었고 7차년도에는 887만원으로, 9차년도

[그림 4-6] 2~9차년도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

(단위: 만원)



주: 해당 자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 후 계산함.

에는 1천565만원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저축성보험금과 계의 경우에는 그 액수도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변동폭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가구의 부채

9차년도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7.4%를 차지하여 2차년도 조사(49.5%) 당시보다 약 2.1%포인트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2 참조). 반면 평균 부채 잔액은 2차년도 1,843만 8천원이던 것이 3차년도에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9차년도에는 3천211만 3천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2차년도에는 49.5%였다가 3차년도에 53.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9차년도에는 47.4%에 그쳤다.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 잔액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가 10.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억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2차년도 이후 계속 증가해 왔으며, 9차년도에는 9.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부채 잔액 분포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전 체	4,491	4,259	4,225	4,281	4,581	4,742	4,829	4,988
부채 없음	49.5	53.3	50.6	50.0	49.6	49.2	48.5	47.4
500만원 미만	7.1	5.5	5.5	5.2	4.5	3.8	4.1	4.3
500만~1천만원 미만	7.1	6.1	6.5	6.2	5.7	5.0	4.4	4.4
1천만~5천만원 미만	26.3	24.2	26.7	26.5	25.4	25.1	25.2	24.1
5천만~1억원 미만	6.3	7.0	6.7	7.0	8.4	9.5	9.0	10.2
1억원 이상	3.8	4.0	4.1	5.2	6.4	7.5	8.7	9.7
평 균(만원)	1,843.8	1,745.6	1,817.1	2,123.8	2,583.2	2,702.5	2,989.7	3,211.3

주: 가구의 부채잔액 평균은 0을 포함한 평균값임.

제5절 자녀 교육비

KLIPS는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KLIPS 조사가 처음 실시된 1차년도(1998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 여부, 이용하는 종류와 이용횟수, 이용시간, 그리고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월평균 수업료 등의 항목을 최대 5가지까지 조사하였으며, 자녀의 사교육과 탁아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정도를 ‘매우 부담된다’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 2차년도(1999년)에는 조사가 되지 않았고, 3차년도(2000년) 이후부터는 조사 대상이 재수생 이하 자녀로, 그리고 7차년도(2004년) 조사부터는 대학(원)생 자녀로까지 확대 조사하였다.

한편, 7차년도 조사에서 신설된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 항목은 학교 또는 회사 등을 통해 제공받는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가구가 부담한 정규학교 등록금과 그 외 지출비용(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기타 교육 관련 잡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각 가구의 자녀의 유무와 자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4-13>과 같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0.0%였으며, 2명인 경우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17%의 가구만이 대학생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학생 자녀는 1명인 경우가 7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4-13> 9차년도 가구내 자녀 유무 및 자녀 수

(단위: %)

고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있음	40.0	대학생 이상 자녀 유무	있음	17.0
	없음	60.1		없음	83.0
고등학생 이하 자녀수	1명	37.8	대학생 이상 자녀수	1명	79.6
	2명	54.5		2명	19.8
	3명 이상	7.8		3명 이상	0.7

〈표 4-14〉 9차년도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

(단위: 가구, %, 만원)

		고등학생 이하 자녀	대학생 이상 자녀
(사)교육비 부담 정도	매우 부담된다	27.4	57.8
	약간 부담된다	39.9	24.4
	보통이다	23.4	12.1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6.4	2.6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9	0.7
	모르겠다	1.1	2.4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 (만원)		45.2	582.6
자녀당 평균 (사)교육비 (만원)		27.9	482.2

다음으로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생 이하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45만 2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당 평균 사교육비는 27만 9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67.3%에 달해, 사교육을 이용하는 가정의 2/3 이상이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평균 582만 6천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당 평균 482만 2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경우보다도 많은 82.2%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에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구는 정규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 5 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1차년도(1998년)부터 매년 잠재적 생산가능인구인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 대해서 경제활동참가 여부, 고용형태, 구직활동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조사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06년도 제9차 KLIPS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1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 9개년간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의 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루어졌으며, 연도간 비교 분석 시에는 종단면 가중치를, 9차년도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

〈표 5-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 : 1~9차년도

(단위: 명)

		전 체	개인 자료	신규 자료
1차년도		13,321	13,321	-
2차년도		11,709	11,236	473
3차년도		10,798	10,495	303
4차년도		10,499	10,268	231
5차년도		10,295	10,072	223
6차년도		10,657	10,381	276
7차년도		10,692	10,450	242
8차년도		10,521	10,313	208
9차년도	종단 분석	10,591	10,378	213
	횡단 분석	11,741	11,344	397

주: 1~8차년도 시계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수. 9차년도 종단 분석도 동일하게 계산. 9차년도 횡단 분석 사례수는 횡단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수.

진 경우에는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에 사용된 각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는 <표 5-1>에서 제시되어 있다.

제1절에서는 개인 응답자들을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인구학적 분포를, 제3절에서는 미취업자들의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1절 경제활동상태

KLIPS의 경제활동상태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 기간²⁴⁾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 수입이 있는 노동을 제공했으면 취업자로, 그 기간에 그런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며,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반면 KLIPS는 조사일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취업자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된 미취업자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한다. 이로 인해 조사일 이전 주에는 구직활동을 했지만 조사일이 있는 주에는 일자리를 구해 조사 당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은 통계청 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만 KLIPS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만 고려하면 되는 횡단면 조사와 달리,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KLIPS의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냐 아니냐가 가장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류법을 적용하고 있다.

<표 5-2>는 조사 연도별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요약하고 있다. 먼저 취업자는 조사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취업자)”, 혹은 “가족 또는 친지를 위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24) 조사일 바로 전 주가 조사 대상 기간이다.

사람(무급가족종사자)”이 포함된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은 5차년도(2002년)를 정점으로 다소 하락했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48.3%로 나타난 취업자 비중은 5차년도에 53.9%까지 증가하였다가 하락하여 9차년도의 경우 53.2%로 조사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실업자²⁵⁾의 비중은 5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해 9차년도 현재 2.7%를 기록하였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9차년도 현재 44.0%를 기록했다.

[그림 5-1]과 [그림 5-2]는 지난 6년간의 경제활동참가율(취업인구비율)과 실업률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경활조사와 비교해 볼 때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 비율은 약 3~4%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대로 실업률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두 자료는 가구조사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각각의 조사 특성을 반영

〈표 5-2〉 경제활동상태 비교 : 1~9차년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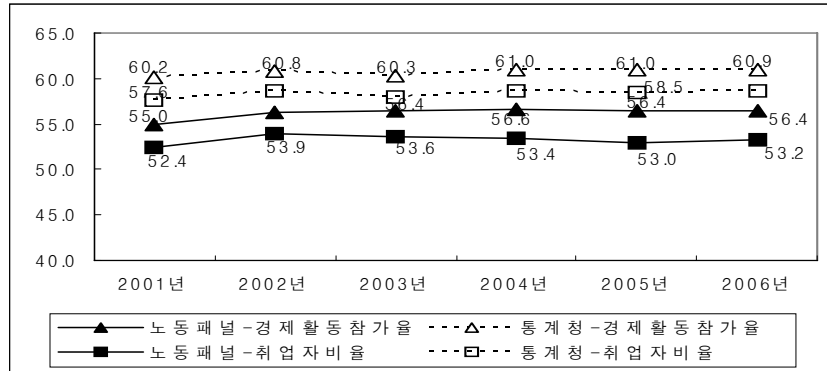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차년도	48.3 (48.3)	7.6 (9.4)	44.1 (42.3)
2차년도	51.7 (51.7)	3.8 (4.5)	44.5 (43.7)
3차년도	51.4 (51.4)	2.4 (2.9)	46.2 (45.7)
4차년도	52.4 (52.4)	2.1 (2.6)	45.5 (45.0)
5차년도	53.9 (53.9)	2.0 (2.3)	44.1 (43.8)
6차년도	53.6 (53.6)	2.5 (2.8)	44.0 (43.6)
7차년도	53.4 (53.4)	2.8 (3.2)	43.8 (43.4)
8차년도	53.0 (53.0)	2.8 (3.4)	44.2 (43.7)
9차년도	53.2 (53.2)	2.7 (3.2)	44.0 (43.6)

주: ILO 기준 실업자 정의. ()안은 OECD 기준 실업자 정의.

합쳤을 때 100.0이 안 되거나 넘는 경우는 모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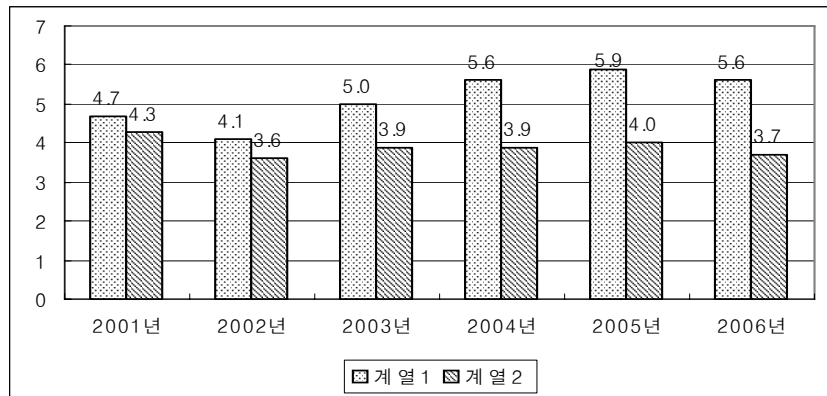
25) 현재 공식 통계에서 사용되는 실업자의 정의는 크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기준과 OECD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ILO 기준은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주 취업가능했던 자”로 규정한 데 반해, OECD 기준은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주 취업가능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 통계에서 전자를 실업자의 정의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후자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두 지표 모두 이용가능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ILO 기준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림 5-1] 최근 6년간 경제활동 참가율 및 취업인구비율 비교 : 2001~2006년
(단위:%)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농가부문임.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취업인구비율 = 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실업자를 OECD 정의에 근거해 산출했을 경우 계산되는 경제활동인구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년도를 년으로 표시하였음.

[그림 5-2] 최근 6년간 실업률 비교 : 2001~2006년
(단위:%)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총조사』, 비농가부문임. 실업률=실업자(OECD 정의)/경제활동인구×100.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년도를 년으로 표시하였음.

하여 경제활동상태 분류 기준이 다소 상이하고, 조사 대상 기간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대값의 차이는 있지만 패턴의 측면에서는 KLIPS가 비농가 부문의 경제활동을 적절하게 보

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업률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격차가 생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 2 절 취업자의 특성

<표 5-3>과 <표 5-4>는 산업별로 KLIPS와 경활조사의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KLIPS에서도 경활조사와 마찬가지로 1차 산업 비중은 감소하고, 3차 서비스 산업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 산업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9차년도(2006년) 조사에서 소폭 늘어났다.

<표 5-5>는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별 종사자의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의 증가 대 서비

<표 5-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6년

(단위: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998년	9.3	21.4	69.4
1999년	8.7	22.5	68.9
2000년	8.3	22.7	69.0
2001년	7.4	21.4	71.2
2002년	6.6	21.3	72.2
2003년	6.3	20.9	72.8
2004년	5.7	20.0	74.3
2005년	5.5	20.5	74.0
2006년	5.0	21.0	74.0

주: 1) 2002년에 개정된 제7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2) 1차 산업: 농업 및 임업, 어업을 포함.

2차 산업: 광업 및 제조업.

3차 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그리고 가사서비스업을 포함.

3) 경제활동인구 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년도를 년으로 표기.

4)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표 5-4〉 경활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6년

(단위:%)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998년	12.0	19.7	68.2
1999년	11.3	19.9	68.7
2000년	10.6	20.4	69.0
2001년	10.0	19.9	70.2
2002년	9.3	19.2	71.5
2003년	8.8	19.1	72.1
2004년	8.1	19.1	72.8
2005년	7.9	18.6	73.5
2006년	7.7	18.1	74.2

주: 제7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준함.

〈표 5-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6년

(단위:%)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98년	20.8	14.0	25.5	9.4	30.3
1999년	20.8	10.7	24.4	8.5	35.6
2000년	21.5	11.0	23.3	8.1	36.1
2001년	21.9	12.1	23.8	7.3	34.9
2002년	23.2	12.3	23.3	6.4	34.7
2003년	24.9	12.8	22.1	6.3	34.0
2004년	26.0	13.7	21.1	5.7	33.5
2005년	27.6	14.0	20.4	5.4	32.7
2006년	28.0	15.0	19.3	4.9	32.8

주: 1) 전문관리직에는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등을 포함. 서비스판매직에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농림어업직에는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등을 포함. 생산직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근로자 등을 포함.
 2) 통계청의 직업분류의 변경을 반영하여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모든 수치를 2002년에 개정된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로 조정함.
 3)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의 감소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전문관리직은 1998년 당시 20.8%를 차지하였으나, 이 비중이 회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6년에는 28.0%로 나타났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폭으로 증가했는데, 1999년 10.7%에서 2006년에는 15.0%까지 증가하였다. 반대로 서비스판매직은 1998년 25.5%에서 감소추세를 보여 2006년에는 19.3%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감소세는 농림어업직(1998년 9.4% → 2006년 4.9%)과 생산직(1999년 35.6% → 2006년 32.8%)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를 <표 5-6>에 제시된 경황조사의 직업별 종사자 비중과 비교해 살펴보면 연도별 추이 면에서 두 조사 간에 약간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전문관리직의 경우 경황조사에서는 뚜렷한 증가 추세가 관찰되지 않으나 KLIPS에서는 전문관리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서비스판매직도 경황조사에서는 뚜렷한 감소세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도 차이이다. 또한, 상대적인 구성 면에서는 KLIPS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가 생산직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경황조사의 경우 전문관리직보다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더욱 높

<표 5-6> 경황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6년

(단위: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98년	18.8	12.4	23.6	11.5	33.7
1999년	19.1	11.3	23.7	10.7	35.1
2000년	18.9	11.6	23.8	10.0	35.7
2001년	20.9	12.1	25.6	9.2	32.2
2002년	21.3	12.4	25.5	8.6	32.2
2003년	20.1	14.3	25.2	8.3	32.2
2004년	20.5	14.1	25.0	7.5	32.8
2005년	20.9	14.3	24.7	7.5	32.7
2006년	21.6	14.2	24.1	7.2	32.8

주: 직업분류의 변경에 따라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2001년부터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준함. 단, 연도별 비교를 위해 제4차 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 중에서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제시함.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9차년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취업자의 산업·직업 및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자. <표 5-7>은 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기타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남성의 경우 광공업(23.0%)에, 여성의 경우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0.0%)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농림어업에는 60대 이상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는 50대 이하의 모든 연령층에서 20% 이상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광공업은 청년층, 30대, 40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농림어업 및 건설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에, 금융 및 부동산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대졸 이상은 기타 서비스업에, 고졸 미만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농림어업에도

<표 5-7>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 9차년도

(단위: %)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금융부동산	공공행정	기타서비스	전체
성별	남성	4.9	23.0	12.8	17.0	3.3	3.7	35.2	100.0
	여성	6.2	17.6	1.5	30.0	4.3	2.8	37.7	100.0
연령	15~29세	0.1	23.3	4.1	20.0	4.3	3.1	45.0	100.0
	30~39세	0.9	21.8	7.9	21.6	5.3	3.8	38.7	100.0
	40~49세	3.0	24.1	8.4	25.3	3.6	3.0	32.6	100.0
	50~59세	7.2	18.2	12.2	22.0	2.2	3.9	34.3	100.0
	60세 이상	32.4	8.4	8.6	17.7	1.8	2.6	28.5	100.0
교육수준	고졸미만	17.3	19.3	11.3	25.5	0.7	1.9	23.9	100.0
	고졸	3.2	25.4	9.9	25.6	3.1	2.6	30.2	100.0
	대재중퇴	1.4	12.6	6.9	23.9	6.2	3.7	45.3	100.0
	전문대졸	1.0	22.4	5.5	20.9	5.3	2.8	42.1	100.0
	대졸이상	0.5	16.2	5.0	14.6	6.1	5.9	51.6	100.0

주: 기타서비스업은 3차 산업 중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표 5-8〉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별 분포 : 9차년도

(단위 : %)

		전문관리	사무직	서비스판매	농림어업	생산직	전 체
성별	남 성	27.7	11.3	13.3	4.9	42.8	100.0
	여 성	25.2	18.0	30.2	6.0	20.6	100.0
연령	15~29세	36.6	28.0	16.3	0.2	18.9	100.0
	30~39세	37.1	19.8	16.2	0.9	26.0	100.0
	40~49세	22.6	10.7	24.8	2.9	39.0	100.0
	50~59세	19.5	4.9	22.4	7.3	45.9	100.0
	60세 이상	7.4	1.2	17.8	31.7	41.9	100.0
교육 수준	고졸 미만	3.5	1.9	25.2	17.1	52.3	100.0
	고 졸	14.2	12.7	24.3	3.0	45.8	100.0
	대재 중퇴	36.6	23.5	22.3	1.4	16.4	100.0
	전문대 졸	34.4	25.9	18.1	1.0	20.5	100.0
	대졸 이상	60.1	19.4	10.0	0.6	10.0	100.0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 많이 위치해 있었다.

〈표 5-8〉은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에서는 서비스판매직에서는 여성(30.2%)이 남성(13.3%)보다 약 2배 가량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데 비해서, 생산직의 경우에는 남성(42.8%)이 여성(20.6%)보다 약 2배 가까이 더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청년층에서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36.6%, 사무직이 28.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약 40% 전후가 생산직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앞서 산업별 비중과 유사하게 농림어업직(31.7%)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전문관리직의 비중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졸 미만의 경우 전문관리직의 종사자가 겨우 3.5%에 불과하지만, 대졸 이상의 경우 이러한 비중이 60.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직의 분포는 고졸 미만의 경우 52.3%를 넘는 데 비해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10.0%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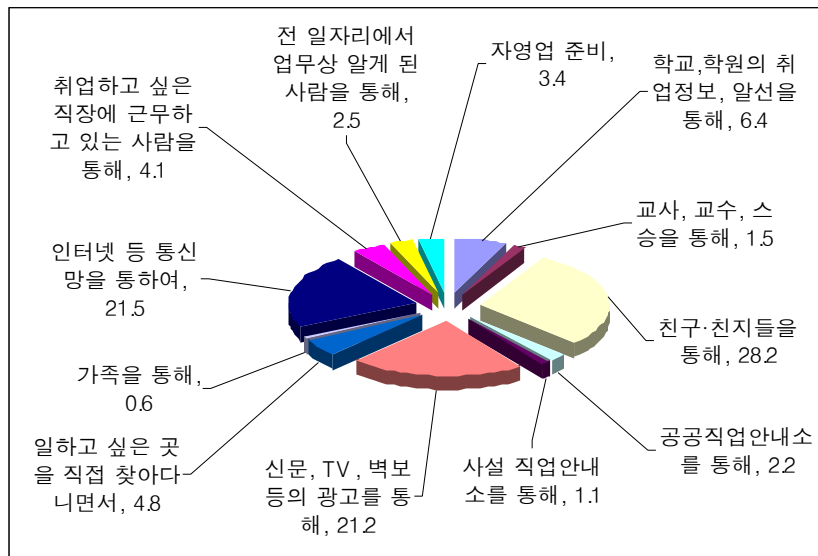
제 3 절 미취업자

1. 구직활동

구직방법은 구직자들이 직업탐색 과정에서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는지와 연관된다. 9차년도 KLIPS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최대 3개까지 사용한 구직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구직방법 중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중심으로 미취업자의 구직행위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그림 5-3]은 미취업자의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친구·친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28.2%를 차지했으며,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21.5%로 나타났다. 신문 및 TV, 벽보를 이용하는 경우도 21.5%로 나타났다. 신문 및 TV, 벽보를 이용

[그림 5-3]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 9차년도



하는 경우가 21.2%,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와 알선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6.4% 등이었다. 공공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비중은 2.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좀 더 분석적으로 미취업자들이 구직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구분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여기는 공식적 구직방법, 비공식적 구직방법, 직접 접촉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²⁶⁾. 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학교·학원·스승의 소개, 공·사설 직업안내소, 신문, TV와 같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이용 등이 해당된다. 비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가족, 친구, 친지의 소개’,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직접 접촉’이라 함은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원하는 경우이다.

<표 5-9>는 이러한 구분법에 따라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로 구직

<표 5-9> 특성별 구직방법 : 9차년도

(단위 : %)

		공식적 방법	비공식적 방법	직접 접촉	계
성 별	남성	52.5	41.5	6.0	100.0
	여성	63.1	32.8	4.1	100.0
연 령 별	15~29세	66.7	33.3	0.0	100.0
	30~39세	57.7	34.8	7.4	100.0
	40~49세	55.0	36.0	9.0	100.0
	50~59세	42.9	51.3	5.8	100.0
	60세이상	25.3	55.6	19.2	100.0
학 력 별	고졸미만	43.9	41.4	14.7	100.0
	고졸	47.9	46.7	5.3	100.0
	대재중퇴	54.1	45.9	0.0	100.0
	전문대졸	65.3	34.7	0.0	100.0
	대졸이상	83.1	15.0	1.8	100.0

26) 이 외에도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사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제도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직접 지원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KLIPS 5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의 제6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방법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는 비공식적 방법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공식적 방법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 구직방법의 비중을 살펴보면, 40대, 30대와 30대 미만 젊은 층의 경우 공식적 방법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50대 이상은 비공식적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50대 정도 되면 비공식적 방법이라는 축적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식적 방법의 의존이 줄고 비공식적 방법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전체적으로 공식적 방법의 이용 비중이 높은 반면, 고졸 미만은 직접 접촉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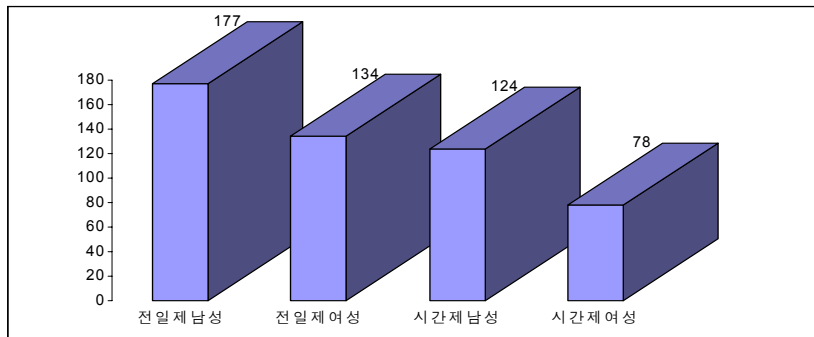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미취업자가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형태, 희망임금,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여기서는 희망임금, 구직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5-4]에서 희망하는 임금수준에 대해 성별, 근로시간 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일제를 선호하는 남성은 177만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일제를 선호하는 여성이 134만원을 희망하였다. 시간제를 선호하는 남성은 124만원을 희망하였다.

[그림 5-4] 성별·근로시간 형태별 평균 희망임금

(단위 : 만원)



〈표 5-10〉 미취업자가 구직시 주로 겪는 어려움

(단위: 점)

	전체	남성	여성
1.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2.0	2.0	2.1
2. 취업 또는 창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2.6	2.5	2.6
3.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는다	3.1	3.0	3.3
4. 경험이 부족하다	3.1	3.1	3.1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2.3	2.2	2.4
6. 근무환경이나 근로시간이 맞지 않다	2.6	2.7	2.6
7. 나이가 너무 많다	3.1	3.1	3.1
8.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2.9	2.7	3.0
9.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3.3	-	3.3

주: 최소 1점부터 최대 5점까지의 평균 점수임. 설문지상의 응답 항목 구성은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점수가 작을수록 문항에 동의한다는 뜻임.

〈표 5-10〉에서는 미취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자주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표에는 이와 관련된 9가지 항목의 내용과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 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평균 점수는 ‘(1) 매우 그렇다’부터 ‘(5)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5점 척도로부터 산출되었으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거리가 없거나 부족하다’라는 항목에 대해 평균 2.0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일자리의 수입’(2.3점)이나 ‘취업 또는 창업 정보의 부족’ 및 ‘근로시간과 근로환경의 불일치’(각 2.6점)를 각각 지적하였다. 그러나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차별 요인에 대해서는 구직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 성차별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보다는 일자리 자체의 부족, 일자리의 수입이나 근로조건, 혹은 취업 또는 창업 등의 정보 부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6 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 장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업시작 시기 및 종료 시기, 산업·직업, 기업의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유무 및 기간, 근로시간 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및 임금,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수급현황, 노동조합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되고 있다.

<표 6-1>에서는 1~9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본 조사에서 파악되고 있는

<표 6-1> 각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 1998~2006년

(단위: 명, %)

	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표본수	남성(%)	여성(%)	
1차년도	4,012	62.9	37.1	62.5
2차년도	3,967	60.3	39.7	64.3
3차년도	3,742	61.5	38.5	65.3
4차년도	3,843	60.8	39.2	67.3
5차년도	3,975	60.3	39.7	68.1
6차년도	4,210	60.0	40.0	69.3
7차년도	4,257	60.7	39.3	69.6
8차년도	4,085	61.5	38.6	68.3
9차년도	4,300	62.0	38.0	70.3

주: 1) '표본수'를 제외하고는 시계열 가중치 적용.

2) 1차년도는 'p01573' 기준으로 계산. 나머지는 개인데이터의 'jobclass'를 이용하여 계산함.

임금근로자의 수가 제시되어 있다. 9차년도에는 전체 4,300명의 임금근로자가 조사되었다. 취업자 대비로 볼 때 1차년도 62.5%에서 꾸준히 늘어 7차년도에는 취업자의 69.6%가 임금근로자였으나, 8차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여 68.3%에 그쳤다. 그러나 다시 9차년도 들어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여 70.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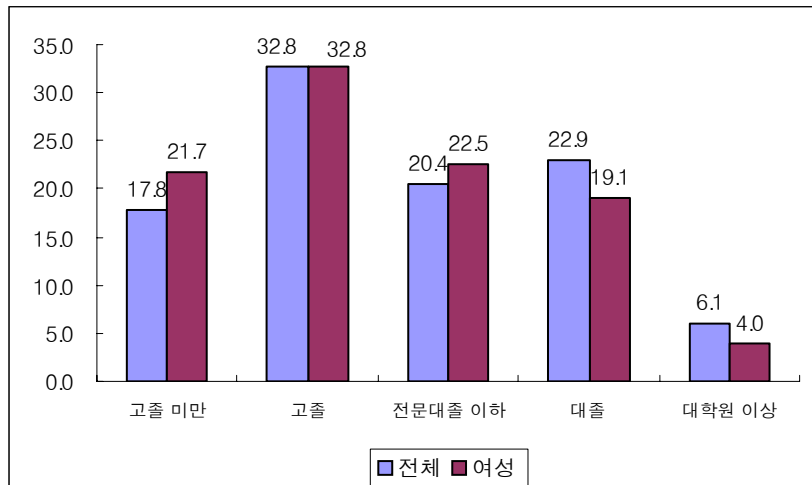
제 1 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 절에서는 9차년도(2006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 전체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절의 모든 분포는 임금근로자 표본 4,300명을 대상으로 횡단면 가중치(w9_pc)를 부여해 계산한 것이다.

먼저 학력별 분포를 보면, 고졸자의 비중이 3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대졸자로 22.9%였다. 여성의 경우는 고졸 미만과 전문대졸 이하에서 전체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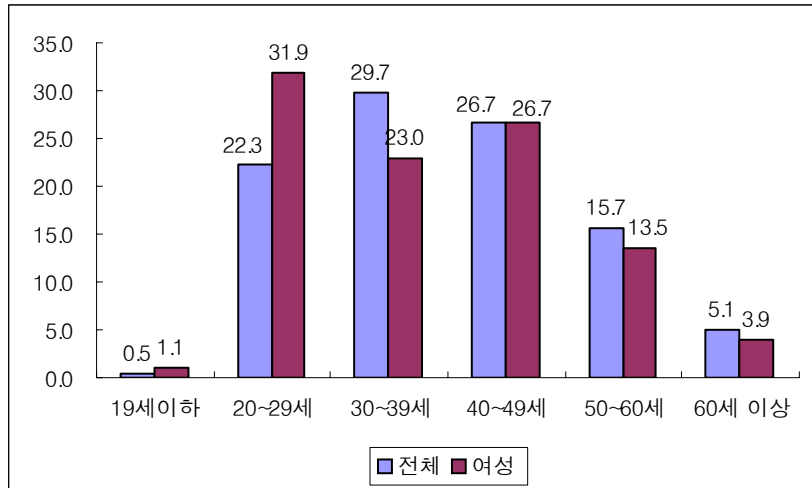
(그림 6-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 : 2006년

(단위: %)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 : 2006년

(단위 : %)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2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40대가 26.7%를 기록했다. 여성의 경우는 20대에서 특히 높은 비중(31.9%)을 나타냈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 시기가 빠름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30대 여성의 경우 출산, 육아 등 일시적으로 노동공급이 중단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 공공서비스업이 3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광공업(24.8%)이 다음을 차지했다. 반면 가사서비스업은 1.1%로 매우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²⁷⁾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41.0%가 공공서비스업 종사자였으나,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산업은 광공업이 아니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3.2%)이었다.

직종에 따라서는 생산직이 38.2%로 가장 많았고, 전문관리직(29.3%)이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여성은 전체 분포에 비해 사무직(24.0%), 서비스직(21.5%)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이 38.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27) KLIPS 표본 추출시 도시 지역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농업·어업의 비중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표 6-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 : 2006년

(단위 : %)

		전체	남성	여성
산업	농림어업	0.6	0.3	0.9
	광공업	24.8	26.7	22.0
	건설업	10.3	15.7	2.0
	전기·가스 및 수도업	0.8	1.1	0.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3	11.9	23.2
	운수통신업	6.1	8.0	3.1
	금융 및 부동산업	5.1	5.2	5.0
	공공서비스업	34.9	31.0	41.0
	가사서비스업	1.1	0.1	2.6
직종	전문관리직	29.3	30.1	28.2
	사무직	18.7	15.2	24.0
	서비스직	13.3	7.9	21.5
	농림어업직	0.5	0.3	0.8
	생산직	38.2	46.5	25.6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38.2	34.8	43.4
	10~29인	14.1	14.9	12.9
	30~99인	12.9	13.8	11.6
	100~299인	8.7	9.8	7.2
	300~499인	3.5	3.5	3.4
	500인 이상	22.6	23.3	21.6
기업 형태	민간회사	75.9	76.3	75.4
	외국인회사	1.3	1.2	1.5
	공기업	4.3	4.9	3.3
	법인단체	4.4	3.7	5.4
	정부기관	9.1	8.5	10.0
	비소속	4.1	4.3	3.8
	기타	1.0	1.2	0.6
교대제 유무 및 형태	교대제 안함	89.2	86.7	93.1
	2조 2교대제	7.3	9.1	4.5
	3조 3교대제	2.2	2.3	2.0
	기타 교대제	1.4	1.9	0.5
종사상 지위	상용직	78.1	80.6	74.3
	임시직	11.3	7.8	16.7
	일용직	10.6	11.6	8.9

주 :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500인 이상(22.6%)이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전체 분포에 비해 10인 미만(43.4%)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기업형태별로는 대다수가 민간회사(75.9%)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정부기관(9.1%)이 그 다음이었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대제가 이루어지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10.8%였으며, 남성(13.3%)이 여성(6.9%)보다 많았다. 교대제를 할 경우 대부분이 맞교대제(2조2교대제)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78.1%였고, 임시·일용직은 21.9%였다. 통계청은 2006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47.2%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KLIPS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가 차이 나는 이유는 조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퇴직금의 유무 등 부가급여를 받는지 등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구분하는 다른 기준들이 존재하지만, KLIPS의 경우는 기간 이외의 다른 것을 분류기준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상용직과 일용직 비중이, 여성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은 직장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일용직의 대부분이 존재하는 건설업의 경우 산업특성상 남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을 반영한 수치로 보인다.

제 2 절 근로시간

제9차년도 KLIPS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현재의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와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및 월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함으로써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이 종료되며,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규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당 근무시간 및 월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하게 된다. 또한, 초과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방식,

월평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1. 평균 근로시간

우선 평균 근로시간의 연도별 추이부터 살펴보자. 여기서 평균 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근로자는 주당 정규근로시간과 주당 초과근로시간을 합쳐서 계산하였다.

<표 6-3>을 보면 1998년 임금근로자들은 52.3시간을 근무하였으나, 9차년도인 2006년에는 48.7시간만을 근무하고 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2차년도를 제외하면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비하여 수준으로는 약 4.2시간 가량 길었으나²⁸⁾,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매월노동통계조사가 5인 이상 상용직의 근로시간만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3>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998~2006년

(단위: 시간, %)

조사시점	평균근로시간	전년대비 증가율
1차년도	52.3	-
2차년도	52.7	0.8
3차년도	52.2	-0.9
4차년도	51.0	-2.3
5차년도	50.9	-0.4
6차년도	50.7	-0.4
7차년도	49.9	-1.6
8차년도	49.3	-1.2
9차년도	48.7	-1.2

주: 1) 종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2) 증가율은 ((해당 연도-전년도)/전년도)×100으로 계산.

3) 근로시간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결측처리함.

28) 2006년도 「매월노동통계」 연평균으로 매월 총근로시간은 191.2시간으로, 한 달을 4.3주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주당 44.5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 2006년
(단위 :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성	여성
전체		48.7	50.6	46.2
연령별	19세 미만	38.4	44.9	36.6
	20~29세	47.7	50.9	45.3
	30~39세	49.3	51.2	45.0
	40~49세	48.8	49.5	47.8
	50~59세	49.1	48.9	49.6
	60세 이상	52.1	56.6	41.7
학력별	고졸 미만	50.0	51.5	48.4
	고졸	51.6	53.7	48.4
	전문대졸 이하	47.5	49.8	44.5
	대졸	46.9	48.7	43.2
	대학원 이상	43.4	44.2	41.0

주: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표 6-4〉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50.6시간)이 여성(46.2시간)에 비해 평균적으로 주당 4.4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인 응답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1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10대가 38.4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은 10대와 60대처럼 노동시장 참가가 그리 높지 않은 연령대를 제외하고 보면 30대에서 가장 격차가 컸는데, 여성의 육아 부담 등이 그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60세 여성의 근로시간은 50대에서 가장 길었고, 남성의 경우에는 20대에서 가장 길었다.

〈표 6-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 2006년
(단위 :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성	여성
상용직	50.6	52.2	48.0
임시직	44.6	48.8	41.6
일용직	41.0	41.1	40.7

주: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표 6-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06년
(단위: 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남성	여성
직종별	전문관리직	46.3	47.6	44.1
	사무직	46.3	48.4	44.2
	서비스직	53.0	57.3	50.5
	농림어업직	39.6	51.7	31.7
	생산직	50.9	52.1	47.4
산업별	농림어업	40.3	54.0	32.7
	광공업	50.8	51.6	49.3
	건설업	45.6	45.9	42.0
	전기·가스 및 수도업	43.5	43.7	41.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2.0	55.5	49.2
	운수통신업	50.4	52.3	42.6
	금융 및 부동산업	46.8	49.0	43.4
	공공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47.6 41.9	50.4 25.4	44.3 42.9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47.8	49.2	45.9
	10~29인	50.8	52.5	47.7
	30~99인	51.6	54.2	47.0
	100~299인	49.9	50.7	48.1
	300~499인	49.5	52.8	44.2
	500인 이상	47.6	49.0	45.2

교육수준별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졸 미만과 고졸은 주당 근무시간이 각각 50.0시간과 51.6시간인데 반해, 대졸자는 46.9시간,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43.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50.6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성별로 보아도 상용직인 남성이 52.2시간, 여성은 48.0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임시직인 경우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6시간으로 상용직보다 6시간 가량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표 6-6>은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종·종업원 규모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산업별로는 가사서비스업이나 농업·림어업에서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산업에서 임시 혹은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산업을 제외하면, 전기·가스·수도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3.5시간으로 짧은 편이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0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서비스직이 53.0시간으로 가장 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기록했으며,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은 46.3시간으로 비교적 짧은 근로시간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29인이 50.8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500인 이상이 47.6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초과근로시간

다음으로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의 유무, 초과급여 지급방식 및 월평균 초과급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표 6-7>과 같다.

이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정

<표 6-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 : 2006년

(단위: %)

초과근로를 안함		73.6
초과근로를 함		26.4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		8.7
초과급여 지급 안함		41.7
초과급여 지급함		58.3
초과 급여 지급 방식	시간에 따라 계산	82.4
	일정 금액	14.9
	기준 없음	2.4
	모름/ 무응답	0.3
시간당 평균초과급여(천원)		8.2

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9차년도에 28.0%로 나타나, 비교적 초과근로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9.1시간으로 예년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⁹⁾

한편,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초과급여가 지급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60.1%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였다. 초과급여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간에 따라 결정(83.1%)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초과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는 13.7%로 나타났다.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는 약 7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임금

KLIPS에서는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임금지급주기, 임금산정방식, 임금수준, 성과급 적용 여부와 해당 성과급제 그리고 임금내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임금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에 대하여 종사상 지위, 인구학적 특성, 사업체 특성별로 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산정방식

<표 6-8>을 통해 임금 지급주기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93.6% 정도가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시로 지급받는 다’와 ‘매일 지급받는 다’는 응답은 각각 2.6%, 2.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 지급주기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2.6%)과 여성(95.0%)의 대부분이 ‘한 달’ 주기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임금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연봉계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9) 제8차(2005)년도 『한국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p. 119 참조.

〈표 6-8〉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지급방법 : 2006년

(단위:%)

		전 체	남 성	여 성
임금지급주기	한 달	93.6	92.6	95.0
	보름/주	0.4	0.5	0.3
	매일	2.9	2.6	3.5
	수시	2.6	3.6	0.9
	기타	0.5	0.7	0.4
임금지급방법	연봉계약제	9.8	12.4	5.9
	월급	77.0	74.6	80.7
	주급/격주	0.1	0.1	0.1
	일당	8.8	10.0	7.1
	시간급제	2.1	1.1	3.6
	도급제	0.5	0.6	0.3
	실적급	1.6	1.1	2.3
	기타	0.2	0.2	0.1

9.8%로 나타났으며, 월급제의 비중은 77.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74.6%), 여성(80.7%) 모두 월급제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연봉제는 남성(12.4%)이 여성(5.9%)보다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9〉는 성과급제 실시 여부를 임금근로자 특성별로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비중은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별로는 금융 및 부동산업이 42.4%인 반면 건설업은 6.7%로 차이가 상당했으며, 직종별로는 전문관리직은 28.3%가 적용받는 반면, 생산직은 전문관리직의 40% 수준인 11.4%에 불과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 일용직은 성과급제 적용비율이 매우 낮았다. 한편 종업원 규모에 따라서는 종업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 38.3%가 성과급을 실시하고 있으나, 10인~29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 : 2006년

(단위 : %)

		성과급제 있음	성과급제 없음
성별	남성	21.3	78.7
	여성	16.3	83.7
업종	농림어업	8.6	91.4
	광공업	23.7	76.3
	건설업	6.7	93.3
	전기·가스 및 수도업	39.4	60.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3.6	86.4
	운수통신업	23.4	76.6
	금융 및 부동산업	42.4	57.6
	공공서비스업	19.1	81.0
직종	전문관리직	28.3	71.7
	사무직	24.3	75.7
	서비스직	15.2	84.8
	농림어업직	11.2	88.8
	생산직	11.4	88.6
종사상 지위	상용직	22.8	77.2
	임시직	11.0	89.0
	일용직	2.5	97.5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12.9	87.1
	10~29인	7.7	92.3
	30~99인	17.0	83.0
	100~299인	17.3	82.7
	300~499인	27.5	72.5
	500인 이상	38.3	61.7

2. 월평균 임금

KLIPS에서는 임금 산정방식에 따른 항목별 임금수준 이외에도 “현재 이 일자리에서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월평균 임금(세후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6-10〉에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지난 9년간 KLIPS에서 조사되고

〈표 6-10〉 연도별 월평균 임금 비교

(단위: 만원, %)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1차년도	111.1	135.0	130.9	159.0	77.4	94.1
2차년도	103.4	124.6	123.7	149.0	72.5	87.3
3차년도	110.0	129.5	130.8	154.1	76.7	90.3
4차년도	121.2	137.3	144.4	163.5	85.5	96.8
5차년도	132.1	145.5	156.7	172.6	94.5	104.1
6차년도	145.0	154.4	171.7	182.8	105.1	111.9
7차년도	158.8	163.2	188.1	193.3	113.2	116.4
8차년도	169.0	169.0	200.4	200.4	118.9	118.9
9차년도	181.1	176.3	213.0	208.4	126.5	123.8

주: 1)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05년=100)

있는 월평균 실질임금은 1차년도 조사(135만)에 비해 2차년도 조사(124만 6천원)에서 10만원쯤 감소하였으나, 3차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해 9차년도에는 176만 3천원에 달했다.

성별로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9차년도에 여성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126만 5천원으로 남성의 59.4%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임금의 변동은 『매월노동통계조사』³⁰⁾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차이가 있다.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하면 2006년 월평균 임금액은 254만 2천원인데, KLIPS는 181만 1천원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 증가율을 보더라도 1999년 『매월노동통계조사』는 11.1% 증가했지만, KLIPS의 경우 오히려 -7.7% 감소했다. 이렇게 KLIPS에서 추정되고 있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주요하게는 조사 대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LIPS의 경우는 가구조사로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개인들의 임금을 조사하므로 1인 이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이에 반해 『매월노동통계조사』는 기업체 조사로 비농부문 상용근로자 5인 이

30)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상 사업체³¹⁾의 상용근로자가 조사 대상이며, 1인 이상 5인 미만의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는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중 상당수가 조사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고 있다.

<표 6-11>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연령별·교육수준별로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40대에 월평균 임금이 253만 2천 원으로 가장 높고, 여성은 30대에 156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19세 이하 집단에서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반면, 여성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교육수준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졸자의 경우 고졸보다 151.8%(241만 9천원)의 임금을 받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 : 2006년

(단위 : 만원)

		전 체	남 성	여 성
연 령	19세 이하	70.8	68.3	71.5
	20~29세	133.7	147.7	123.0
	30~39세	203.2	223.8	156.0
	40~49세	200.6	253.2	119.8
	50~59세	194.8	233.9	118.5
	60세 이상	98.0	116.4	55.1
학 력	고졸 미만	110.5	137.8	81.0
	고졸	159.4	191.4	110.4
	전문대졸 이하	160.1	183.6	129.4
	대졸	241.9	272.4	179.9
	대학원 이상	320.7	355.8	219.1

주 : 1)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2) 상대임금은 연령은 20대, 학력은 고졸을 100으로 하여 계산.

31) 『매월노동통계조사』는 1999년 이전에는 비농전산업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가 조사 대상이었으나, 1999년부터는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비교적 최근 자료인 5인 이상 자료를 수록한 『월간 노동리뷰』, 각호,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의 결과를 참조하였다.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 2006년

(단위:천원)

		월평균 임금	
		평균액(천원)	상대임금
종사상 지위	상용직	200.7	100.0
	임시직	99.2	49.4
	일용직	109.5	54.6

주: 1) 상대임금은 상용직근로자를 100으로 하여 계산.

는 반면, 고졸 미만은 고졸의 69.3%(110만5천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고용형태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12>에 제시되어 있듯이,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200만 7천원으로 임시직은 상용직의 49.4%, 일용직은 54.6%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표 6-13>는 산업별·직업별 및 기업체 특성별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328만 6천원)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 및 부동산업(246만 2천원)과 운수통신업(192만 5천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대표적인 서비스업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광공업 월평균 임금의 73.1%(135만 3천원)로 가사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수준은 직업별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관리직의 월평균 임금은 243만4천원으로 사무직의 129.3%이며, 생산직과 서비스직은 사무직의 76.8%, 69.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태별로 보면, 공기업이 가장 높은 257만 2천원이었으며, 정부기관이 그 다음이었다. 민간회사는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166만 2천원이었다.

종업원 규모별 임금수준은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가 235만 2천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 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 2006년
(단위: 만원)

		전 체	남 성	여 성
직업	전문관리직	243.4	289.5	168.7
	사무직	188.2	231.6	145.6
	서비스직	131.2	188.1	98.9
	농림어업직	74.6	136.3	34.0
	생산직	144.6	165.9	85.8
산업	농림어업	74.5	150.0	31.8
	광공업	185.1	226.6	107.9
	건설업	172.7	177.4	112.9
	전기·가스 및 수도업	328.6	358.5	152.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35.3	174.9	103.9
	운수통신업	192.5	201.3	156.7
	금융부동산업	246.2	298.0	163.9
	공공서비스업	188.4	224.4	146.7
	가사서비스업	78.4	81.4	78.2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155.7	183.0	122.3
	10~29인	154.9	182.3	106.6
	30~99인	169.5	196.8	119.5
	100~299인	181.4	206.4	129.0
	300~499인	215.1	249.7	160.2
	500인 이상	235.2	291.3	141.9
기업 형태별	민간회사	166.2	201.4	111.4
	외국인회사	231.5	259.7	197.1
	공기업	257.2	303.0	152.7
	법인단체	236.0	302.0	166.8
	정부기관	253.2	284.9	212.1
	소속이 없음	114.0	134.4	79.2
	기타	151.5	166.4	108.7

주: 1)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제 4 절 비정규직 근로자

KLIPS는 5차년도부터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하고 정교하게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먼저, 1~8차년도 조사까지 진행되어 왔던 기존의 조사 항목으로는 임금근로자용 유형 설문에서 조사되어 오던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 및 자기 판단에 기초한 정규-비정규 여부, 근로계약 기간의 유무 등이 있다. 이 외에 5차년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는 유형 설문에서 조사되고 있는 호출근로(혹은 일용대기근로) 외에 취업자용 설문 중 문9~문14³²⁾에서 조사된 근로의 지속가능성 여부, 향후 지속가능 기간, 근로지속 불가능 이유, 파견 및 용역근로 여부, 독립도급근로 여부, 가내근로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사 항목들을 이용하여 아래에서는 다양한 고용 유형을 판별하고 각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비정규직의 규모

다음으로 <표 6-14>은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고용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독립도급(29.6%)이며, 시간제(26.3%)와 일용대기근로(16.0%)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는 각각 4.9%와 11.9%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기준별로 살펴볼 때 KLIPS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할 때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3]에서 볼 수 있듯이, KLIPS에서 임시·일용직 기준으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1.9%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32) 9차년도 취업자용 설문 문항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과 비정규직 : 2006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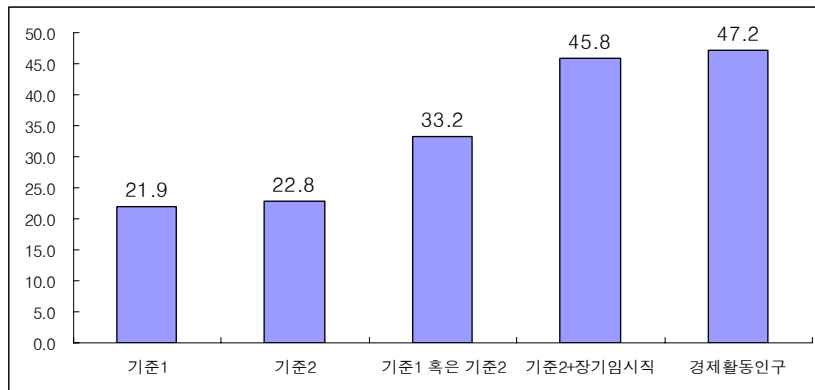
	정규직	일용 대기	파견	용역	독립 도급	가내	시간제	단기 계약	전 체
전체	77.2	3.7	1.1	2.7	6.7	1.0	6.0	1.6	100.0
		16.0	4.9	11.9	29.6	4.4	26.3	6.9	100.0
남성	79.6	4.3	1.1	2.9	7.2	0.7	2.6	1.6	100.0
		21.1	5.5	14.2	35.2	3.3	12.7	8.0	100.0
여성	73.6	2.6	1.1	2.4	6.0	1.5	11.2	1.5	100.0
		9.9	4.2	9.1	22.9	5.8	42.4	5.7	100.0

주: 1) 각 고용형태는 개별 기준에 의해 정의되어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표에서 제시된 항목의 순서에 따라 분류된 결과임.

2) 단기계약직이란, 근속이 1년 안된 사람들 중 향후 계속 근무 가능한 기간이 1년 이하인 노동자를 의미함.

〈그림 6-3〉 다양한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 2006년

(단위:%)



주: 기준 1은 KLIPS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 비중, 기준 2는 위의 고용형태별 정의를 이용. 기준 2+ 장기임시직에서 장기임시직은 부가급여를 받는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지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 가능한데, 여기서는 퇴직금을 받는지 여부로 통제했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06년도 비농가부문 임시·일용직 비중임.

47.2%와 비교할 때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에 속하거나 다양한 고용형태에 속하는 경우(기준 1 혹은 기준 2) KLIPS에서 추정될 수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33.2%까지 증가한다. 또한 기준 2에 장기임시직을 포함할 경우 비정규직의 규모는 45.8%로 크게 증가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거의 같은 비정규직 규모가 추산된다. 결

국 두 조사 간 조사방법상의 차이점³³⁾을 감안하면 양 조사에서의 비정규직 규모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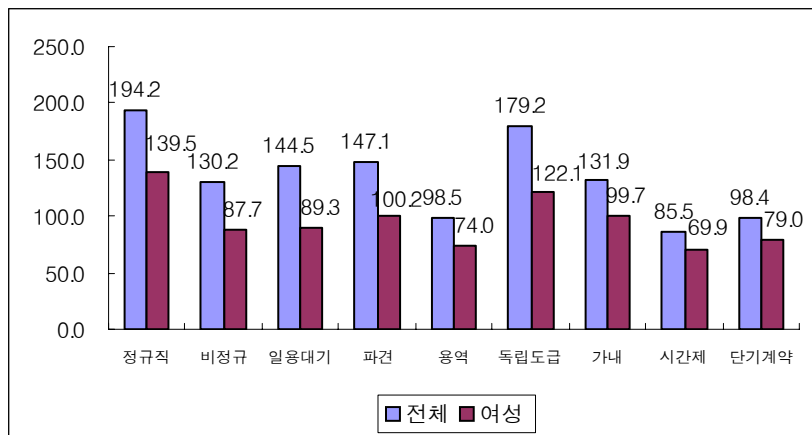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여기서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한 비정규직의 조작적 정의(기준 2)를 기준으로 이들의 임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6-4]과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30만 2천원으로 정규직(194만 2천원) 근로자의 약 67.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그림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7천 8백원으로 정규직 근로자(9천 7백원)의 80.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각각의 고용형태에 따라 매우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립도급 근로일 때의 임금(179만 2천원)은

(그림 6-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 2006년

(단위 : 만원)



주: 임금수준은 명목임금임.

33) KLIPS에서는 각종 사회보험 및 퇴직금 가입 여부와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상여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상여금이나 각종 부가급여 제공 등을 감안하여 조사 요원이 직접 종사상 지위를 판별하여 기입한다.

정규직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파견근로(147만 1천원), 일용대기(144만 5천원), 가내근로(131만 9천원)는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보다는 높지만 정규직의 68~76%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용역(98만 5천원), 단기계약(98만 4천원), 시간제(85만 5천원) 등에서 더 심해졌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7 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임금근로자에게도 매년 유형 설문과 취업자용 설문을 통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주요 설문 항목으로는 종사상 지위, 사업체의 규모, 월평균 소득과 연간 매출액, 근로시간 규칙성, 주당 근로시간과 월평균 근로일수,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과 관련한 특성들이 조사되고 있다. 특히 5차년도부터는 사업체의 창업자본금 및 화폐가치에 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8차년도 조사부터는 적자를 보는 경우 적자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표 7-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 1998~2006년

(단위:명, %)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표본수	남성 비중	여성 비중	
1차년도	2,415	58.6	41.5	37.6
2차년도	2,247	59.7	40.3	35.7
3차년도	2,071	60.5	39.5	34.7
4차년도	1,984	59.8	40.2	32.7
5차년도	1,980	61.0	39.0	31.9
6차년도	2,001	61.3	38.7	30.7
7차년도	2,027	61.8	38.2	30.4
8차년도	2,125	60.8	39.2	31.7
9차년도	2,049	61.1	38.9	29.7

문항이 추가되었다.

1~9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KLIPS에서 파악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표 7-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본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제 1 절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 이때 고용주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이르며,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이 없는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을 받지 않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로 각각 정의된다.

먼저 <표 7-2>를 통해 9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주가 25.4%, 자영업자 56.3%,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8.3%인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1차년도에 22.1%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9차년도 18.3%를 기록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1차년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

<표 7-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 : 1998~2006년

(단위:%)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1차년도	21.1	56.8	22.1
2차년도	22.6	54.8	22.6
3차년도	23.7	52.8	23.5
4차년도	24.8	51.2	24.1
5차년도	26.4	50.3	23.3
6차년도	25.9	50.9	23.2
7차년도	27.5	50.8	21.8
8차년도	23.9	57.6	18.6
9차년도	25.4	56.3	18.3

나, 8차년도에 크게 증가하여 57.6% 달하였다가, 이후 9차년도에 약간 감소하여 56.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KLIPS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는 통계청의 2006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19.3%로, KILPS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7-3>은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과 산업별 특성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성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64.7%), 고용주(32.0%), 가족종사자(3.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종사자(42.4%)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20

<표 7-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단위: %)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성별	남성	32.0	64.7	3.4
	여성	13.8	43.8	42.4
연령	20~29세	17.2	68.5	14.3
	30~39세	28.9	55.7	15.4
	40~49세	28.9	49.7	21.4
	50~59세	25.2	55.1	19.7
	60세 이상	11.8	68.9	19.3
학력	고졸 미만	11.2	61.6	27.2
	고졸	24.3	55.3	20.4
	전문대졸 이하	30.9	56.8	12.3
	대졸	47.1	45.9	7.1
	대학원 이상	47.1	52.9	0.0
산업	농림어업	5.6	61.0	33.4
	광공업	41.0	38.3	20.7
	건설업	37.7	56.8	5.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5.5	51.5	23.1
	운수통신업	9.1	88.7	2.2
	금융 및 부동산업	19.3	71.6	9.1
	공공서비스업	34.6	52.1	13.3
	가사서비스업	4.9	95.1	0.0

대와 60대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40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49.7%로 20대에 비해 18.8%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는 교육 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용주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족종사자는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³⁴⁾로는 광공업(41.0%), 건설업(37.7%), 공공서비스업(34.6%)에서 고용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제 2 절 근로시간

본 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 주당 평균 근로일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 일 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여기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 함은 일거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업(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 함은 사업 또는 일자체를 ‘하다 안 하다’ 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또한,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로 다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 관련하여서는 “이 일 자리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일주일에 보통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라고 각각 조사하고 있다.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 및 주평균 근로일수의 분포는

34) 2000년 개정 산업표준분류.

<표 7-4>와 같다. 먼저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규칙적’인 경우가 73.7%, 불규칙적인 경우가 26.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이 계절의 영향을 받아 불규칙한 경우가(18.7%)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시간의 규칙성에 대해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는 응답이 고용주가 88.4%인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는 68.4%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는 비중이 고용주(6.9%)보다는 자영업자(21.5%)와 가족종사자(25.4%)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과 건설업 종사자의 73.9%와 53.3%가 근로시간이 규칙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각각 69.6%와 37.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9차년도에 조사된 비임금근로자의 주평균 근로일수는 5.9일이며

<표 7-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 : 2006년
(단위: %, 일)

		규칙적	불규칙적		주평균 근로일수(일)
			계절영향 없음	계절영향 있음	
전 체		73.7	7.6	18.7	5.9
종사상 지위	고용주	88.4	4.7	6.9	5.9
	자영업자	68.4	10.1	21.5	5.7
	가족종사자	70.5	4.1	25.4	6.2
산업	농림어업	26.1	4.3	69.6	6.0
	광공업	82.9	8.6	8.5	5.8
	건설업	46.7	16.3	37.0	5.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7.1	6.1	6.9	6.3
	운수통신업	68.7	14.2	17.1	5.2
	금융 및 부동산업	90.4	4.1	5.6	5.5
	공공서비스업	85.8	8.6	5.6	5.6
	가사서비스업	61.6	27.2	11.2	3.4

종사상 지위별로 자영업자의 근로일수가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로 살펴볼 때에는 건설업(5.1일)과 운수통신업(5.2일)에서 주평균 근로일수가 상대적으로 짧았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농림어업이 6.3일로 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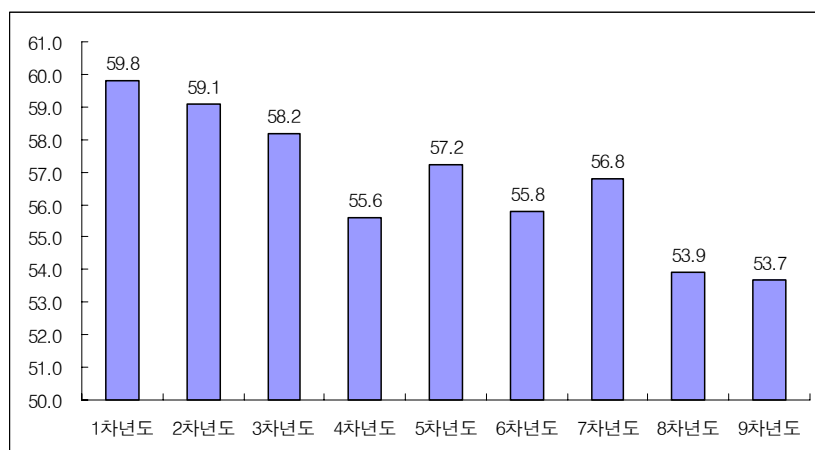
2. 주당 근로시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4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5차년도 조사 이후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1]에서 볼 수 있듯이, 1차년도(59.8시간)와 2차년도(59.1시간)에 조사된 주당 근로시간은 3차년도에 58.2시간, 4차년도에는 55.6시간까지 감소하였다가 5차년도에는 57.2시간으로 1.6시간 가량 증가하였고, 6차년도에 55.8시간으로 1.4시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7차년도에는 다시 1시간 증가하여 56.8시간, 8차년도와 9차년도에는 각각 53.9시간, 53.7시간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1차년도를 제외하면 고용주가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다. 9차년도의 경우 고용주는 주당 평균 55.0시간, 자영업

[그림 7-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998~2006년

(단위 : 시간)



〈표 7-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평균 근로시간 : 1998~2006년
(단위: 시간)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1차년도	59.8	58.6	59.8	60.8
2차년도	59.4	62.9	58.4	58.7
3차년도	58.2	60.2	57.8	57.2
4차년도	55.6	57.5	55.2	54.4
5차년도	57.2	58.3	56.6	57.2
6차년도	55.8	58.5	55.3	54.1
7차년도	56.8	58.5	56.6	54.9
8차년도	53.9	56.9	52.3	54.7
9차년도	53.7	55.0	53.1	53.8

자는 53.1시간, 가족종사자는 53.8시간을 근로하였다.³⁵⁾

〈표 7-6〉은 주당 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비임금근로자의 69.2%가 주당 44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3.7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임금근로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임금근로자(약 48.7시간)보다 5시간 정도 더 긴 수치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주당 71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18.4%)이 남성보다 2.0%포인트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2시간 가량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보면 남성 비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50.6시간)보다 주당 4시간 정도 더 일했으며,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여성 임금근로자(46.2시간)보다 6.4시간 정도 더 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는 40~59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4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연령대는 37.7시간의 2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자(56.7시간)가 가장 긴 주당 근로시간을 가지는 것

35)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68시간이라고 응답한 개인은 하루 24시간 근로를 의미하므로,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 7-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 2006년
(단위: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
전 체		5.6	10.8	14.4	21.6	30.4	17.2	53.7
성별	남성	4.2	8.0	13.3	26.2	31.9	16.4	54.6
	여성	7.6	14.8	16.0	15.0	28.3	18.4	52.6
연령	20~29세	27.1	13.5	25.9	8.1	18.6	7.0	37.7
	30~39세	5.6	8.1	15.9	26.3	28.0	16.2	53.6
	40~49세	3.9	7.9	12.8	23.1	31.9	20.3	56.4
	50~59세	3.0	10.6	12.5	21.8	32.8	19.3	56.4
	60세 이상	8.8	19.0	16.5	16.6	28.7	10.5	47.6
학력	고졸 미만	4.2	14.3	12.5	17.6	33.0	18.5	54.8
	고졸	3.4	8.6	12.8	22.3	32.2	20.7	56.7
	전문대졸 이하	14.3	9.2	14.7	18.9	32.2	10.7	48.2
	대졸	6.6	9.6	20.7	30.6	21.3	11.4	49.7
	대학원 이상	14.7	9.0	25.3	23.3	16.9	10.9	44.7

〈표 7-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 2006년
(단위: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평균 근로시간
산업	농림어업	4.6	23.0	16.7	18.2	29.5	8.0	47.9
	광공업	2.6	7.1	9.8	37.8	34.0	8.8	52.6
	건설업	3.1	21.5	17.8	27.2	25.3	5.1	46.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1	5.5	9.4	17.7	33.2	30.0	62.2
	운수통신업	1.6	11.2	13.7	23.8	33.0	16.7	54.1
	금융 및 부동산업	3.3	6.0	41.8	22.5	24.2	2.2	46.5
	공공서비스업	9.9	11.5	15.6	20.1	27.4	15.6	49.9
	가사서비스업	78.5	16.3	-	-	5.2	-	13.9
종업원 규모	1~4인	5.8	11.3	13.8	20.0	30.9	18.2	54.1
	5~9인	2.7	3.8	20.3	38.1	26.7	8.4	52.3
	10인 이상	4.1	4.5	25.7	43.8	20.7	1.3	46.7

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대학원 이상’(44.7시간)의 근로시간과의 차이는 주당 평균 12시간이었다.

<표 7-7>은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2.2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특히 71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 응답자가 이 산업에서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업원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가 54.1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1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5인 미만 사업체에 비해 7.4시간 가량 짧은 46.7시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3 절 근로소득

<표 7-8>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이하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실질소득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지난 9년간 월평균 명목

<표 7-8> 연도별 월평균 소득 비교

(단위: 만원)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실질소득
1차년도	132.2	160.6	149.2	181.3	88.9	108.0
2차년도	128.0	154.3	142.4	171.5	83.5	100.6
3차년도	144.9	170.6	160.6	189.2	95.8	112.8
4차년도	181.6	205.7	202.5	229.4	121.0	137.0
5차년도	214.8	236.6	237.3	261.3	144.3	158.9
6차년도	214.6	228.6	238.2	253.7	143.5	152.8
7차년도	246.5	253.4	275.1	282.7	154.0	158.2
8차년도	240.5	240.5	275.5	275.5	152.3	152.3
9차년도	251.7	246.2	282.2	276.1	173.2	169.4

주: 1)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05년=100)

2) 적자를 보는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

3) 중단면가중치 적용.

소득의 추세를 살펴보면, 1998년 132만 2천원에서 2차년도에 128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06년 들어 251만 7천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는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2차년도 뿐 아니라 6차년도와 8차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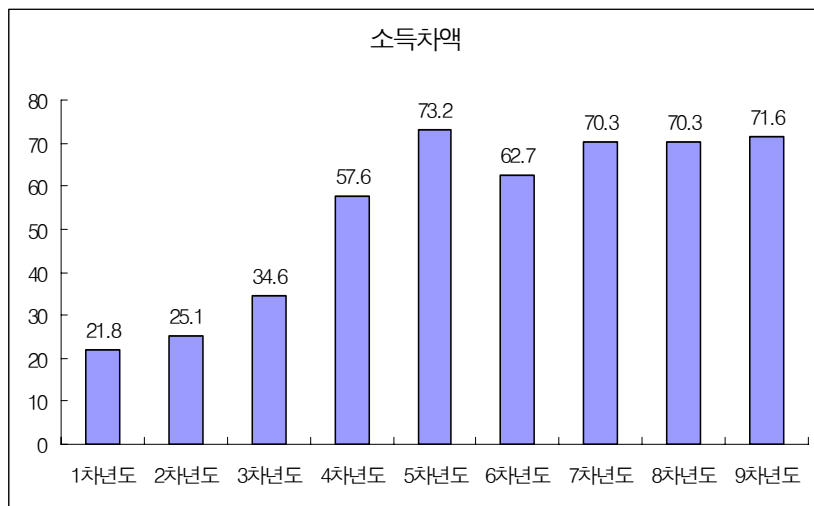
월평균 소득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간 소득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9차년도의 여성 월평균 명목소득은 173만 2천원으로 남성(282만 2천원)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소득을 비교한 결과가 [그림 7-2]에 제시되어 있다. KLIPS에서 조사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실질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높으며, 그 격차는 1차년도 21만 8천원에서 5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6차년도에 62만 7천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7차년도에 70만 3천원의 차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9차년도 들어 그 격차는 다소 증가하여, 71만 6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표 7-9>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연령 및 교육수준별

[그림 7-2]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소득 차액 비교

(단위: 만원)



주: 소득차액 =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소득 -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

<표 7-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 : 2006년
(단위: %, 만원)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만원)
		적자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 체		3.5	21.5	28.1	20.8	26.0	245.6
연령	20~29세	3.0	31.1	34.6	19.8	11.5	163.1
	30~39세	2.6	11.0	27.3	29.3	29.7	273.0
	40~49세	4.6	9.7	28.7	22.0	35.0	276.0
	50~59세	3.5	20.5	27.5	23.5	25.1	232.8
	60세 이상	2.5	55.6	27.5	5.3	9.1	197.3
학력	고졸 미만	2.5	40.5	32.5	14.3	10.1	138.2
	고졸	4.4	12.4	27.7	25.1	30.4	245.9
	전문대졸 이하	3.5	17.9	27.6	19.9	31.0	269.4
	대졸 이하	3.8	9.7	24.5	24.5	37.6	398.9
	대학원 이상	1.9	16.7	12.6	19.4	49.4	378.2

주: 월평균 근로소득 계산시 '적자' 응답자 제외. 횡단면 가중치 적용.

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연령별 월평균 소득액을 보면 30대에서 정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상에 분포하는 사람은 40대가 35.0%로 가장 많았고, 30대도 300만원 이상에 가장 많은 29.7%가 분포하고 있었다. 반면 50대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27.5%)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 및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자영업자 및 고용주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상에 49.4%가 위치하고 있었던 반면, 고졸 미만은 단지 10.1%만이 300만원 이상에 분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액은 대졸 이상 비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대학원 졸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7-10>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에 대해 사업체 특성 및 매출액 규모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광공업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469만 1천원)이 가장 높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 : 2006년

(단위: %, 만원)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만원)
		적자	100만원 미만	100만~ 200만원 미만	200만~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산업	농림어업	3.8	55.1	17.9	11.5	11.8	126.3
	광공업	4.5	8.4	26.9	20.1	40.2	469.1
	건설업	4.3	6.2	21.2	37.0	31.3	256.3
	도소매및음식숙박업	3.8	19.4	28.5	19.4	28.9	231.3
	운수통신업	0.0	12.9	50.0	23.3	13.8	193.3
	금융및부동산업	3.7	15.8	25.4	16.6	38.5	261.8
	공공서비스업	3.9	17.5	28.6	27.1	22.9	238.8
종업 원 규모	0명(자영업자)	3.2	28.8	33.5	19.2	15.3	172.0
	1~4인	4.2	5.0	19.5	28.3	43.0	313.0
	5~9인	5.4	3.3	7.0	15.4	69.0	503.3
	10인 이상	3.2	5.6	4.2	14.5	72.5	971.9

주: 월평균 근로소득 계산시 '적자' 응답자 제외. 횡단면 가중치 적용.

으며, 건설업(256만 3천원)과 도소매음식숙박업(231만 3천원)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업원수가 0(자영업자)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172만원이며, 사업체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7.7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8차년도 조사부터 새롭게 추가된 적자액의 규모는 <표 7-11>에 서 알 수 있다. 9차년도에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의 비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 : 2006년

(단위: %, 만원)

적자 아님		월평균 적자의 분포				월평균 적자액 (만원)
		적자임	100만원 미만	100만~ 200만원 미만	200만~ 300만원 미만	
96.5	3.5	40.4	25.4	5.8	28.4	465.0

중은 3.5%로 비교적 작은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적자액의 평균은 465만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를 보였다. 범주별로는 100만원 미만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아 40.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 4 절 사업체의 창업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는 255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³⁶⁾, 이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시작한 사업체의 창업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표 7-12>를 통해 창업 주체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기(7.7%)보다는 88.1%가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주의 경우가 자영업자보다 창업 비율이 다소간 더 높았다.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하는 응답자에게 사업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표 7-13>을 통해 보면, 응답 대상자의 65.8%가 본인 또는 가족, 친지를 통해 사업 비용을 조달하였으며, 정부의 보조 및 지원은 전혀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용주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친지에 의한 자본금 조달비중이 65.6%,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용자가 1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 : 2006년

(단위:%)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창업	88.1	92.3	86.6
가족 및 친지로부터 물려받음	7.7	2.2	9.6
기타	4.2	5.5	3.8

36)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 : 2006년

(단위:%)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본인 또는 가족, 친지	65.8	65.6	65.9
동업자	2.9	0.0	4.0
은행 등의 용자	14.2	19.0	12.3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려서	2.8	2.6	2.8
사채업자	0.7	0.7	0.7
정부의 보조	0.0	0.0	0.0
기타	2.5	4.7	1.6

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금조달 방식이나 그 비중은 고용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 8 장

생활·직무 만족도 및 생활과 건강

제8장에서는 응답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인의 생활과 경제활동 만족도를 다루고자 한다. 본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5세 이상의 개인이 응답한 생활 전반에 관한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직업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건강과 생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1절은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이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으로 가족의 수입, 여가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다.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세부 항목 중 친인척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 항목은 3차년도부터 조사에 포함되었다.

제2절은 직업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로 직무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다. KLIPS는 1차년도부터 취업자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임금, 취업안정성,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를 묻고 있어서 이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3차년도 조사부터 주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였으며, 9차년도 조사에서는 주된 일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여 이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5차년도 조사부터 취업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일하는 사업체 혹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조직 몰입도 및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도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취업자

를 대상으로 본인의 교육이나 기술(기능) 수준과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교육 혹은 기술(기능) 수준 간의 적합도를 살펴본다. 아울러 본인의 기술(기능) 유용성에 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제3절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살펴본다. 개인의 건강에 관한 문항들은 현재의 건강상태, 장애 및 육체적 제약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제 1 절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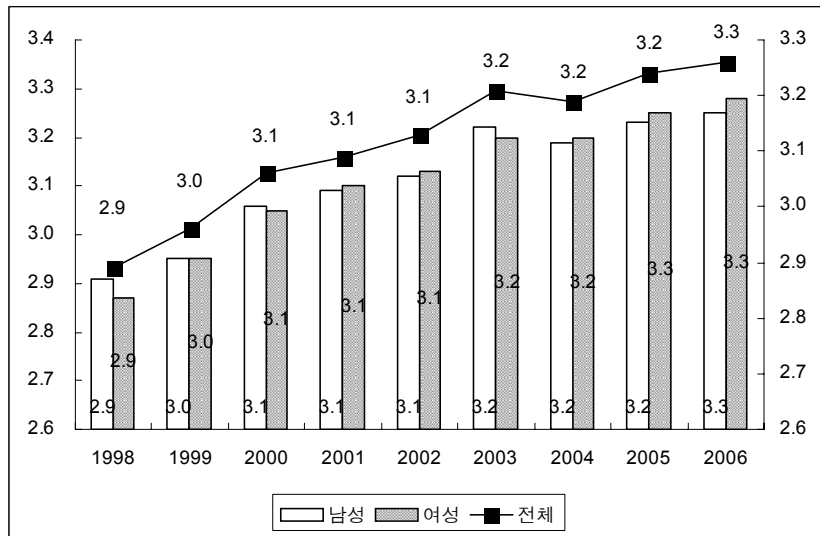
본 절은 KLIPS에서 조사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가족의 수입, 여가 생활, 주거환경,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 및 사회적 친분 관계 등 여섯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1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 조사 대상자들이 응답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8-1]과 같다. 1998년에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못 미치는 2.9점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6년에는 3.3점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성별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8-2]는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추이를 연령별로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대체로 젊은층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2006년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보면, 30대의 경우 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세 이상의 경우 63.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60점대로 생활 만족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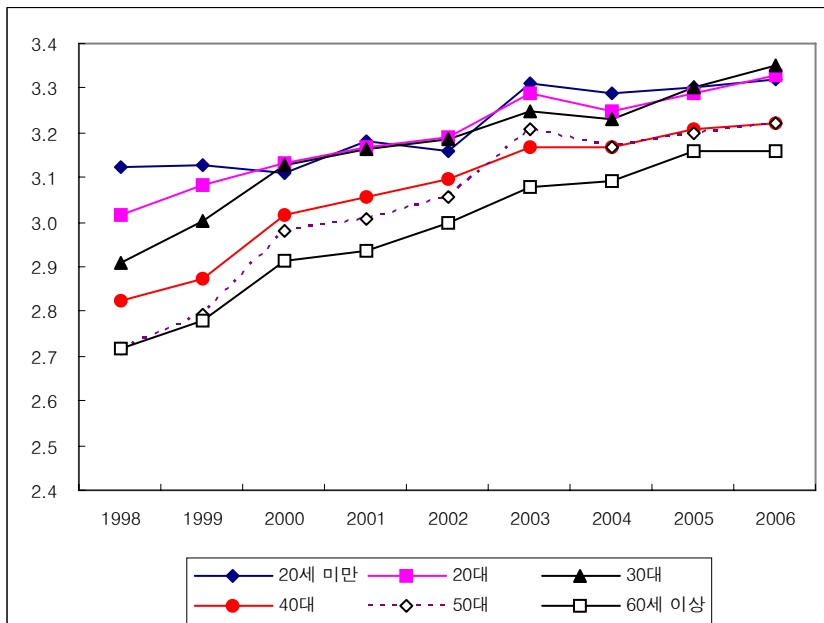
연도간 추이를 살펴보면, 젊은층보다는 고령층일수록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만족이 더욱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20세 미만의 경우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만족도의 평균 점수가 1998년 당시 3.1점에서 2006년 3.3점으로 0.2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50대의 경우는 0.5점(1998년 2.7점 → 2006년 3.2점) 증가하였다.

[그림 8-1]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 1998~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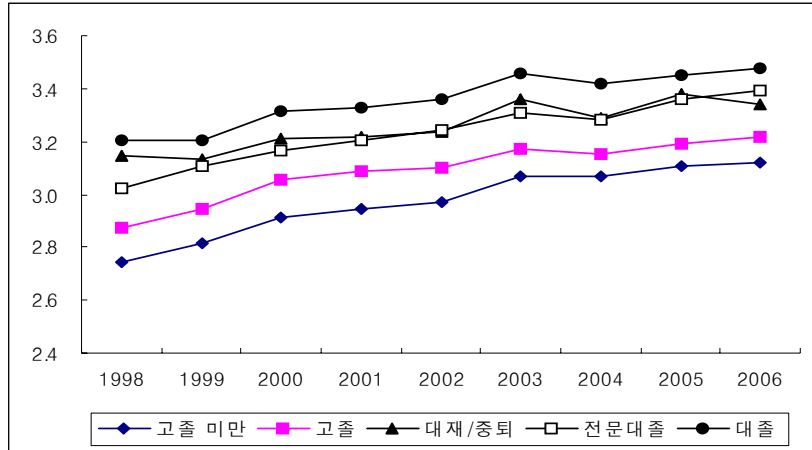


주: 제시된 결과는 평균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매우 불만족=1~매우 만족=5).

[그림 8-2] 연령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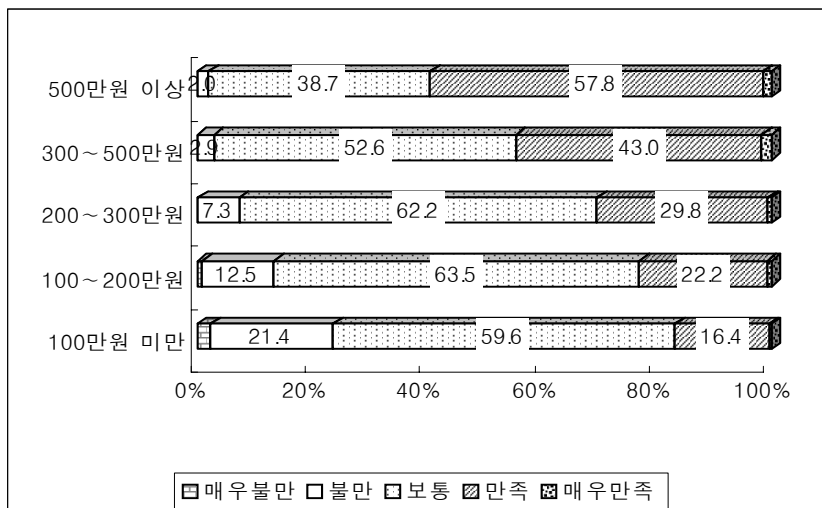
[그림 8-3] 교육수준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추이



[그림 8-3]은 교육수준별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고졸 미만과 고졸자의 경우는 각각 0.4점(1998년 2.7점 → 2005년 3.1점), 0.4점(1998년 2.9점 → 2006년 3.2점) 가장 증가하였으나, 대졸자의 경우 0.3점(1998년 3.2점→2006년 3.5점)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그림 8-4] 소득수준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 2006년

(단위: %)



[그림 8-4]는 2006년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소득수준별로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매우 만족 + 만족)는 응답이 59.3%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6.7%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아울러 보통이라는 응답은 가구소득이 100만~200만원인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구성하는 각 항목의 생활 만족도 분포를 2006년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표 8-1>과 같다. 여섯 가지 항목 중 불만족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은 가족의 수입(37.2%)으로 나타났고, 만족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은 가족관계(61.7%), 친인척관계(46.0%)였다. 결국 조사 대상자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생활의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불만족이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의 만족과 상쇄되어 보통의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1> 항목별 생활 만족도 분포 : 2006년

(단위: %)

	매우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 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가족의 수입	0.5	12.7	49.7	31.4	5.8
여가활동	0.6	24.2	48.8	24.3	2.1
주거환경	2.2	38.5	46.9	10.9	1.4
가족관계	5.7	56.0	34.4	3.5	0.4
친인척관계	2.4	43.6	49.8	3.8	0.4
사회적 친분관계	2.5	40.6	53.2	3.5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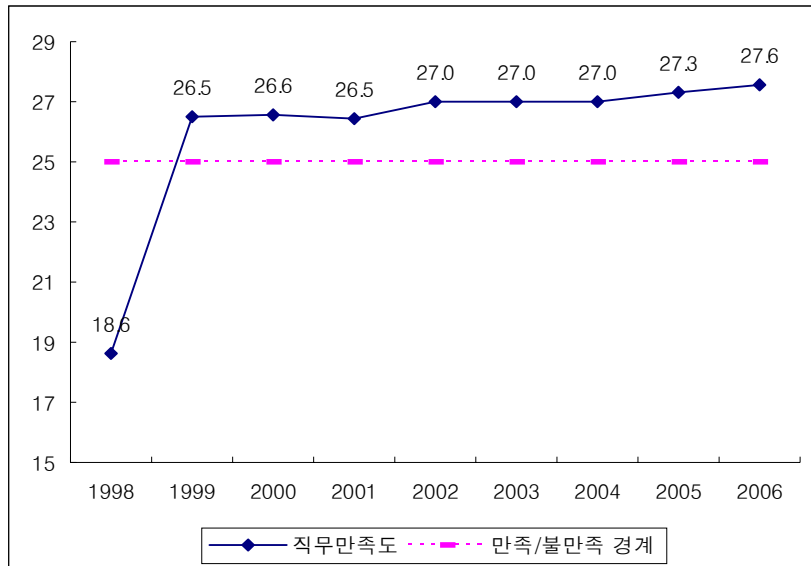
제 2 절 직무 만족도 및 교육·기술 적합도

1. 직무 만족도

본 절은 1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 조사된 개인 응답자의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KLIPS에서는 1차년도부터 취업자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임금, 취업안정성,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지후생제도 등 요인별 직무 만족도를 묻고 있어서 이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요인별 직무 만족도 문항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8-5]는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추이를 연도별로 보여준다. 3

(그림 8-5)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추이 : 1998~2006년



주: 제시된 결과는 9개 직무만족 항목의 평균 점수의 합임(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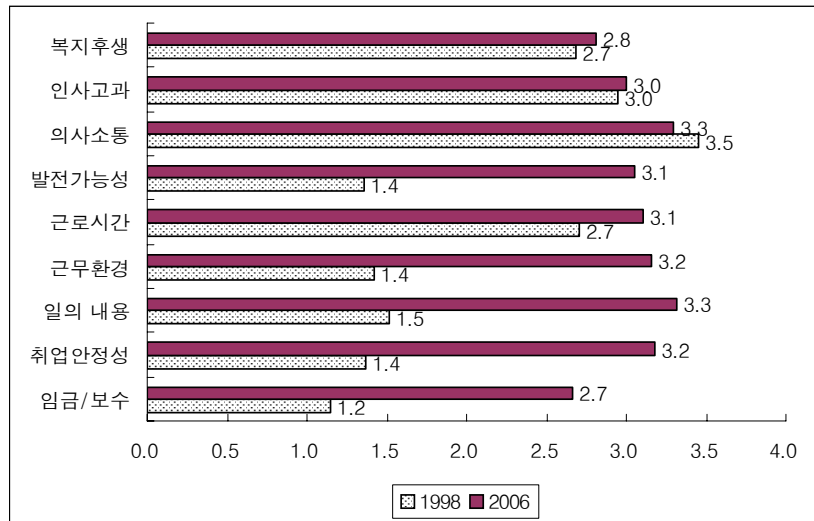
차년도 조사부터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문항을 별도로 질문하고 있으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1차년도부터 조사된 아홉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1998년에는 직무 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만족보다는 불만족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으나 1999년부터 2006년까지는 만족/불만족 경계를 상회하고 있다.

[그림 8-6]은 요인별 직무 만족도 점수를 1998년과 2006년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1998년에는 임금/보수 및 취업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직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06년에는 요인별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여전히 임금/보수에 대한 불만은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9차년도를 대상으로 직무만족의 요인별 차이와 인구학적 특성, 산업별·직업별 특성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요인별 직무만족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표 8-2>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만족스럽다는 응

(그림 8-6) 요인별 직무 만족도 점수 비교 : 1998년/2006년



주: 제시된 결과는 평균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매우 불만족=1~매우 만족=5).

〈표 8-2〉 요인별 직무 만족도 분포 :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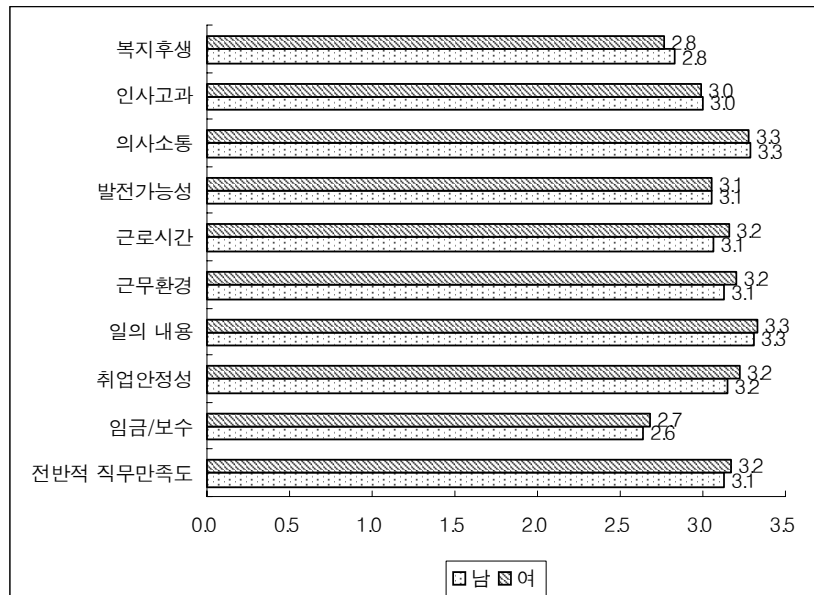
(단위: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임금/보수	0.6	13.9	42.4	37.0	6.1
취업안정성	2.1	33.5	46.1	16.4	1.9
일의 내용	2.3	38.6	48.7	9.5	0.9
근무환경	1.9	31.2	49.0	16.5	1.4
근로시간	1.9	30.2	46.2	19.6	2.1
발전가능성	1.8	23.6	54.9	17.7	2.0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2.4	32.7	57.0	7.3	0.6
인사고과의 공정성	0.8	16.4	66.7	14.0	2.1
복지후생	0.9	16.2	51.7	25.4	5.8

답 비중(매우 만족 + 만족)이 높은 항목은 일의 내용(40.9%), 취업의 안정성(35.6%)이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 비중(불만족 + 매우 불만족)이 높은 항목은 임금/보수(43.1%), 복지후생제도(31.2%)로 보인다.

[그림 8-7]은 성별로 전반적 직무 만족도 점수를 보여준다. 먼저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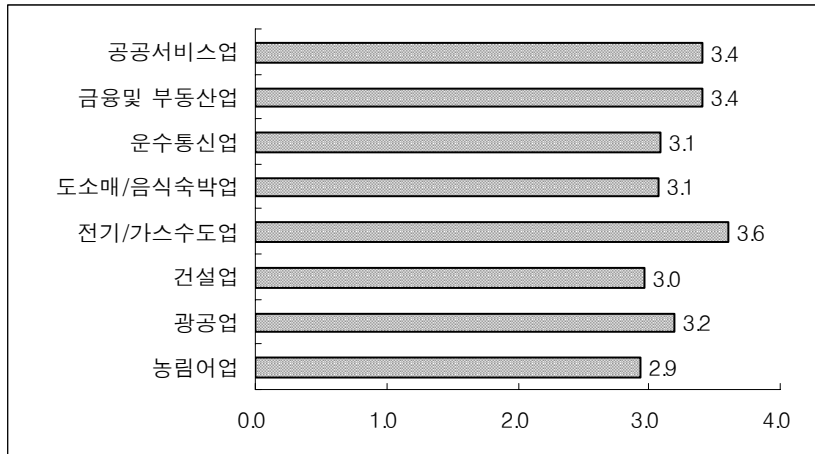
(그림 8-7) 성별 전반적 직무 만족도 점수 :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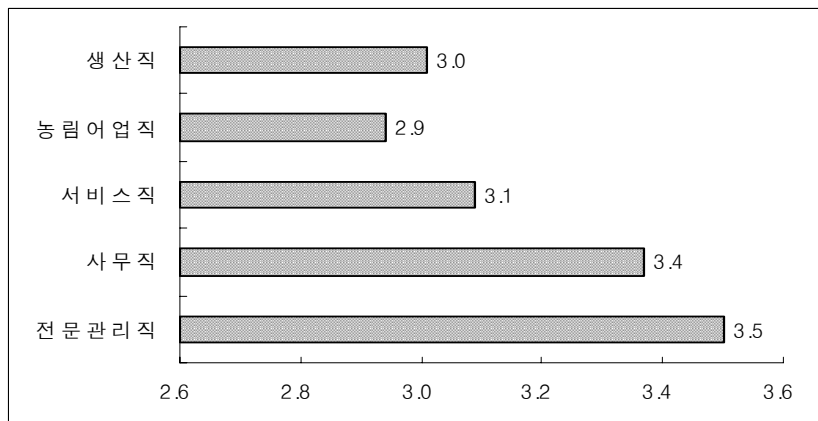
적인 직무 만족도³⁷⁾는 여성(3.2점)과 남성(3.1점)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인별로는 복지후생제도, 인사고과의 공정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개인의 발전가능성 등은 남성의 직무 만족도가 여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

[그림 8-8]과 [그림 8-9]는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를 산업 및 직업

(그림 8-8) 산업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 2006년



(그림 8-9) 직업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 2006년



37) 3차년도 조사부터 질문하였던 주된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단일항목) 문항을 분석한 것이다.

별로 비교하여 그린 것이다. [그림 8-8]은 산업별로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기/가스/수도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직무 만족도는 3.6점으로 가장 높다. 반면 농림어업 및 건설업 종사자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직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그림 8-9]는 직업별로 직무 만족도 점수를 보여준 것이다. 그림에서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림어업직 종사자는 2.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조직 몰입도

이제 개인들이 얼마나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일자리)과 하는(맡은) 일에 애착심의 정도를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별로 살펴본다. 조직 몰입과 직무 만족은 두 가지 개념 모두 조직 구성원의 직무 태도를 묻는 것으로, 조직 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가지는 애착심의 정도를 말하며, 직무 만족은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를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KLIPS에서는 2002년 5차년도 조사부터 설문 문항에 취업자를 대상으로 조직 몰입에 관한 다섯 문항을 추가하고 있다. 이에 관한 질문은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일자리)에 대한 ___님의 평소 생각은 어떠하십니까?”라고 묻고 있으며, “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일자리)은 다닐 만한 좋은 직장이다, ② 나는 이 직장(일자리)에 들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③ 직장(일자리)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이 직장을 추천하고 싶다, ④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일자리)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 직장(일자리)을 계속 다니고 싶다”의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직 몰입과 더불어 5차년도 조사부터 취업자를 대상으로 직무 만족에 관한 설문 문항이 추가되었다. 질문 문항은 “현재 주로 하시느(맡고 계시는) 일에 대한 ___님의 평소 생각은 어떠하십니까?”라고 묻고 있으며, “①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②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③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④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표 8-3〉 인구학적 특성별 조직 몰입도 및 직무 만족도 점수 결과 : 2006년
(단위 : %)

		조직 몰입도	직무 만족도
전 체		16.4	16.9
성 별	남 성	16.3	16.9
	여 성	16.5	17.0
연 령	20세 미만	16.5	16.8
	20~29세	16.7	17.6
	30~39세	16.5	17.3
	40~49세	16.2	16.9
	50~59세	16.3	16.6
	60세 이상	15.4	15.8
교 육 수 준	고졸 미만	14.8	15.6
	고졸	15.9	16.6
	대재 및 중퇴	16.3	17.2
	전문대졸	16.7	17.4
	대졸 이상	17.8	18.3

하고 있다, 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와 같이 다섯 문항으로 구성하며 5점 척도로 묻고 있다. 본 분석에서 제시된 결과는 다섯 문항에 대한 합으로 측정하였다.

9차년도를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별 조직 몰입도 및 직무 만족도 차이를 <표 8-3>에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조직 몰입도의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여성(16.5점)과 남성(16.3점)의 차이는 작지만 여성이 0.2점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남성보다 좀 더 몰입함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20~29세(16.7점), 30~39세(16.5점), 20세 미만(16.5점)의 젊은 연령층에서의 조직 몰입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60세 이상(15.4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40~59세 연령층에서는 젊은층의 점수보다 낮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조직몰입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직무 만족도의 결과를 살펴본다. 성별로는 여성(17.0점)과 남성(16.9점)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을 제외하면 20~30대에서 직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40대 이후

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조직 몰입도와 비슷하게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한편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고용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17.2점)가 비임금근로자(16.7점)에 비해서 직무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3. 직무 적합도와 기술(기능)의 유용성

KLIPS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취업자들에게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의 내용이 본인의 교육수준이나 기술(기능)수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 인지를 조사하였다. 2차년도 조사부터 실시한 질문은 “현재 주로 하는 일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본인의 교육수준이나 기술(기능)수준과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다. 응답 문항은 2차년도에만 3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3차년도부터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는 다시 3점 척도로 변경하여 과잉(수준이 매우 낮다+수준이 낮은 편이다), 적합(수준이 맞다), 과소(수준이 높은 편이다+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로 표기하였다.

이와 함께 KLIPS는 3차년도 조사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기능)의 유용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관한 질문은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배운 지식이나 기능·기술은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직장에 들어갈 경우 얼마나 유용합니까?”라고 묻고 있으며 “① 현 직장에서의 거의 똑같이 유용하다, ② 부분적으로만 유용하다, ③ 거의 쓸모가 없다, ④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다”로 문항이 구성되었다.

<표 8-4>와 <표 8-5>는 2006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기술(기능)수준의 직무 적합도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8-4>에서 보듯이 취업자 10명 중 2명 정도(18.9%)는 하향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남성(19.3%)이 여성(18.2%)에 비해 과잉교육의 비중이 높고,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과잉교육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재 및 중퇴자를 제외하고 고졸자 및 전문대졸자의 하향취업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8-5>는 기술(기능)수준의 적합도 정도를 알아본다. 표에서 보듯이

〈표 8-4〉 인구학적 특성별 교육수준의 직무 적합도 결과 : 2006년

(단위:%)

		과잉(over)	적합(fit)	과소(under)
전 체		18.9	79.6	1.5
성 별	남 성	19.3	79.2	1.5
	여 성	18.2	80.2	1.6
연 령	20~29세	21.3	77.1	1.6
	30~39세	17.9	80.3	1.8
	40~49세	18.5	79.8	1.7
	50~59세	17.6	81.4	0.9
	60세 이상	20.4	78.6	1.0
교 육 수 준	고졸 미만	15.1	84.0	1.0
	고졸	20.1	78.7	1.1
	대재 및 중퇴	36.0	62.4	1.7
	전문대졸	20.8	77.1	2.1
	대졸이상	16.4	81.5	2.1

〈표 8-5〉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기능) 수준의 직무 적합도 결과 : 2006년

(단위:%)

		과잉(over)	적합(fit)	과소(under)
전 체		17.4	81.3	1.3
성 별	남 성	17.9	80.8	1.3
	여 성	16.7	82.0	1.3
연 령	20~29세	19.4	79.1	1.5
	30~39세	16.4	81.9	1.7
	40~49세	17.4	81.4	1.2
	50~59세	16.2	83.0	0.8
	60세 이상	18.8	80.2	1.0
교 육 수 준	고졸 미만	14.1	85.1	0.8
	고졸	18.7	80.4	1.0
	대재 및 중퇴	34.9	63.2	2.0
	전문대졸	17.3	81.0	1.8
	대졸 이상	15.3	83.0	1.9

〈표 8-6〉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기능) 유용성 결과 : 2006년

(단위:%)

		똑같이 유용	부분 유용	거의 쓸모 없음	특별한 기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일자리 아님
전 체		45.8	33.5	13.2	7.5
성 별	남 성	48.9	33.3	11.6	6.2
	여 성	41.1	33.7	15.7	9.5
연 령	20~29세	48.1	36.4	11.4	4.1
	30~39세	51.2	34.5	9.9	4.4
	40~49세	46.6	34.6	12.5	6.4
	50~59세	42.2	33.2	13.7	10.9
	60세 이상	32.0	21.8	27.4	18.8
교 육 수 준	고졸 미만	33.8	30.0	21.0	15.2
	고 졸	43.6	35.2	13.8	7.4
	대재 및 중퇴	37.2	40.8	14.5	7.5
	전문대졸	49.6	36.2	10.2	4.0
	대졸 이상	59.7	31.5	6.7	2.1

취업자 중 17.4%가 직무에 비해 기술(기능)수준이 과잉으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교육수준의 적합도와 유사하게 남성(17.92%)이 여성(16.7%)보다 과잉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교육수준별로도 젊을수록, 대재 및 중퇴인 경우에 과잉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별로 기술(기능) 유용성에 관한 응답 경향을 <표 8-6>를 통해 살펴본다. 성별로는 본인의 기술(기능)이 유용하다는 응답 비중(똑같이 유용+부분 유용)의 경우 남성(82.2%)이 여성(74.8%)보다 7.4%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경우가 유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제 3 절 생활과 건강

이 절은 개인의 건강 생활에 관련된 문항들을 살펴본다. KLIPS는 4차년도 조사에서 건강과 은퇴에 관한 부가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후 5차년도에는 건강 생활에 관한 문항들을 질문하지 않았으나, 6차년도 조사부터 핵심적인 문항을 중심으로 본 조사(개인용 설문과 신규용 설문)에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KLIPS가 포함하고 있는 건강 관련 문항들은 주관적인 건강상태, 장애 및 육체적 제약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각 사항들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KLIPS에서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관련된 질문은 “현재 __님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있으며, 문항은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등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2006년을 대상으로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표 8-7>로 정리한 것이며 편의상 3점 척도로 이용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54.7%가 건강한 편이다(아주 건강 + 건강)라고 응답했으며, 건강하지 않다(건강하지 않음 + 건강이 아주 안 좋음)는 응답은 15.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9.5%로 여성의 응답 비중 50.2%보다 9.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하다는 응답의 비중(20세 미만 81.5% → 60세 이상 21.1%)은 현격하게 감소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자(20세 미만 1.7% → 60세 이상 44.7%)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력별로는 고졸 미만인 경우에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29.6%)이 가장 높았고, 대학재학 및 중퇴자의 경우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중(76.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대학재학 및 중퇴자일 경우 청년층의 비중이 높고 고졸 미만인 경우에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학력에 따른 차이이기보다는 연령으로 인한 차이일 가능성이 높다.

〈표 8-7〉 인구학적 특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 2006년

(단위 : %)

		건강함	보통임	건강하지 않음
전 체		54.7	29.9	15.4
성 별	남 성	59.5	27.9	12.6
	여 성	50.2	31.7	18.1
연 령	20세 미만	81.5	16.8	1.7
	20~29세	75.0	21.7	3.3
	30~39세	67.0	26.9	6.1
	40~49세	54.1	34.9	11.0
	50~59세	42.7	37.6	19.7
	60세 이상	21.1	34.2	44.7
교 육 수 준	고졸 미만	38.0	32.4	29.6
	고졸	56.4	32.2	11.4
	대재 및 중퇴	76.7	19.4	3.9
	전문대졸	67.8	26.9	5.2
	대졸 이상	65.0	29.4	6.6

〈표 8-8〉 가구 소득수준별 건강상태 비교 : 2006년

(단위 : %)

	건강상태			장애/육체적 제약 유무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않음	있음	없음
100만원 미만	29.7	30.9	39.4	70.1	29.9
100만~200만원	50.0	33.5	16.5	90.9	9.1
200만~500만원	55.2	35.3	9.4	94.5	5.5
500만원 이상	62.0	30.6	7.4	96.7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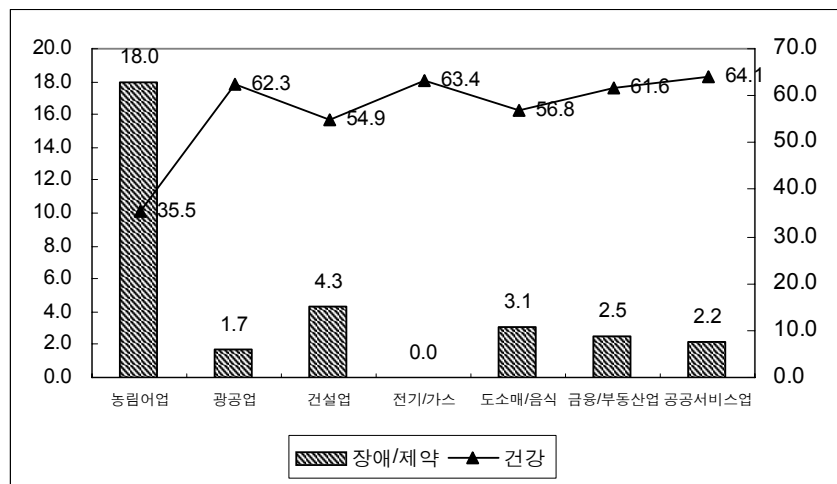
〈표 8-8〉에서 보듯이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비교해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도 좋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39.4%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데 반해,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지 7.4%만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장애 혹은 육체적 제약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29.9%가 그렇다고 응답해 높은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 8-10]과 [그림 8-11]은 산업별과 직종별로 건강상태를 살펴본 것이다. 그림에 의하면 농림어업직일 경우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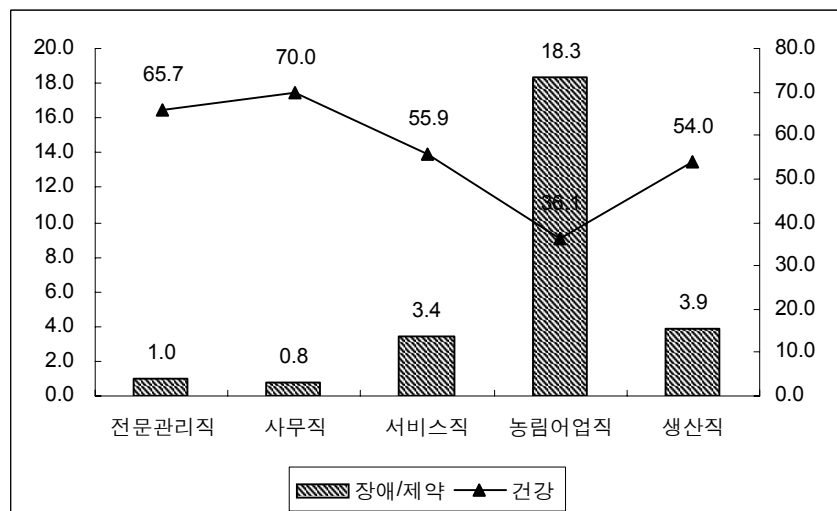
(그림 8-10) 산업별 건강상태 비교 : 2006년

(단위: %)



(그림 8-11) 직종별 건강상태 비교 : 2006년

(단위: %)



은 35.5%에 불과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2.2%로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보인다. 또 전기/가스/수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나 제약을 느낀다는 사람이 1명도 없었으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산업도 전기/가스/수도업(63.4%)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도 농림어업직의 경우가 다른 직종에 비해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농림어업직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단지 36.1%에 그쳤으며, 18.3%가 일상적인 활동에 장애를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직종은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농림어업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대체로 이들이 강한 육체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종사자의 상당 부분이 고령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제 9 장

청년층 부가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는 주요한 이슈에 대한 심층조사로 부가 조사를 하고 있다. 3차년도(2000년)에는 만 30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경제활동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졌고, 4차년도(2001년도)에는 ‘건강과 은퇴’의 주제로 만 15세 이상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노동시장의 활동과 연계된 내용이 다루어졌다. 6차년도(2003년)에는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은퇴자의 은퇴생활과 비은퇴자의 은퇴계획 및 노후생활 준비 그리고 가족관계 및 경제적 부양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7차년도(2004년)에는 근로시간과 여가를 주제로 일자리에서의 시간 배분과 결정과정, 휴가, 일상에서의 시간 배분과 여가 생활에 대해 조사하였다. 8차년도(2005년)에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를 주제로 노사관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일자리에서의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인적자원관리 등 노사관계 실태를 조사하였다. 9차년도(2006년)에는 3차년도에 이루어진 청년층에 대한 조사를 만 35세까지 확대하고 설문 문항도 대폭 확대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9차년도 부가조사 결과를 간단한 빈도표를 통해 요약하였다.

제 1 절 사교육

올해 청년층 부가조사는 사교육의 양태에 대해 취학 전, 초·중등학교 각각을 나눠 조사하였다. <표 9-1>은 유치원 취학 경험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현재 30~35세인 사람들에 비해 현재 15~19세인 사람들의 유치원 취학률은 두 배를 넘고 있으며, 연령이 어려짐에 따라, 즉 최근으로 올수록 유치원 다닌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치원 이외의 사교육 경험도 전반적으로 30~35세보다는 15~19세인 사람들의 유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예체능 학원을 현재 30~35세인 사람들은 10명 중 1명만이 경험했다면, 15~19세인 사람들은 3명 중 1명이 경험하고 있다.

<표 9-3>에서는 유치원 등 사교육 유경험자 비중을 살펴보았다. 현재 15~24세는 안 받아 본 사람이 거의 없는 반면, 30~35세는 3명당 1명꼴로

〈표 9-1〉 유치원 다녔는지 여부

(단위:%)

	15~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전 체
다녔다	88.5	86.0	68.4	30.9	64.0
다닌지 않았다	11.5	14.0	31.6	69.1	36.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9-2〉 유치원 이외 사교육 이용 여부

(단위:%)

	15~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전 체
어린이집	9.2	9.0	4.3	2.0	5.5
놀이방	2.6	0.9	0.6	0.2	1.0
초등학교 교과학원	4.6	4.5	3.5	1.7	3.3
예체능 학원	31.9	22.3	17.4	9.3	18.9
기타 학원	4.0	4.5	2.7	1.8	3.0
개인 및 그룹과의 학습지	0.8	0.9	0.2	0.9	0.7
학습지	12.2	12.0	7.9	3.5	8.2

〈표 9-3〉 유치원 포함 사교육 이용 여부

(단위:%)

	15~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전 체
이용했다	93.7	92.0	73.0	35.7	69.0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6.3	8.0	27.0	64.3	31.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받아 본 것을 알 수 있다.

〈표 9-4〉와 〈표 9-5〉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을 기준으로 사교육 이용 여부를 종류별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역시 연령대별로 유사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초등학교 시절 설문에는 해외연수 경험도 포함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따로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중학교 시절의 사교육과 관련된 문항의 결과는 〈표 9-6〉, 〈표 9-7〉에 요약되어 있다. 이 문항 외에도 중학교 시절의 해외연수 경험, 중학교 시절의 과목별 성적, 부모와 본인의 향후 진학 희망을 추가로 질문하였다.

〈표 9-4〉 초등학교 4학년 때 종류별 사교육 이용 여부

(단위:%)

	15~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전 체
학교교과 관련 학원	36.7	36.7	22.1	8.5	23.6
예체능학원	37.5	40.5	28.7	17.0	29.0
그밖의 학원	3.2	3.6	4.5	4.9	4.2
개인그룹과외	2.9	2.9	1.9	1.0	2.0
학습지	37.7	26.7	14.9	9.4	20.3
인터넷 등 통신과외	0.2	0.3	0.2	0.2	0.2
기타	1.2	0.3	0.4	0.2	0.5

〈표 9-5〉 초등학교 4학년 때 사교육 이용 여부

(단위:%)

	15~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전 체
받았다	75.0	71.6	52.4	31.4	54.1
받지 않았다	25.0	28.4	47.6	68.6	45.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9-6〉 중학교 2학년 때 종류별 사교육 이용 여부

(단위:%)

	15~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전 체
학교교과 관련 학원	57.8	53.8	39.9	20.4	40.2
예체능학원	6.6	5.9	5.4	4.6	5.5
그밖의 학원	1.9	2.0	3.5	1.5	2.2
개인그룹과외	9.7	6.8	7.1	2.9	6.3
학습지	10.1	5.2	6.3	2.8	5.8
인터넷 등 통신과외	0.7	0.9	0.7	0.4	0.7
방과 후 교내보충	0.3	0.3	0.4	0.1	0.3

〈표 9-7〉 중학교 2학년 때 사교육 이용 여부

(단위:%)

	15~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전 체
받았다	72.8	61.5	52.2	29.1	51.0
받지 않았다	27.2	38.5	47.8	70.9	49.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9-8〉 고등학교 2학년 때 종류별 사교육 이용 여부

(단위:%)

	15~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전 체
학교교과 관련 학원	36.3	40.4	36.2	30.3	35.1
예체능 학원	4.2	5.0	3.3	3.8	4.0
직업교육	0.1	0.4	0.6	0.7	0.5
그밖의 학원	2.2	3.1	3.3	2.8	2.9
개인그룹과외	14.6	11.0	7.6	5.4	8.9
학습지	1.4	2.3	3.1	0.9	1.9
방과 후 교내보충	6.7	6.0	5.2	4.0	5.2
인터넷 등 통신과외	3.1	1.6	1.3	0.6	1.5
기 타	0.6	0.8	0.1	0.1	0.3

고등학교 시절의 사교육에 대해서는 <표 9-8>과 <표 9-9>에서 정리하였다. 이들 문항 외에도 고등학교 시절 혼자서 공부하는 데에 사용한 시간, 해외연수 경험을 추가로 질문하였다.

〈표 9-9〉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교육 이용 여부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30~35세	전 체
받았다	56.2	56.6	49.4	43.4	50.1
받지 않았다	43.8	43.4	50.6	56.6	49.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9-10〉 대학 다닌 적 있는지 여부

(단위: %)

		20~24세	25~29세	30~35세	전 체
다닌 적 없다		18.5	21.5	35.3	26.5
다닌 적 있다		81.5	78.5	64.7	73.5
유형	전문대	39.9	42.4	38.6	39.8
	4년제	60.1	57.6	61.4	60.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제 2 절 대학과 첫 직장

청년층 부가조사는 대학 진학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에 대해서는 진학 여부, 편입학 여부, 성적, 전공계열을 질문했으며, 대학원을 진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학원 사항과 진학 동기를 질문하였다. 아래에서는 간단히 대학 다닌 적이 있는지를 연령별로 분석하였다. 30~35세인 사람들 중에서는 64.7%가 다닌 적이 있다고 했으며, 20~24세인 사람들은 81.5%가 다닌 적 있다고 대답해 절대다수가 대학경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다닌 적 있는 사람 중에는 60.1%가 4년제였다고 대답해 20~24세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81.5% × 60.1%)이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에 대한 조사이므로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를 구하기까지의 과정과 첫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패널조사이므로 첫 일자

리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도 관련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조사의 연혁이 겨우 10년에 불과하므로 이번에 조사된 청년들 중 약 30~40% 정도는 첫 일자리가 '회고적 일자리'로 조사되었다. 회고적 일자리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질문하지 않으므로, 이를테면 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는 셈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첫 일자리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하였다. 일자리를 구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최종 학교 졸업 직후 첫 한 달간 무엇을 하였는지, 구직활동은 언제 시작해 얼마나 하였는지, 구직경로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절에서는 첫 일자리 업무 내용이 자신의 전공이나 교육수준과 일치하는지, 희망직업에서 일자리를 얻었는지 학력별로 분석하여 보았다. <표 9-11>을 보면 학력별로 첫 일자리 업무 내용이 전공과 일치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불일치한다는 사람이 많았다.

<표 9-12>는 첫 일자리 업무수준이 교육수준과 일치하는지 학력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의 교육수준보다 업무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25%가 넘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과잉교육의 문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고졸 미만에서 교육수준보다 업

<표 9-11> 첫 일자리 업무 내용이 전공과 일치하는지

(단위: %)

	매우 일치	약간 일치	약간 불일치	매우 불일치	전 체
고졸 미만	6.4	9.1	39.6	44.8	100.0
	0.7	1.1	5.4	6.9	3.2
고졸	13.4	28.8	34.8	23.0	100.0
	15.1	34.5	48.3	36.4	32.5
대체중퇴, 전문대졸	31.2	27.0	19.4	22.3	100.0
	30.5	28.2	23.5	30.7	28.3
대졸 이상	43.2	27.2	14.8	14.8	100.0
	53.7	36.2	22.7	25.9	36.0
전 체	29.0	27.1	23.4	20.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9-12〉 첫 일자리 업무수준이 나의 교육수준과 일치하는지

(단위: %)

	나의 교육수준보다			전 체
	높다	일치	낮다	
고졸 미만	2.7	67.1	30.2	100.0
	2.4	3.1	3.8	3.2
고졸	2.4	71.7	25.9	100.0
	21.4	32.9	32.7	32.5
대재중퇴, 전문대졸	4.2	68.6	27.2	100.0
	32.3	27.5	30.0	28.3
대졸 이상	4.5	71.7	23.8	100.0
	43.9	36.5	33.4	36.0
전 체	3.7	70.7	25.7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9-13〉 첫 일자리가 희망직업이었는지

(단위: %)

	희망직업 여부		계
	그렇다	아니다	
고졸 미만	38.1	61.9	100.0
	2.1	4.8	3.2
고졸	51.7	48.3	100.0
	28.7	37.8	32.5
대재중퇴, 전문대졸	60.1	39.9	100.0
	29.1	27.2	28.3
대졸 이상	65.2	34.8	100.0
	40.1	30.2	36.0
전 체	58.5	41.5	100.0
	100.0	100.0	100.0

무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대졸 이상에서 가장 적었다는 것이다.

첫 일자리가 희망직업이 맞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대졸 이상에서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아질수록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높았다.

제 3 절 가족생활과 성장

청년층 부가조사는 가족생활과 성장기에 겪었던 이상 행동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민감한 질문의 경우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는 한계는 있지만, 다소 수위를 낮춰서 문항에 포함하였다.

가족생활과 관련해서는 3, 9, 14세 때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부, 모 모두에 대해 질문하였고, 친부모 여부도 질문하였다. 같은 연령일 때 어머니가 취업 중이었던지에 대한 질문도 있다. 만 14세 무렵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 자신만의 방을 가지고 있었는지, 집에 자동차나 텔레비전은 있었는지, 방이 몇 개인 집에 살았는지, 자신만의 책상이 있었는지, 집에 책은 몇 권이나 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또한, 그 연령대에 있을 때 각종 문화활동에는 얼마나 참여하였는지도 질문하였다. 박물관, 미술관, 콘서트, 공연, 스포츠 경기 등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14세 때 부모와 함께 한 대화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잦은 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학교생활, 사회적 이슈, 책이나 영화, 본인의 고민 등으로 나누어 질문하였고, 모두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빈도와 여가활동의 빈도를 통해 얼마나 부모와 생활상의 접촉이 많았는지를 측정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누어 이상 행동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고립되어 지내는 것이 이 시기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상 행동 중 하나이므로 고립을 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해 질문하였다. 이 외에는 지각, 휴학, 술·담배, 무단결석, 징계경험, 싸움, 이성교

제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이하에서는 <표 9-14>에서 14세 때 집의 환경에 대해, <표 9-15>에서 14세 무렵 문화 활동에 대해, <표 9-16>에서 14세 때 부모와의 대화에 대해, <표 9-17>에서 중고등학교 시절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던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표 9-18>과 <표 9-19>에서는 중고등학교 시절의 이상 행동에 대해 빈도를 정리하였다.

<표 9-14> 14세 때 집의 환경

(단위:%)

	1개 있었음	2개 있었음	3개 있었음	4개 있었음	5개 있었음	없었음	전 체
(1) 텔레비전	76.6	21.9	0.9	-	0.0	0.6	100.0
(2) 컴퓨터	43.6	1.7	0.1	-	-	54.6	100.0
(3) 자동차	44.1	2.2	0.0	-	0.1	53.7	100.0
(4) 방	3.4	29.0	59.5	6.0	0.9	1.2	100.0
(5) 자기 독방	51.4	48.6	-	-	-	-	100.0
(6) 자기 책상	76.0	24.0	-	-	-	-	100.0
	0~10권	11~25권	26 ~100권	101 ~200권	201 ~500권	501권 이상	전 체
(7) 책	7.2	25.0	46.5	16.1	4.3	0.9	100.0

<표 9-15> 14세 무렵 문화활동

(단위:%)

	참여하지 않음	1년에 한두번	1년에 서너번	1년에 다섯번 이상	전 체
박물관, 미술관 관람	46.8	46.8	4.9	1.5	100.0
대중음악 콘서트 관람	85.3	12.2	1.7	0.8	100.0
클래식연주, 오페라 관람	88.6	9.5	1.3	0.6	100.0
영화관람	22.7	38.6	25.5	13.2	100.0
연극관람	82.4	15.0	1.6	1.0	100.0
스포츠 경기 관람	76.5	18.1	3.3	2.2	100.0

〈표 9-16〉 14세 무렵 부모와의 대화

(단위:%)

	거의 없었음	1년에 한두번	3개월에 한두번	1달에 한두번	1주에 한번 이상	전 체
학교 생활에 대한 대화	17.4	13.0	10.8	22.7	36.1	100.0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	68.7	10.9	6.7	8.5	5.2	100.0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43.1	14.6	12.4	15.7	14.3	100.0
본인의 고민에 관한 대화	33.3	18.9	14.1	19.3	14.4	100.0
함께 저녁식사	8.8	5.7	6.3	13.5	65.7	100.0
함께 여가활동	40.5	27.6	12.1	11.5	8.1	100.0

〈표 9-17〉 집에만 있는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	아니오	전체	예	아니오	전체
1. 신체나 용모와 관련된 열등감 때문에	2.9	97.1	100.0	2.7	97.3	100.0
2. 학업능력이나 성적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3.7	96.3	100.0	4.6	95.4	100.0
3. 교우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기 어려워서	1.8	98.2	100.0	1.4	98.6	100.0
4. 선생님이 싫어서	3.3	96.7	100.0	3.4	96.6	100.0
5.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0.7	99.3	100.0	0.4	99.6	100.0
6. 원래 비사교적이고 내성적이어서	3.0	97.0	100.0	2.5	97.5	100.0
7. 가정문제로 인해	2.1	97.9	100.0	2.0	98.0	100.0
8.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해서	5.5	94.5	100.0	6.1	93.9	100.0
9.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2.1	97.9	100.0	2.3	97.7	100.0
10. 기타	0.5	99.5	100.0	0.4	99.6	100.0

〈표 9-18〉 중학교 시절 이상 행동의 경험

(단위: %)

	한두번	서너번	다섯번 이상	없었다	전체
1. 휴학 경험	1.5	0.1	0.0	98.5	100.0
2. 지각	12.7	3.8	1.9	81.6	100.0
3. 무단 결석	2.0	0.7	0.5	96.9	100.0
4. 훈계, 근신, 학교 내 봉사 등의 징계	0.8	0.4	0.1	98.8	100.0
5.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경험	1.5	0.5	0.0	97.9	100.0
6.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0.4	0.2	0.0	99.4	100.0
	있었다	없었다			전체
7. 다른 친구를 집단적으로 따돌림 시킨 경험	1.0	99.0	-	-	100.0
8. 이성친구와의 교제	5.5	94.5	-	-	100.0
	한두번	가끔	자주	없었다	전체
9. 담배 피우기	3.1	1.0	0.2	95.7	100.0
10. 친구들과 술마시기	4.6	1.7	0.2	93.5	100.0

〈표 9-19〉 고등학교 시절 이상 행동의 경험

(단위: %)

	한두번	서너번	다섯번 이상	없었다	전체
1. 휴학 경험	0.7	0.1	0.1	99.2	100.0
2. 지각	13.1	4.0	2.5	80.3	100.0
3. 무단 결석	2.6	0.7	1.1	95.6	100.0
4. 훈계, 근신, 학교 내 봉사 등의 징계	1.4	0.2	0.2	98.1	100.0
5.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경험	1.3	0.4	0.2	98.1	100.0
6.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0.2	0.1	0.1	99.6	100.0
	있었다	없었다			전체
7. 다른 친구를 집단적으로 따돌림 시킨 경험	0.6	99.4	-	-	100.0
8. 이성친구와의 교제	14.1	85.9	-	-	100.0
	한두번	가끔	자주	없었다	전체
9. 담배 피우기	10.8	3.6	1.6	84.0	100.0
10. 친구들과 술마시기	14.9	5.8	1.6	77.8	100.0

제 10 장

경제활동의 동태적 변화

패널자료는 같은 조사 단위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얻는 자료이다. 종단적으로 추적하기 때문에 같은 조사 단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물론, 회고적 자료로도 이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회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러가 회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종단적 변화를 알아내고, 이를 분석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갖는다.

본 절은 바로 이와 같은 패널자료의 장점을 살려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이하 KLIPS)에 응답한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와 가구의 소득을 연도간 변화의 관점에서 보여줄 것이다.

본 절과 같은 종단적 분석을 할 때 가중치 사용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KLIPS는 가구 단위에서는 가구가중치 하나만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 단위에서는 개인 종단면 가중치와 개인 횡단면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KLIPS는 원가구원이 있는 가구만 추적하므로, 가구 단위의 경우 추출확률과 각 조사 차수의 무응답 확률을 감안하여 조정된 가구가중치 하나만 있으면 종단적 분석이나 횡단적 분석을 할 때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 단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KLIPS는 원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조사하므로, 전년도까지는 표본이 아니었으나 올해 새롭게 가구로 진입해 표본이 된 개인들(이하 비표본 가구원)이 항상 존재한다. 횡단면 가중치는 이들도 이 가구의 가구원으로 파악하여 부여하는 가중치이다. 종단면 가중치는 비표본 가구원의 경우 무응답

확률을 계산하기 매우 복잡하고, 패널의 추적 원칙을 흐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제외하고 원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무응답 확률을 계산하여 제작한 가중치이다. 횡단면 분석을 할 때에는 어떤 가중치를 사용해도 통계이론상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분석 대상이 되는 표본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횡단면 가중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절에서와 같은 종단적 분석에서는 비표본가구원을 포함할 경우 통계이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G. Kalton과 J.M. Brick이 작성한 “Weighting Schemes for Household Panel Surveys (SIPP, No.199)”에 따르면, KLIPS처럼 비원표본가구원이 분가할 경우 추적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 패널조사에서는 횡단면 가중치를 이용해 종단적 분석을 할 경우 분석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표본에서 이탈하는 비표본가구원이 증가하는데, 이들의 무응답이 조정되지 않으므로 모수 추정에 편의(bias)가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분석 기간이 짧을 경우 떨어져 나가는 비표본가구원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분석 사례수를 늘리기 위해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 종단면 가중치 사용을 권장한다.

1.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표 10-1>은 경제활동상태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8차년도와 9차년도에 모두 응답한 개인들 및 7차년도와 9차년도에 모두 응답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각각 경제활동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다.

8차년도 조사에서 취업자였던 사람은 91.3%가 9차년도 조사에서도 취업자로 남아 있었으며, 2.3%는 실업자로 이동했고, 6.4%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했다. 8차년도 조사에서 실업자였던 사람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7.0%가 9차년도 조사에서 취업자가 되었으며, 약 1/5 가량인 21.6%는 여전히 실업자로 남아 있었다. 비경제활동인구로는 31.4%가 이동하였다. 8차년도 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사람은 10.6%가 취업자가 되었으며, 2.8%는 실업자가 되었고, 86.6%는 그대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았다.

2년이 경과한 상태를 보면, 7차년도 조사에서의 상태를 9차년도 조사에

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위의 1년 경과 시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7차년도 조사에서 취업자였던 사람들의 9차년도 조사에서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87.7%는 여전히 취업자인 채로 남았으며 2.5%는 실업자가 되었다. 9.9%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다. 7차년도 조사에서 실업자였던 사람들은 절반이 넘는 52.1%의 사람들이 실업상태를 탈출해 취업자가 되었으며, 10.2%는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었고, 37.7%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였다. 7차년도 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사람들은 17.0%가 취업자가 되었으며, 3.4%는 실업자가 되었고, 79.6%는 그대로 비경활인 채로 남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부는 경제활동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경제활동을 하려고 틈을 보고 있으나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될 만큼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실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 이동한 사람들이 실업자에서 취업자로 이동한 사람들보다 더 많다. 이는 9차년도 조사에서 취업자인 사람 중 8차에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사람들이 8.5%인 반면 실업자였던 사

〈표 10-1〉 경제활동상태의 이동

(단위:%)

	8차 → 9차				7차 → 9차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전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전체
취업자	91.3	2.3	6.4	100.0	87.7	2.5	9.9	100.0
	88.7	38.4	8.0	-	83.6	41.6	12.6	-
	48.3	1.2	3.4	52.9	46.4	1.3	5.2	52.9
실업자	47.0	21.6	31.4	100.0	52.1	10.2	37.7	100.0
	2.8	22.1	2.4	-	3.1	10.7	3.0	-
	1.5	0.7	1.0	3.2	1.7	0.3	1.2	3.3
비경제활 동인구	10.6	2.8	86.6	100.0	17.0	3.4	79.6	100.0
	8.5	39.5	89.6	-	13.4	47.7	84.4	-
	4.6	1.2	38.0	43.8	7.4	1.5	34.9	43.8
전체	-	-	-	-	-	-	-	-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54.5	3.2	42.4	100.0	55.5	3.1	41.3	100.0

주 : 9차 개인 종단면 가중치 적용.

〈표 10-2〉 8차년도 → 9차년도 성별 경제활동상태 이행

(단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남성	취업자	93.4	2.1	4.5	100.0
	실업자	53.0	23.8	23.2	100.0
	비경제활동인구	11.6	3.6	84.7	100.0
여성	취업자	87.9	2.6	9.6	100.0
	실업자	37.4	18.0	44.6	100.0
	비경제활동인구	9.9	2.4	87.7	100.0

주 : 9차 개인 종단면 가중치 적용.

람들은 2.8%에 불과하며, 7차년도에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사람은 13.4%인 반면 실업자였던 사람들은 3.1%에 불과하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큰 규모라는 사실은 기존 실업자 통계가 실업된 사람들의 규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하므로 다른 통계들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오래된 지적과도 일맥상 통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상태 이동을 성별로 나누어서 보면(표 10-2), 남성의 경우 8차년도 조사에서 취업자였던 사람 중 9차년도 조사에서도 취업자로 남은 사람은 93.4%, 실업자로 이동한 사람은 2.1%,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사람은 4.5%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8차년도 조사에서 취업자였던 사람 중 87.9%가 취업자로 남아 있었고, 실업자로 이동한 사람은 2.6%,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사람은 9.6%로, 남성에 비해 취업자로 남아 있는 사람의 비중은 낮은 반면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으로 이동한 사람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차년도 조사에서 실업자였던 사람은 9차년도 조사에서 남성의 경우 53.0%가 취업자가 된 반면, 여성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37.4%가 취업자가 되었다. 여전히 실업자인 사람은 남성은 23.8%, 여성은 18.0%로 남성이 높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사람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0%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실업→실업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여성의 경우에 비해 더 높아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은 남성이 더 낮다.

이로 인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과 진입이 동일하고, 실업탈출이 지수 분포를 한다는 가정 하에 탈출률의 역수로 계산되는 평균 실업기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길게 나타나겠지만, 그 이면에는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의 탈출이 높다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8차년도 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사람은 9차년도 조사에서 남성의 경우 11.6%가 취업자, 3.6%가 실업자로 되었으며, 84.7%는 그대로 남았다. 여성의 경우는 9.9%가 취업자, 2.4%가 실업자로 되었고, 87.7%는 그대로 남았다.

<표 10-3>에서는 연령별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에서

<표 10-3> 8차년도 → 9차년도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이행

(단위: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 체
20대	취업자	82.1	3.9	14.0	100.0
	실업자	54.3	21.3	24.4	100.0
	비경제활동인구	24.4	7.0	68.6	100.0
	전 체	52.7	6.5	40.9	100.0
30대	취업자	93.3	2.2	4.5	100.0
	실업자	41.0	25.9	33.0	100.0
	비경제활동인구	16.0	4.1	80.0	100.0
	전 체	68.9	3.8	27.2	100.0
40대	취업자	94.2	2.2	3.6	100.0
	실업자	55.5	18.1	26.4	100.0
	비경제활동인구	14.5	3.5	82.1	100.0
	전 체	75.4	2.9	21.7	100.0
50대	취업자	93.6	1.5	4.8	100.0
	실업자	37.1	22.1	40.8	100.0
	비경제활동인구	8.7	2.4	88.9	100.0
	전 체	65.4	2.3	32.2	100.0
60대 이상	취업자	87.8	1.3	10.9	100.0
	실업자	30.1	8.7	61.2	100.0
	비경제활동인구	1.7	0.2	98.1	100.0
	전 체	25.7	0.6	73.7	100.0

주 : 9차 개인 종단면 가중치 적용.

“계”는 9차년도 각 경제활동상태별 비중이다. 각 연령대를 비교해 볼 때 20대의 경제상태간 이동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8차년도에도 취업이고 9차년도에도 취업상태에 머문 사람은 82.1%로 가장 낮고, 두 연도 간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었던 사람의 비중도 68.6%로 가장 낮다. 실업자였다가 취업자로 이동한 사람들 비중은 40대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사람들 비중은 가장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인 채로 남아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21.3%라는 사실은 좋은 소식은 아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다른 경제상태로 이동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자는 경제활동이 정점에 있는 40대에서 가장 이동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4>는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학력별로 살펴보았다. 고졸 미만은

<표 10-4> 8차년도 → 9차년도 학력별 경제활동상태 이행

(단위: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 체
고졸미만	취업자	90.1	2.1	7.8	100.0
	실업자	47.7	10.6	41.7	100.0
	비경제활동인구	3.1	0.9	95.9	100.0
	전 체	36.7	1.6	61.7	100.0
고졸	취업자	91.6	2.6	5.8	100.0
	실업자	49.4	26.4	24.2	100.0
	비경제활동인구	12.7	3.9	83.4	100.0
	전 체	63.3	4.1	32.6	100.0
대재중퇴, 전문대졸	취업자	89.3	3.0	7.7	100.0
	실업자	49.7	18.0	32.3	100.0
	비경제활동인구	16.6	4.4	78.9	100.0
	전 체	55.2	4.1	40.7	100.0
대졸이상	취업자	94.3	1.7	4.1	100.0
	실업자	45.1	23.7	31.3	100.0
	비경제활동인구	21.3	4.9	73.8	100.0
	전 체	70.4	3.4	26.2	100.0

주 : 9차 개인 종단면 가중치 적용.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은 사람이 많아 취업자 비중이 낮으므로 큰 의미를 두어 수치의 차이를 해석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졸과 대학중퇴자, 전문대졸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취업자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비경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은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졸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실업자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실업에서 취업자로 변화될 가능성은 대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졸이나 대졸 미만자에 비해 대졸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업으로 이동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 가구소득의 변화

<표 10-5>는 가구소득을 5분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KLIPS는 가구소득을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기타 소득으로 나누어 질문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합산하여 가구별 소득 총액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5개 분위로 나누었다. 1분위는 가장 소득이 낮은 20%를 의미하고, 5분위는 가장 소득이 높은 20%를 의미한다.

표를 보면 8차년도에서 9차년도로의 소득 이동과 7차년도에서 9차년도로의 소득 이동이 요약되어 있다. 먼저 1년 경과를 담고 있는 8차년도에서 9차년도로의 소득 이동을 보면 다른 분위들에 비해 1분위와 5분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같은 분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는 1분위 밑에 더 낮은 분위가 없어 밑으로의 소득 이동이 안 잡히고, 5분위 위에 더 높은 분위가 없어 위로의 소득 이동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그 안에서의 소득 변화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소득이 개선된 사람의 비중만 보면 1분위는 28%, 2분위는 33.3%, 3분위는 25.6%, 4분위는 21%이고, 소득이 떨어진 사람의 비중을 보면 5분위는 28.9%, 4분위는 31.7%, 3분위는 27.4%, 2분위는 18.5%로 나타났다.

<표 10-6>은 7차년도에서 9차년도로의 가구소득 이동을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45세 이하 가구와 46세 이상 가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의

〈표 10-5〉 가구소득분위의 이동

(단위:%)

	8차년도 → 9차년도						7차년도 → 9차년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 분 위	72.0	19.8	5.3	1.3	1.6	100.0	65.4	21.3	7.7	3.7	1.9	100.0
	73.3	19.7	5.2	1.3	1.6	-	66.3	21.7	7.6	3.7	1.8	-
	14.3	3.9	1.0	0.3	0.3	19.9	13.0	4.2	1.5	0.7	0.4	19.9
2 분 위	18.5	49.2	20.8	9.6	1.9	100.0	19.4	42.2	21.4	12.6	4.4	100.0
	18.9	49.3	20.5	9.6	1.8	-	19.8	43.1	21.1	12.6	4.2	-
	3.7	9.8	4.2	1.9	0.4	20.0	3.9	8.4	4.3	2.5	0.9	19.9
3 분 위	4.5	22.9	46.9	20.0	5.6	100.0	7.1	23.2	39.6	22.2	7.8	100.0
	4.4	22.2	44.7	19.4	5.3	-	7.3	23.9	39.3	22.4	7.6	-
	0.9	4.4	9.0	3.9	1.1	19.3	1.4	4.7	8.0	4.5	1.6	20.1
4 분 위	2.0	6.2	23.6	47.3	21.0	100.0	4.1	6.9	25.5	41.6	21.8	100.0
	2.1	6.5	24.2	49.5	21.4	-	4.1	7.0	25.0	41.5	20.8	-
	0.4	1.3	4.9	9.8	4.4	20.8	0.8	1.4	5.1	8.2	4.3	19.8
5 분 위	1.3	2.3	5.4	20.0	71.1	100.0	2.4	4.0	7.1	19.4	67.2	100.0
	1.3	2.3	5.3	20.2	69.9	-	2.5	4.1	7.1	19.8	65.5	-
	0.3	0.5	1.1	4.0	14.3	20.0	0.5	0.8	1.4	3.9	13.6	20.3
전 체	-	-	-	-	-	-	-	-	-	-	-	-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19.6	19.9	20.2	19.9	20.4	100.0	19.6	19.5	20.3	19.9	20.8	100.0

주 : 9차 가구 가중치 적용. 1분위가 최저, 5분위가 최고 소득 가구분위임.

소득 분위는 45세 이하 가구 내에서의 소득 분위가 아니다. 왼쪽 상단의 첫 번째 셀을 해석해 보면, 7차년도 전체 가구소득 분위 중 1분위에 있었던 45세 이하 가구 중 9차년도 전체 가구소득 분위에서도 여전히 1분위에 남아 있는 가구의 비중이다.

예상대로 45세 이하 가구는 46세 이상 가구에 비해 소득이 증가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이프 사이클상 45세 이하 가구는 소득이 증가하는 과정에 있을 것이고, 46세 이상 가구는 소득이 감소하는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빈곤의 문제는 많은 경우 고연령자의 문제일 것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젊은 층의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1분위에 34%가 남아 있는 것은 숫자는 적어도 가구

〈표 10-6〉 7차년도 → 9차년도 가구주 연령별 가구소득 분위의 이동 (단위:%)

	가구주 연령 45세 이하					가구주 연령 46세 이상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34.0	44.8	15.0	5.4	0.9	71.3	16.9	6.4	3.4	2.1
2분위	14.1	46.4	24.1	12.3	3.0	22.5	39.7	19.8	12.7	5.2
3분위	3.5	20.7	44.0	23.2	8.6	10.0	25.2	36.1	21.4	7.3
4분위	4.7	5.3	24.4	41.8	23.8	3.6	8.1	26.4	41.5	20.4
5분위	0.0	4.4	5.1	18.2	72.3	3.8	3.8	8.2	20.1	64.2

주: 9차 가구 가중치 적용. 1분위가 최저, 5분위가 최고 소득 가구분위임.

〈표 10-7〉 7차년도 → 9차년도 가구주 성별 가구소득 분위의 이동 (단위:%)

	남성					여성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54.3	27.6	9.8	5.6	2.7	80.2	13.0	4.9	1.1	0.8
2분위	17.8	41.6	22.7	13.1	4.9	26.8	44.9	15.5	10.4	2.3
3분위	6.9	22.5	40.2	22.1	8.4	9.0	29.1	35.1	22.9	3.9
4분위	3.6	6.2	25.6	42.6	22.0	10.0	16.3	24.3	30.0	19.4
5분위	2.1	3.7	7.0	19.2	68.0	6.9	10.1	8.5	23.1	51.4

주: 9차 가구 가중치 적용. 1분위가 최저, 5분위가 최고 소득 가구분위임.

빈곤의 문제가 존재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0-7〉은 가구주 성별로 소득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각 셀에 대한 해석은 위의 표와 동일하다.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에 비해 확연히 소득이 개선되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7차년도에 전체 가구소득 분위에서 1분위에 속했던 사람들은 2년 이경과한 시점에도 1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무려 80.2%로 나타났다. 다른 분위에서도 소득이 후퇴할 가능성이 남성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 후퇴할 가능성도 높고 빈곤상태에 정체를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은 동태적 측면에서도 빈곤이 여성이 가장인 가구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執筆陣

-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상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최효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 신선옥(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제9차(2006)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 | |
|--------|---|
| •발행연월일 | 2008년 6월 9일 인쇄
2008년 6월 13일 발행 |
| •발행인 | 최영기 |
|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35
☎ 대표 (02) 785-5080 FAX (02) 3775-0697 |
| •조판·인쇄 | 거목정보산업(주) (02) 2164-3232 |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 •등록번호 | 제13-155호 |

© 한국노동연구원 정가 9,000원

ISBN 978-89-7356-697-6